

## 제 2 편 근·현대 잠업역사

---

| 제1장 | 대한제국 시기 (1887~1910)

| 제2장 | 일제강점기 시대 (1910~1945)

| 제3장 | 해방 직후 혼란기 (1945~1950)

| 제4장 | 대한민국 잠사업 전개 (1950~1994)

| 제5장 | 60년대 이후 잠업정책

| 제6장 | 잠사문화 활동 및 유적

## 제 2 편 근·현대 잠업역사

### 제 1 장 대한제국 시기 (1887~1910)

#### 제1절 잠사업의 근대 산업화 시도



농상공부 동적전 상원식재 여제상수  
관리하게 하였다.

1880년대에 정부나 민간인이 잠사업 근대화를 위하여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 잠업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등 잠업장려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 사례로 '신사유람단'을 일본에 파견, 새로운 산업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돌아온 신사유람단은 부국을 위한 유망 업종으로 잠업의 장려를 주장하였다. 이에 정부는 유람단의 건의로 적극적인 잠업장려를 위해 1883년 12월 '통리군국사무아문'내에 농상사(農桑司)를 설치하여 기구내에 양잠을

1884년 9월 전문관청의 설치를 천명하는 교지(教旨)에 따라 '잠상공사(蠶桑公司)'를 설치하고 독일인 메르텐스(A. Maertens)를 초빙, 잠업경영 및 기술지도를 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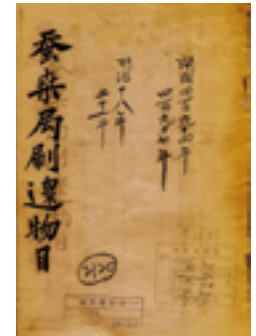
잠상공사는 메르텐스 주도로 뽕나무를 심고, 각종 개량 제사기구들을 수입 보급함으로써 잠업산업화에 노력을 기울였으나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 경영진(조영하, 민영익, 김홍집 등)의 능력부족 등으로 1889년에 폐지되고 말았다.

잠상공사와 함께 정부에서는 1885년 2월에 '경성농상회사'를 설립, 개간뽕밭 조성을 주

력사업으로 하였고, 지방도 '교하농상회사'와 같은 형태의 양잠회사들이 설립되었다.

1895년 3월에는 관제개혁에 따라 공무아문을 통합하여 농상공부로 개편하고, 농상공부내에 농무국을 설치하여 농업과 잠업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1890년을 전후하여 잠업관련 기구를 신설하여 장려시책을 추진하였으나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간에서는 1899년에 오오사까(大阪)에서 질이 매우 떨어지는 상묘(桑苗)를 수입한 사건까지 발생했으며, 1900년 11월에는 농상공부 산하에 잠업과시험장, 함경도에 함영잠장, 1901년 1월에 평북에 평북잠장, 경북에 경북잠장을 설치하고 운영하였다.



농상공부 잠상국 물품 기록(1895)

1902년 한국주재 일본영사관의 보고에 의하면 조선은 1890년대부터 잠업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게 되었으며 당시 설립된 민간 잠업회사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1900년 서울에 설립된 대한제국인공양잠회사(김가진), 양잠회사(김동규), 1901년의 농업회사(민병석, 김석항)등이 설립되었다.

이들은 주로 양잠기계수입과 판매를 하였으며 1902년에는 양잠회사(서상돈)를 설립하고 청과 일본으로부터 상묘를 수입·판매하였고, 경주양잠합자회사(심상옥)가 설립되었으며, 1903년에서 1904년까지 2개 회사가 더 설립되어 이들은 주로 뽕나무 노상(魯桑) 품종을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이들 회사들의 성격을 보면 일본유학 또는 국내에서 잠업 전문교육을 받은 정부관리 출신이나 자본가이고 운영방식은 주식회사 또는 합자회사이며 영업내용은 상묘, 잠종 및 양잠기계 수입, 중계판매이나 신품종의 도입, 양잠신기술의 보급 등 근대식 잠업발전에 공헌 하였다.

이 시기에 새로운 잠업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사립 잠업전습소'가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 1901년 '청풍양잠학교(한태교)'와 공주의 '공주사립양잠학교' 등과 1903년까지 익산, 자산(慈山)에 민간 '양잠시험장'등이 설립되었다.

이 무렵 새로운 잠업기술을 전파하기 위한 잠서(蠶書)편찬이 속속 출판되었다. 대표적인 잠서(蠶書)로는 '잠상촬요(蠶桑撮



잠상촬요(1884)

要 : 1884), '증보잠상촬요(增補蠶桑撮要 : 1884)', '잠상집요(蠶桑輯要 : 1886)', '재상전서(栽桑全書 : 1905)'이며 이와 함께 일본의 양잠서적 번역판 등 잠업 관련 전문서적이 발행되었다.

1880년대에서 1900년대 초에는 여러 분야에서 선진 지식을 갖춘 민간인이 앞장서서 잠업의 근대화 시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조선시대 말기의 사회혼란, 외세침략 소용돌이, 정부 재정지원 부족과 더불어 우리국민의 자주적 근대화 등 내심으로 반가워하지 않는 일제의 속셈 등이 걸림돌이 되면서 당시 선구자들의 잠업 근대화 노력은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결국 1910년 한일 합방을 맞이하면서 잠업 개발에 따른 수익 모두가 일제에 의한 독점체제로 전이됨에 따라 강제수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고 말았다.

## 제2절 섬유산업의 근대화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19세기 말에 정부 개화관료들의 근대화를 위한 정책적 주장과 선진 문명을 접목시키려는 민간 선각자들에 의하여 근대식 공장체제를 갖춘 산업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그 사례로 1884년 잠상공사가 일본으로부터 조사기 등 제사공장 관련기계를 수입한 것을 시작으로 생사에 색을 입히는 염료가 최초로 수입되기 시작되었다.

1905년에는 정부의 관제가 전면 개편되어 농상공부 내에 직조국이 신설되고 1884년 서울에 직조권업장을 설치한 것이 방적공업 사상 공장체제의 효시로 볼 수 있다.

1900년에는 당시의 농상공부대신인 송병준이 일본에서 조사기 32부(釜)를 구입하여 자신의 집(自家)에 설치 하였으나 1915년 일제의 경기도 은사수산장에 강제로 양도되고 말았다.

또 한편으로 1900년 11월 서울 필동에 농상공부 산하 잠사관계 정부연구기관 최초로 잠업과시험장이 설치되었다. 이즈음 서울의 한성제직회사가 소견기 50대, 황건기 10대 설치를 시작으로 1907년에는 일인의 동양방직회사가 영국제 방직기로 바꾸는 등 직기를 수입하여 생산능력이 급증하면서 조선의 제사시장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다.

1890년대에서 1910년까지 약 20년 사이 우리나라 해안 교통요지에 개항이 여러 곳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청나라의 견직물이 조선으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으로 취급되고 그 수입량이 확대됨에 따라 조선정부는 새로운 직조기계를 마련하고 견직물 생산 공장 건립을 권장하는 등 중점 추진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조선에서는 섬유공업 분야가 가장 먼저 공장식 형태의 산업체제로 빠르게 이행되기 시작하였다.

## 제3절 한·일 합방 당시의 잠업현황

일본은 한·일합방 훨씬 이전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와 정보 수집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기후풍토가 일본보다 우수하고(한국은 일본보다 습기가 적고 일조시간이 긴 점 등) 오랜 기간 동안 전통적인 잠업 기술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농민에 대한 기술교육과 활용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발전 잠재력과 가용노동력이 풍부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잠업 장려를 빌미로 침략 초기부터 본격적인 잠업수탈 정책을 착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잠업조사서(1905)

일제가 1904년에서 1905년 당시에 실시한 일본 농상무성이 주관한 '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서'와 1905년 조선통감부가 실시해 발표한 '한국잠업조사복명서'를 근거로 당시 조선의 잠업 실태를 조사하여 보고한 내용을 요약하면

'조선은 도처에(평안남도, 황해도,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등지) 야생 뽕나무와 집 주변에 식재되어 있고, 키가 크고 오래된 뽕나무가 10여주씩 산재되어 있는 산식 뽕밭이 대부분이다. 이들 뽕나무 중에는 일본에서 수입한 노상 등 외국에서 수입한 뽕나무도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최신한국사정'(저자: 岡庸一)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한국 내에는 도처에 야생 뽕나무 품종인 십문자(十文字)로 잎이 적은 뽕나무가 주종을



1905년대 양잠농가 상전개량

이루고 있어 재배관리만 잘하면 수량이 많아 질수도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일제는 이렇게 치밀한 잠업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조선의 잠업상황을 파악했으며 '조선은 전국적으로 뽕나무 재배가 어디서나 가능하고 식재 방법과 전정(剪整) 방법만 개선하면 성과를 얻을 수 있고 잠종은 거의 삼면잠(三眠蠶)으로 경제성이 낮으나 개량의 여지가 크다'는 것을 파악하게 된 것이다. 또 다른 기록에서는 19세기말 잠업 발달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평안도의 평양, 강원, 경상도의 안동, 상주, 전라도의 광주, 남원, 능주(현, 화순) 등지는 견직물도 생산 하였으며 평안도에서는 견직물을 1년에 45필을 수출하기도 하였다. 당시 경기도 고양군과 시흥군은 일본과 청국에서 수입한 노상뽕 품종이 3만주나 되는 등 노상 재배가 평양 등지에서도 왕성하였다'라고 하였으며 '조선의 북쪽에서는 작잠 사육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1908년 조선의 양잠상황은 '양잠호수 61,480호, 순 상전(純桑田) 면적 731.30ha, 누에고치 생산량 11,048.4석(352,113kg)'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은 우리나라 잠업 통계의 최초라고 여겨진다.

## 제4절 잠사업장려 기구 및 제도 확립

### 1. 시험연구기관 설립

1900년 11월의 대한제국(광무 4년) 농상공부 「잠업과시험장」 설치와 1906년 조선통감부 소속의 「권업모범장」 설치로 잠업 시험연구 사업이 중점 실시되고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일제가 식민정책 추진수단으로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1910년 한·일 합방과 동시에 조선총독부 관제 개편에 따라 같은 해에 용산, 평양, 목포, 대구, 등지에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는 지장(支場)을 설치하였다. 이 가운데 용산지장은 잠업시험사업을 전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연구기관이라 할 수 있다.

1905년 「대한부인회」가 설립하였던 「잠업강습소」의 사업 전부를 승계 받게 된 「여자

잠업강습소」가 용산지장에 부설되었다. 그리고 1908년에는 경남 진주와 함남에 여자잠업강습소가 설치되었다.

1909년에는 전북 전주, 전남 광주, 황해도 해주, 평북 의주, 함북 경성에 1910년에는 충남 공주, 강원 춘천에 종묘장 9개소를 설치하여 종자나 종묘의 육성과 배부를 하게 되어 잠종도 이곳에서 육성하고 배부를 담당하게 되었다.

### 2. 잠업교육 강습 기구 설립

1900년 11월 설치된 농상공부 잠업과시험장은 1904년 6월 관제개혁으로 「잠상시험장」이라 개칭하고 업무는 잠업 장려에 국한하고 잠업 발전에 열의가 있었던 김가진이 장장으로 임명되었으며 후에 농상공부 농광국장이 장장을 겸직하게 하였다. 1907년 9월까지의 농광국 농상과 직할로 운영하여 잠업에 관한 시험사업과 기술자양성기관으로서 우리나라 농사개량지도 사업의 효시가 되는 것이다.



잠상시험장 초대 장장 김가진(1905)

대한부인회가 용산에 설립한 잠업강습소는 1910년 권업모범장 용산지장 부설인 여자잠업강습소에 업무를 승계하였다. 1905년에는 양지, 소사, 대구, 안양 등 4개소에 잠업전습소를 설치하고 6~12개월의 단기 과정으로 잠업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는 본격적인 잠업교육을 수행하였다. 이후 계속해서 잠업강습이 각 지방에 확대 실시되어 1911년에는 강습소 개설이 79개소, 강습회는 총 66회, 졸업생으로는 남자 1,596명 여자가 564명 총계 2,160명에 달하였으며 졸업생은 개인자격 또는 단체에 소속되었다.

당시 정부는 강습소에 보조금 지급 등 기술자 육성에 많은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잠업관련 강습의 적극적인 실시의 효과는 잠업의 발달향상에 많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업 추진 이면에는 일제의 경제적 수탈의 사전포석에 따른 철저한 계획과 수단에 의하여 진행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 제2장 일제강점기 시대 (1910~1945)

### 제1절 잠업의 약탈정책

1910년 조선을 강점한 일본은 식민지 지배체제를 확립함과 동시에 경제적 지배체제도 강화해나가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한·일합병 이전에도 여러 가지 경로로 탐색을 통하여 잠업에 유리한 여러 가지 환경적 조건을 지닌 우리나라에 침략 초기부터 식민 수탈이 용이한 잠업 장려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시작했다.

일본이 식민지 경제 정책의 기본정책으로 농업을 통한 수탈을 위해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이 토지조사사업이다. (朝鮮農會「朝鮮農業發達史」, 政策篇 p. 349~353)

본래 이 토지조사사업은 대한제국시대인 1910년 3월부터 시작했지만 주권을 강점한 이후에는 일제가 토지조사사업 자체를 인수하여 9월부터 본격적인 그들만의 수익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다.

이 토지조사사업 추진 이면에는 일본인의 토지점유 투자를 자유자재로 하여 그들에게 유리한 토지강점 야욕의 속셈을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 (李炫熙, 「韓國史大系」 8 p. 54~59)

이와 같이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진행 가운데 소위 조선총독은 주권강탈 직후인 1910년 10월 5일 각도 장관(뒤의 도지사)에 대해서 총독부 개설에 따른 시정 운영방침을 매우 상세하게 훈시(朝鮮農會 前揭書, p. 180~182.) 하였다.

농업분야에 대해서 전 분야에 걸쳐 매우 세밀하게 언급하는 가운데 잠업에 관한 부분만을 별도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잠업은 조선의 풍토에 빈부 상하를 통하여 가장 간단하고도 적절한 부업이다. 특히 양반 유생에 있어서 알맞은 생업이므로 크게 장려할 필요가 있다. 상묘, 잠종, 잠구의 무상 배부는 개량을 촉진시키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일 수가 있다. 북선(北鮮)에는 작잠(柞蠶) 사육에 알맞은 곳이 적지 않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11년 7월 1일 총독부에서 각 도 장관에게 보낸 훈시(朝鮮農會 上揭書, p. 182.)에서도 농업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농업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은 1912년 3월 각 도(道)장관과 권업모범장 책임자에게 지시한 훈시에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총독은 이 훈시에서 농업정책의 기본방침으로 쌀, 면화, 양잠, 축우의 4종류 농업생산물에 대해서 그 개량과 증식 방침을 명시하고, 이 훈시를 근거로 이후 일본의 침략을 통한 농정의 기본방침이 정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일본의 이러한 농정의 기본 정책은 식민통치 내내 일관되게 진행되었다.

당시 쌀, 면화, 축우와 함께 양잠은 당시 일본의 가장 중요한 수출물자로서 비단을 생산하는 생사의 증산에 중점적인 목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 제2절 고치증산 정책

잠업은 일제의 침략초기부터 4대 농산물 가운데 잠업증산 정책을 포함시켜서 고치의 생산 확대를 적극적인 정책으로 권장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 ① 1910년대 일본은 생사가 가장 중요한 수출용 원료 소재로 당시 일본 경제에 중대하고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그 원료가 되는 고치의 증산이 절실하였다.
- ② 일본의 기후는 해양성 기후로 고온 다습하여 양잠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조선은 대륙성 기후로 습도가 낮고 일조 시수가 많아 누에사육에는 일본보다 훨씬 좋은 환경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장점이 있다.
- ③ 조선의 양잠은 전통산업으로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어 농민에 대한 잠업 기술 보급과 생산에 큰 어려움이 없다.
- ④ 농촌의 노인과 부녀자 등 유향 가용노동력 풍부 이를 활용한 부업으로 매우 적당하다.

이러한 내용으로 일본은 처음부터 강제수탈의 목적을 가지고 양잠을 통한 고치증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이 당시 일제의 잠업정책을 10년 주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제 1기 (1910~1919)

일제가 잠업 장려를 목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한 기간에 해당된다.

이미 언급한 1910년 10월 5일 총독이 처음으로 각도 장관에게 보낸 농업에 관한 훈시에 서 잠업장려에 대하여 지시를 통첩한 일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1912년 3월에 각도 장관에게 보낸 총독 농업정책의 기본방침 가운데 잠업의 개선 및 장려에 관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우량 잠종의 보급

둘째, 애누에 공동사육소의 설치

셋째, 여자의 잠업장려

넷째, 산견 판매의 알선 등



일반가정에서의 재래잠종제조

4개항에 대하여 잠업환경 개선 및 장려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라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에 다른 각 항목 별 구체적인 시책 내용을 살펴보면

### 가. 우량 잠종의 보급

잠견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일본 잠 품종을 장려품종으로 지정하면서 소위 재래 잠종을 철저히 배제하여 조선에서 잠종을 통일함으로써 잠업 생산 환경의 기본 토대로 추진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다.

그리하여 일본의 잠종을 1912년 이후 새롭게 조선의 장려품종으로 지정하여 그 보급을 장려하게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이 훈시에 기초를 둔 것이다.

그러나 우량잠종의 수요는 어느 정도 확대되었으나, 반면에 공급은 충분하지 못하여 1917년에는 조선 내에 잠종 수요 가운데 30%를 일본에서 수입하였다.

장려품종의 지정에 이어서 원잠종의 제조에 따른 배부에 있어서 1911년 이후 권업모범장 용산 지장에서 수행하였지만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913년 권업모범장에 원잠종제조소(原種製造所)를 창설하여 수원(水原)에 설치하고 장려품종 원잠종의 제조·배부는 물론 새로운 품종의 육성과 잠업 일반에 관한 시험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량 잠종의 보급과 장려에 힘쓰는 일이다.

종래에도 권업모범장에서 우량 잠종을 제조 배부한 외에 일본 잠종을 수입하여 배부하기도 하고, 도(道) 종묘장과 같은 지방 기관에서의 잠종 제조에 대하여 보조 장려하였다. 한편으로 잠종업자들에게도 잠종제조를 권장하여 일본으로부터 잠종을 공동 구입하게 하는 등 일본종 우량 잠종의 보급을 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였다.

그러자 업자들 가운데는 직접 잠종 제조하는 일이 점차 증가 되자 조선지역에 있어서 잠종의 공급에는 공헌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품종이 잡다하게 섞이게 되는 사태도 함께 발생하게 된 것이다.

원잠종제조소 설치 이후 제조된 원잠종은 별도로 원원잠종이라 하여 지방청에 배부하고 지방청에서는 그 산하 잠업기관으로 하여금 원원잠종을 사육하게 하여 지역 관내에서 소요되는 원잠종을 제조 배부하게 함으로서 잠종의 개량과 통일을 이루도록 방침을 세운 것이다. 따라서 잠종이 부족하여 일본에서 수입 보충해야 할 경우에도 그 수입 잠종의 성상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될 수 있으면 조선 내에서 제조하도록 하고 배부되고 있는 잠종에 해당하는 품종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들 장려품종의 보급을 강화하기 위해서 장려품종 사육을 장려하는 동시에 가능하면 재래 잠종을 없애도록 많은 노력이 뒤따랐으며 경우에 따라서 재래 잠종을 수집하여 태워버리는 일까지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름과 가을에 생산된 잠종의 냉장을 무료로 하는 것과 같은 편익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한편 당시 부족현상을 나타내고 있던 조선산 잠종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1914년부터 잠종제조업자의 양성과 강습 등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우수한 잠종 제조업자의 증가를 유도하였으며 당시 조선 내의 잠종제조업자의 대다수는 양잠전습소(養蠶傳習所) 수료생이거나 농업학교 출신의 졸업생들이었다.

당시 원잠종제조소의 예정지였던 경기도 고양군 잠실리(蠶室里, 현재 잠원동)의 뽕밭에 원잠종제조소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장마나 홍수 등 상습적인 수해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임을 고려하여 경기도 수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경기도 잠업추체소 발행 잠실리소개

이에 따라 총독부는 1915년 3월 일본 잠종 제조업자들로 하여금 잠종 제조업을 경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잠실리 지역의 토지전체를 분할하여 대여함으로써 향후 이 지역을 조선에 모범적인 잠종제조업의 집단지역으로 조성할 것을 꾀하였다. (참조: 조선총독부 경기도 잠업취체소 잠원지리지, 1929)

1917년 6월에 이르러 잠실리 지역 토지 관리와 잠종제조업자의 감독지도에 대한 사항은 모두 경기도로 이관하게 되었다. 이 사례는 일제가 당시 우량잠종의 원활한 공급을 추진하여 조속한 시간 내에 우수 잠종 제조업자 증가를 얼마나 간절히 추구하려 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사례가 된다.

이후 우량 잠종은 해마다 원만하게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점차 흐르고 잠종에 대한 수요 또한 크게 증가했으나 조선에서 생산하는 잠종은 그 제조 수량의 격증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황에서는 잠종 수요에 따른 공급량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1917년에는 잠종 수요의 약 30% 가량을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형편이었다.

특히 1917년에는 권업모범장 원잠종제조소가 육성한 신품종이 장려품종으로 추가되어 다음 해인 1918년부터 그 보급이 장려되게 되었는데, 이 잠종은 조선에서 자체육성된 것으로서 이들이 보급되면서 신품종 잠종이 부족할 경우 증산일로의 조선잠업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하게 되었다. 그래서 민간의 잠종 제조를 더욱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우량한 잠종을 충분하게 공급할 필요가 절실하였다.



개량잠종 배포 위해 재래잠종 소각

잠종 제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반면에 이에 따른 일반 잠종 조제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량한 잠종의 공급은 일정한 조건 없이는 어려운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1915년 12월에 모인 도(道) 농업기술관 회동에서는 조제잠종의 단속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

잠종의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일본에서 조제잠종이 수입되는 일이 적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각지에 있어서 잠종조제의 정세가 나타나서 우량종의 고치도 그 품질이 퇴화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일본 시장에서는 조선에서 생산한 고치의 가치를 저하시킬 우려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전에도 국내에서의 잠종제조에 대한 단속은 각도에서 오래전부터 관심을 보여 왔다. 경상북도에서는 1913년 3월에 잠종 단속규정을 공포하여 이것을 실시해 왔고 이어서 잠업취체소(蠶業取縮所)를 특설하였으며 평안남도에도 있어서도 1915년 5월 잠종 단속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잠종 제조를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었다. 또 전라북도에서도 같은 해에 단속규정을 제정하였다.

그밖에 법령을 내세우며 단속규정을 제정하기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각 도마다 관내의 잠업기관을 동원하여 조제잠종을 제조하여 대체해 오기는 하였지만 전국에 일관된 잠종제조 시설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잠종제조 단속과 더불어 민간에서도 잠종제조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조선잠업령'을 1919년 4월 24일 법으로 제정하고 공포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며 동시에 '동령 시행규칙'과 '동령 사무취급규정(事務取扱規程)', '동령 시행심득(施行心得)'을 공포하였고 이어서 동령 시행 수속에 관한 통첩도 시달 하였다.

이 조선잠업령의 내용에는 누에 병 및 뽕나무 병충해 예방과 잠종의 제조단속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령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 도 원잠종제조소와 잠업취체소 설치에 관한 부령(府令)을 공포하여 조선잠업령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조선총독부 잠업기술관 회의 (1919)

#### 나. 애누에 공동치기 시설의 설치

한·일 합방을 전후한 조선의 양잠기술은 잠업전습소(蠶業傳習所)를 중심으로 하여 발전되었고 애누에 사육을 일부 지방에서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지만 총독의 훈시를 통하여 애누에 공동사육을 더욱 강력하게 권장하였으며 애누에 공동사육은 양잠사육 상황에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양잠기술을 간편하고 빠르게 습득하는 빠른 방법이라 여기게 된 것이다.

애누에공동사육소의 설치 및 운영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졌고 종래의 양잠지역과 그밖에 장차 주요 양잠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예상지역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동시에 부녀자에 대한 양잠장려 추진에 대하여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대한 사례를 보면 경기도에서는 1912년 3월에 잠업조합원 모두가 양잠업의 개량 발달을 도모하고 그 이익을 증진하며 또 그 일부를 축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잠업조합(蠶業組合)준칙을 정하고 잠업조합 설립을 권장하도록 관내의 부윤(府尹), 군수(郡守)에게 훈령을 전하는 동시에 잠업방조규정(蠶業幫助規程)과 수산사업방조규정(授産事業幫助規程)을 공포하였다.

또 미리 수산장(授産場)을 설치하여 양잠을 실시하는 일반에게 모범을 보여 주었던 간이잠실의 실용성이 점차 일반에게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1913년에는 간이잠실의 설치를 장려하여 보조금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함으로써 양잠업의 발달을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이 진행되었다.

1916년도 농업기술관 회동에서 자문형식의 답신서를 통해서 개량잠구 장려의 내용을 살펴보면 각도가 동일하게 개량잠구는 되도록 농민이 자체 제작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농한기를 이용하는 개량잠구 제조 전습회의 개최를 적극 권장하였는데 이것은 주로 부군(府郡)으로 하여금 실행하도록 하였다.

경우에 따라서 잠구제조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또는 잠업전습소, 애누에 공동사육소 등의 직원이 순회하여 잠구제조 방법에 대한 지도를 담당하게 함으로서 농민이 직접 잠구를 제조할 것을 권장하였다.

잠업전습소의 수료생에 대하여 수업 중에 제작한 잠구를 다시 학생들에게 할당하여 배분하기도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모범농민의 품평회 상품으로 잠구를 수상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잠구를 보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잠구의 공동구입을 알선하고 이 대금은 고치 공동판매 대금 중에서 미리 적립해 두었던 자금으로 잠구구입 대금을 충당하거나,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개량잠구의 사용을 보급함으로써 육잠(育蠶)상의 개량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국내적 상황과는 별도로 1914~1918년의 제1차 세계대전은 조선의 잠사업계에 뜻하지 않은 행운을 가져오게 되었다. 바로 그 상황은 세계적으로 고치의 값이 크게 상승하여 수요가 급증하게 됨에 따라 여러 가지 양잠시설을 원활하게 증설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 다. 뽕밭의 개량 증식

우량 뽕나무의 보급과 뽕나무의 개량 증식은 일제의 식민지 잠업생산에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일로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뽕나무 장려품종 4종을 지정하여 이들을 되도록 많은 양을 무상배부를 통해 뽕나무 재배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도록 하였으며 해마다 다량의 상묘를 무상배부하면서 동시에 보조금까지 지원해 가면서까지 뽕밭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뽕밭증식의 정도는 급성장하고 있는 양잠에 비하면 당시로서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1915년 12월에 개최된 각도 농업기술관 회동의 자문사항 답신서에 따라서 각도에서 뽕밭증식에 대하여 실시한 시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뽕나무 장려품종 장려에 따른 뽕밭개량 활동

- ① 상묘의 육성은 양잠농가 자신의 상묘육성 장려, 잠종 제조업자에 대한 상묘포 경영 권장, 상묘 육성에 관한 전습회의 개최, 잠업전습소 수료생을 지도하여 소규모 상묘포를 경영하도록 하고 또 동계(洞契)나 업자에게 상묘의 육성을 권장하게 하며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종자대금과 비료대금을 보조하기도 하였다.
- ② 상묘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배부하는 한편 이와 함께 상묘 대금을 보조하고 상묘에 대한 공동구입을 권장하였다. 이에 따라 공동구입을 알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까지 지급하거나 또는 현품을 보조하였다.
- ③ 상묘의 식재에 있어서도 전문지도원을 배치하여 식재방법, 식재장소, 정지방법, 비배관리 등을 지도하고 뽕밭 품평회를 개최하여 양잠의 기술과 경영의 향상을 꾀하였으며, 모범 뽕밭의 설치를 권장하면서 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지방에 따라서 낮추베기 뽕밭의 설치를 권장하며 한편으로 교목(喬木) 뽕밭을 권하기도 하였고, 애누에 공동사육 시설에 부속 뽕밭을 설치하는 경우 보조하고 또는 공한지를 이용한 뽕나무의 식재를 권장하여 이에 대하여 비료대금을 보조하거나 또는 일정 분량의 우량 잠종 배부를 보조하기도 하였다.

#### 라. 누에고치 생산 수건(收繭)에 따른 건건(乾繭)처리

누에사육이 원만해도 양잠의 성과를 최종 결정짓는 것은 고치의 품질 문제다.



이는 누에고치 생산과 수견(收繭) 이후 살용(殺蛹), 건건(乾繭)에 관한 처리와 시장에 대한 처리 등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판매에 유리한 조건을 취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살용과 건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당시의 양잠농가는 자가(自家) 생산된 고치를 자급자족의 용도로만 생산해 왔기 때문에 조사기(繰絲器)가 매우 원시적일 뿐만 아니라 주로 손으로 일일이 조사(繰絲)하는 자가용 자견기(煮繭機)에서 사용할 양에 해당하는 명주실만을 생산하는 정도였다.

누에고치의 시장 판매를 위한 살용(殺蛹), 건건(乾繭)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고치의 매매와 시장형성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도래했으나 일반 농가에서는 누에고치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따라서 생산한 누에고치의 적절한 살용시기를 지키지 않아서 수확한 고치에서 구더기나 나방이 나오게 되는 경우와 또는 건건을 잘못하여 고치의 질이 저하되어 판매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하여 불리한 가격이 적용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1913년 각도에 통첩하여 살용·건건 시설에 대한 설비를 확장하는 동시에 구견(購繭)업자에게도 설비를 충실히 하거나 보완하도록 하였다.

1916년에는 통첩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내용을 지적하며 건건법의 개량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

- ① 건건설비는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당분간 고치 공동판매지에 집중하여 설치토록 할 것.
- ② 건건장에는 그 건설비를 되도록 지방의 예산에서 수견비(收繭費)를 보조하여 양잠 농가들로 조직하는 단체의 사업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도의 설비로 하여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보급하도록 할 것.
- ③ 건건기의 보관과 조작방법에 대하여 잘 지도하고 그 효과를 높이도록 할 것.
- ④ 건건 설비는 봄누에 고치의 출하기까지 시설을 완성하여 이용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⑤ 건건기의 사용에 대해서 강습·강화는 물론 그 조작 방법을 실제로 가르침으로써 되도록 건건에 관한 지식을 보급토록 할 것.
- ⑥ 건건시기에 각도는 되도록 각지의 건건 작업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잘 함으로써 건건이 고르게 되도록 할 것.

이에 따른 결과 각 도는 다 같이 건건 설비에 노력을 추진하게 되어 애누에 공동사육장

에 간이 건건기를 설치하는 것 외에 고치매매 집하 장소에 건건장을 설치하거나 또는 양잠조합에 보조금을 주어 설치하기도 하는 등 건건의 보급과 확산에 노력하였다.

그 결과 고치 구매자 중에도 건건설비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1917년 6월 현재 관청과 조합 등이 설치한 것이 1,546개, 고치 구매자가 설치한 것이 438개로 합계 1,984개에 달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결과로 1일의 건건량은 약 220M/T(7,220석) 규모가 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전반적으로 건건 설비가 빈약한 지방이 많았고 그 구조도 조잡한 것이 문제였다. 가열하는 소재 열원(熱源)은 대개 숯불로 직접 열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며 기술적인 미숙함으로 건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한 가운데 1918년부터 제사공장이 건립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건건시설도 크게 개선되고 발달하면서 대량건건이 가능해지게 됨에 따라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추진해온 건건 시설의 개량은 우수한 고치를 구입하여 질 좋은 생사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으로 볼 수 있겠으나, 조선의 건건이나 질 높은 생사를 헐값으로 구입해서 일본으로 반입하기 위함이고 그들만의 생사 생산 확대에 이용만 하려는 목적수행을 바탕으로 두고 있었다.

#### 마. 잠사업 장려에 따른 성과

일제는 잠사업 부문에 비교적 많은 투자와 여러 시책들을 적극적이고도 강력하게 투입함으로써 조선잠업의 획기적인 기술개량과 생산력이 급증하는 성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개량 부문을 살펴보면 중앙과 각 지방에 연구기관 및 교육학습기관이 설치되고 강습행사 등 기술교육이 대대적으로 개최되는 등 기술개발 기반에 비교적 많은 국고 및 지방비 재정 투입과 동시에 민간에서도 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기술 부문에서 많은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기술개량 측면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상묘분야에 있어서 잠업의 근대화 과정 이전에 조선의 뽕나무는 주로 야생과 산식(散植) 뽕밭이 대부분이고 뽕나무 품종 역시 재래종이며 품종이 다양하고 엽질(葉質)의 상태가 좋지 못하였다.



뽕밭 개량활동

그러나 전개과정에서 순(純)뽕밭의 면적이 늘어나고 뽕 품종도 일본이나 청나라에서 엽질이 좋은 신품종을 수입하게 됨에 따라 애누에용과 큰 누에 뽕, 조생(早生), 중생(中生), 만생(晩生) 뽕이 세분화되어 보급되기 시작했다.

뽕을 심는 것부터 재배에 이르기까지 재배기술이 개량되어 뽕의 엽질이 좋아지고 비배 관리와 병충해 예방기술이 보급됨에 따라 수확량이 늘어나는 등 획기적인 발전이 도래하게 되었다.

잠종 분야에 있어서 조선의 잠종은 삼면잠(三眠蠶)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으나 약 20년의 기간 동안 잠종에 관한 기술개량을 통하여 삼면잠이 사면잠으로 교체되고, 농가 자가복제 잠종은 잠종제조 기관이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업체에서 본격적인 생산과 보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병독검사가 이루어지면서 관청에서 장려품종을 지정하는 한편 계절에 맞는 품종과 춘·하·추 잠종 처리를 달리하는 등 획기적인 품종관리 기술이 적용되면서 혁신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잠종생산과 보급기술의 발달은 잠사업 근대화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일제는 잠품종 육성과 관리에 관한 법령 제정과 시험연구기관 등 기반 구축에 주력하였다.

누에 사육 분야에 있어서도 애누에 공동사육소 설치와 사육기술을 개선하고 잠실, 잠구의 개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강연과 강습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제사 분야는 1919년 당시 서울, 대구, 전주 등지에 7개의 제사공장이 신설되고 기계제사 조사기 부수가 대폭 증가하여 960대나 되어 제사기술과 생사 품질이 크게 향상을 이룩하게 되었다. (『대구섬유산업사』, p.129. 섬유기술진흥원, 1990)



좌수좌조기에 의한 제사작업

잠사업 모든 분야에서 기술혁신이 이루어졌다고 하나 평준화되지 못한 일부분야도 있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첫째로 잠사업은 식물, 동물, 공업 등 다양한 분야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어

느 한 분야에 대한 기술개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반적인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구조적 문제점이 상존한다.

이들 모든 분야가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기에 당시 상황으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산업체계 완성까지는 요원했던 것이다.

둘째는 생산력의 증강으로서 잠사업의 기술혁신의 결과는 곧 생산력과 생산량에 따라 그 결과가 나타나며 식민지 산업정책의 총 결산 또한 잠사류 생산량의 결과로 대변된다.

1908년과 1919년을 대비하여 볼 때 양잠호수는 5.6배, 뽕밭면적은 37.9배, 누에고치 생산량은 10.9배로 11년 만에 빠르게 잠견의 생산량이 급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제2기 (1920~1929)

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진 불황기였지만 조선의 잠업기반은 점차 확립되어가는 기간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는 1920년 조선잠사회 창립, 1925년 조선제사협회 창립, 1927년 조선농회 창립, 1928년에는 잠종제조업 조합중앙회가 창립됨으로써 잠사업 관련업 종별로 그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고루 등장하게 되었다.

1920년대 잠업장려 시책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산견 100만석 증산계획’이 1925년부터 1939년까지 15년 동안 장기적인 계획기간을 설정하고 양잠농가는 당시 40만호에서 100만호까지 확대하며, 상모는 총4억 주를 식상하는 등 목표년도까지 산견 100만석 달성이라는 원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내용을 포함하여 당시의 잠업시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견 4만석 돌파기념(전남, 1928)

## 누에고치 100만석 증산계획에 따른 시책

### 가. 잠종에 대한 시책

1920년 6월 조선잠업령의 일부를 개정하고 1921년 5월에는 각도지사에게 통첩하여 각도 원잠종제조소에서 더욱 우량한 잠종생산을 독려하는 동시에 잠종의 질이 나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1921년 6월에는 원잠종 배부규정을 공포(1927년 6월, 1931년 4월 등에 개정)하여 권업모범장으로부터의 유상 또는 보상에 의한 원잠종의 배부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장려품종의 보급과 잠종의 우량성 유지에 노력하도록 하였다.



안동군 농회 잠종안내서(1926년)

한편 당시 민간의 잠종 제조기술은 아직 매우 낮은 수준이었을 뿐만 아니라 설비 또한 매우 불완전하고 일부 잠종 제조업체 가운데에는 부정한 수법으로 잠종을 제조하는 사례도 있어 양잠농가들은 조선의 잠종보다 일본산 잠종을 선호하는 가운데 조선에서 생산한 잠종은 해마다 남아도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잠종을 수입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1924년 9월 총독부는 각 도지사에게 통첩하여 우량잠종을 생산하여 조선산 잠종으로 국내 수요를 충당하도록 독려하였다.

그리고 1924년의 각도 잠업주임기술관타합회의 협정에 따라서 각도는 동일하게 잠종 제조업조합의 설립을 장려하고 이들은 도를 구역으로 잠종 동업조합(同業組合)으로 조직하여 가능하면 모든 잠종의 수급은 이 조합을 거쳐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해마다 가을에는 잠종의 품평회를 개최하고 우량잠종 생산자를 선발하여 표창하였다.

잠종제조업자가 생산한 잠종은 조선잠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일제초기 보급용인 교잠종은 일선(郡) 농산기관이나 업자의 개인적인 자유판매에 의해서 공급되었으나 농가까지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에서는 1910년경부터 도 주관으로 잠종판매 알선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다른 도에서도 뒤이어 판매방법이 바뀌고 1927년 조선농회가 발족하게 되면서 군 농회 주관으로 잠종제조업자와 양잠농가 사이에서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잠종의 알선업무에 있어서 정상적인 유통 및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잠업취체소에서 조사한 잠종의 병독비율을 참작하여 잠종의 우열을 정함으로서 잠종의 품질향상을 이룩하게 되어 1928년에는 조선잠종제조업 조합중앙회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같은 잠종제조업의 발전과 상황은 지방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1929년부터는 잠종의 각 도간 조정을 실시하여 우량잠종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부터의 잠종의 수입을 엄격히 통제하게 되었다. 당시 잠종의 수입은 국내에서 생산한 잠종수급에 적지 않은 혼란을 가져와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 나. 상묘의 생산시책

조선시대 상묘는 대부분 자연 실생묘를 이용하였으나 일제가 중점을 두고 추진한 뽕나무 품종의 개량과 뽕밭면적이 확장됨에 따라 1918년부터는 권업모범장에서 상묘 무상배부제도를 폐지하고 1919년부터 유상으로 상묘를 판매하는 것으로 전환하다가 1920년부터는 무상배부를 전면 폐지하는 한편 상묘는 농가에서 직접생산하거나 상묘생산업자가 생산하여 판매하도록 하였다.

상묘의 업자생산 체제로 전환되면서 기관에서 상묘를 알선하여 판매토록 하였으나 1920년대에는 도 단위로 상묘조합이 결성되어 우량상묘생산과 수급, 생산량의 조절과 통제를 하게 되었으며 조선 잠업령의 규정에 따라 상묘생산업자의 신고제를 비롯하여 병충해 있는 상묘는 판매금지 등 조합의 자체 검사제도가 도입되었다.

상묘는 각도 당국에서 생산량을 지정, 판매토록 함으로써 상묘수급에 원활을 꾀하였으며 상묘가격은 조합장이 결정하고 시행하였다.

상묘의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그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1929년에 있어서는 전국의 수요가 4,187만주인데 비하여 그 생산 상묘수는 4,944만 주에 이르러 약 760만주가 남게 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강원도 양구군(楊口郡)의 조돈암, 조돈익(趙敦岩,趙敦翼) 형제가 '양구식 접목법(楊口式 接木法)'이라는 독특한 접목법을 고안하였고, 이를 각 도에 보급하였다. 양구식 상묘접목법은 광복 후에까지도 이어졌으며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일부 지방에서 활용되었다.

#### 다. 건건장의 설치와 제사업의 발족

1927년부터 실시해 오던 건건장 설치에 대한 보조사업은 조선농회(農會)가 주동이 되어 일정한 조건으로 건건장을 건설하도록 하여 보조하였다. 그리고 이 기간에 있어서 주목할 일은 제사업의 본격적인 발족이다.

19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제사공장의 설립은 1919년에는 9개소였고 생사 생산량은 약 60M/T이었다. 이후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여 1932년에는 잠



황해도 해주 농회 건건장(1934)

업계가 불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수는 58개, 생사 생산량은 약 544M/T 으로 큰 폭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라. 고치 100만석 증수 계획

이 계획은 1925년부터 1939년까지 15년간을 계획 기간으로 일제의 잠업장려 시책 중 가장 중요한 증산계획이다. 이 계획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계획 당시인 1923년의 한국의 고치생산량은 약 6천여M/T(20만석), 양잠호수 40만호, 뽕밭면적 약 3만ha로 이것을 일본과 비교하여 보면 산견량은 1/35, 양잠호수는 1/7, 뽕밭면적은 실로 1/100에 지나지 않는 상황이어서 일제는 조선에서 잠업이 발전할 가능성이 풍부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는 동시에

- ① 농가경제의 향상을 꾀하고
- ② 일제의 수출무역에 도움을 주며
- ③ 한국의 자연적, 인적 요소를 적당히 이용할 수 있다는 것 등

일본은 처음부터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한 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의 식민지 누에고치에 대한 수탈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 계획은 기간 중에

- ㉠ 양잠호수를 100만호에 이르게 하고,
- ㉡ 잠종의 소잠량을 봄누에씨 200만장, 여름·가을누에씨 100만장(양잠농가 1호당 봄누에씨 2장, 여름·가을누에씨 1장) 계 300만장으로 하며,
- ㉢ 뽕나무 4억 주를 식재하여 뽕밭면적을 10만ha(양잠농가 1호당 10a)로 증가하고,
- ㉣ 양잠농가 1호당 산견량 봄누에 때 26.4kg(8.4되), 여름·가을누에 때 12.6kg(4되) 계 39kg(12.4되)로 하여, 목표년도인 1939년에는 100만석(약 31,000M/T)의 고치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치 100만석 증수 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총독부는

- ㉠ 뽕밭의 증식을 장려하고 상묘구입 대금을 보조하며,
- ㉡ 식상 전임 도기수(道技手) 1인과 잠업 일반에 관한 도기사(道技師)를 증가 배치하는 동시에,
- ㉢ 총독부에는 잠업계 직원을 증원하고 또 이들 잠업기술 요원의 여비를 증액함으로써

계획의 완수에 모든 노력을 기하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고치증산 계획실천과 목표달성을 위하여 1925년 3월에는 각도 지사에게 상묘생산의 촉구를 지도하도록 통첩하였고 같은 해 4월에는 식상 계획의 완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통첩하였다.

- ㉠ 식상 계획은 착실하게 또 점진적으로 견고한 기반 위에 세움으로써 견실한 잠업의 발달을 기할 것.
- ㉡ 식상 구역은 되도록 해마다 한 지방씩 일정한 구역을 한정하는 것과 같은 방법에 의해서 기술원 또는 지도원으로 하여금 농후한 지도 장려를 하게 할 것.
- ㉢ 식상지의 선정은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부터 우선 착수하고 점차 경험이 적은 지방에 미치도록 할 것.
- ㉣ 소요 상묘는 되도록 근처에서 생산하도록 장려하고 일본산 상묘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을 것.
- ㉤ 상묘의 종류에 따라서 전항의 실행이 어려울 경우 미리 수목공급의 준비를 통하여 목적하는 종류의 상묘를 얻도록 노력할 것.
- ㉥ 뽕나무는 적지에 적종을 식재 케 할 것.
- ㉦ 상묘는 가식과 포장을 잘 조성하고 땅을 파서 심을 때까지의 일수를 되도록 짧게 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
- ㉧ 밑거름을 적극 장려하고 다른 시비도 되도록 많이 하도록 할 것.
- ㉨ 비료는 되도록 풋거름이나 퇴비 등 자급 비료를 많이 주도록 할 것 등

식상 장려에 대하여 세밀하게 지시를 한 동시에 같은 해 6월에는 식상 장려 보조규정을 정하면서 까지 위의 사항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산간 부락에 있어서는 산뽕의 수요가 격증하게 되어 이것을 이용하는 데에도 편의를 제공하도록 조치하였다.



간이잠실 설치를 위한 공동작업(경기 연천)

고치 100만석 증수 계획이 마무리 된 1939년의 실적과 추진 성과를 종합해보면

- ㉠ 소잠량은 목표년도(1939)의 실적이 1,056,647장으로 계획 당시에 비해서 약 52%가 성장했고 계획했던 목표량 대비 35%에 지나지 않았다.

- ㉠ 산전량의 목표년도에 있어서 실적은 20,568.8M/T(685천석)으로 계획 당시에 비해서 는 약 2.3배 증산을 하였지만 목표량에 대해서는 겨우 57%에 해당하는 실적밖에 거 두지 못했다.
- ㉡ 양잠농가 호수는 823,412호로 계획 당시보다 약 1.7배 증가하였지만 목표에 비하면 82%를 달성에 그치고 있다.
- ㉢ 뽕밭면적은 82,034.8ha로 계획 당시보다는 약 2.1배 증가하였지만 목표에 대해서 역 시 82%밖에 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살펴보면 이 계획은 기존에 목표한 실적에 크게 미달하는 부진한 결 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1930년을 전후한 세계 경제공황의 영향으로 생사의 시세가 폭락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식량 보조금이 삭감되는 등 잠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대책이 제대로 뒤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획의 결과는 미흡했지만 잠사업의 기반을 확장하 고 그 생산량이 증가하여 잠사업의 위상을 높이는 것에는 상 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잠업시험소 총독순시(수원, 1929)

이 기간(1920년대)을 개괄하여 보면 일제가 잠사업을 중요한 농업정책의 하나로 책정하여 적극적인 개발목표를 세우고 그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총 력을 기울여 정책을 전개한 시기라 하겠다.

### 3. 제3기 (1930 ~ 1939)

이 시기는 일제가 마침내 대륙침략 야욕에 따라 본격적으로 전쟁을 실천에 옮기기 시 작한 기간이며, 이어서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하는 등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로 요약된다.

일본은 1931년에는 만주선 폭파로 만주사변을 일으켜 대륙침략의 구실로 삼았고 이를 확대해 나가며 1937년에는 전쟁을 중일전쟁으로 확대 시켰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1939 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 도발에 참여하게 됨으로서 전 세계가 전란 속에 휩쓸리면서 일 본의 모든 정책은 전시(戰時)상황 체제로 돌입하게 되는 시기이다.

경제 또한 1930년을 전후한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1930년대 초반에 붙어 닳친 농업공황은 일본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주게 되면서 농촌경제가 파멸의 직전에까지 몰리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적인 상황변화에서 조선 또한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특히 일본의 영향을 받아 조선농업의 전반적인 상황도 침체상태에 빠졌고 잠사업도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특히 일제는 전쟁도발의 주도국가로서 통제적 정책은 점 차 강화되면서 잠사업 또한 점점 더 전시 체제의 산업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1910년 이후 섬유업계를 위협하던 인견사의 생산량 급증에 따라 상대 적으로 잠사업 전반이 위축되면서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 당시에 진행된 잠사업에 관 한 시책 중 주요한 것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고치 100만석 증산계획 추진과정에서 잠업정책의 변화

1925년도에 시작된 이 증산계획은 이 기간의 마지막인 1939년까지 잠사업의 가장 중점 적인 사업으로 계속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 기간에는 이미 극심한 농업불황으로 잠사업에 있어서도 고치 값이 폭락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또 전쟁의 영향으로 재정적인 지원도 점차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931년 6월에는 평부잠종 모아(母蛾) 검사 및 일본에서 수입하는 잠종에 대한 단속방안으로 '잠종취급규정'을 제정 시행하기도 하였다.

일제는 원래 세웠던 잠업증산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려 노력했지만 1932년 이후 식량 장려보조금은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었다.

1934년 11월에는 지정 이외의 잠종은 원칙적으로 수입을 금지하면서 이에 비례하여 국 내생산 잠종의 품질 향상을 기하도록 하였다.

각도에서도 독자적인 증산계획을 수립하여 증산에 박차를 가했는데 그 한 가지 방법으 로 경상남도에서는 잠종업자가 스스로 자작(自作) 뽕밭 창정계획(創定計劃)을 세워서 실천하기도 하였다.

경상남도에서 1934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실시한 것인데 새로 양잠을 시작하려는 농가 중 밭이 없는 소농에 대하여 신규로 자작(自作) 10a을 표준으로 해서 뽕밭조성비를 보 조하여 자작농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그 자격은 농가 갱생부락에서 갱생계획 수립중인 20~30세 전후의 소작농 또는 자작 겸 소작농으로 10a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자

이다. 토지는 군 농회의 알선으로 동양척식주식회사로부터 용자를 받고 연간 균등하게 상환하도록 하였다.

1935년에는 기계 제사공장이 70개소에 이르자 총독부는 1935년 8월에 ‘조선제사업령’을 공포, 11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제사업은 면허제로 변경되면서 제사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총독은 제사업자에 대하여 통제 상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고 총독의 명령이나 행정조치에 위반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 조선제사업령(朝鮮製絲業令)의 공포와 견사질검사소(繭絲質檢査所)의 설치 :

일반 잠사업계는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기계 제사공장은 해마다 증가하여 1935년에는 70개소에 이르고 그 생산량은 약 1,200%으로 이것을 전부 수출하였고 또 좌조족잡기(座足踏器)로 조사하는 제사호수도 약 36만호나 되어 그 생산량도 약 675%에 이르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 제사업의 통제와 지도 감독을 하므로서 우량한 생산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1935년 8월 조선제사업령을 공포하고 11월부터 실시하게 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9월에는 제사업자가 기부한 자금을 가지고 총독부 농사시험장 내에 견사질검사소(繭絲質檢査所: 現蠶業試驗場蠶絲科)를 설치하게 되었다.

#### 나. 양잠 소작제도 시행

양잠소작 제도는 양잠의 불황에 대처하는 한 가지 수단으로 각도 또는 제사업자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이용된 것인데 당시 일본에서 운영되던 특양조합과 그 형태가 유사하며 광복 후 우리나라가 고치의 증산계획을 추진할 때에 설정하였던 특설지구와 비슷한 제도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지역인 경기도나 충청북도에 있어서는 ‘양잠 모범지구’라고 불렀는데 경기도의 예를 보면 이미 1919년경부터 장려하여 주로 양잠에 이해가 있는 지주로 하여금 이것을 실시토록 하였다.

그러던 것이 1930~1931년에 고치 값 폭락에 따라서 채산이 맞지 않게 되어 점차 이 제도



양잠소작제도 시행에 따른 뽕밭 조성

가 쇠퇴하면서 고치의 생산량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게 되었다.

이에 도(道) 당국은 이 제도를 변형하여 지주(地主) 대신 제사회사로 하여금 이 제도를 설정케 한 것이다.

양잠 소작제도 시행에 있어서 제사회사의 입장을 고려하여 양잠소작지는 한 하구(荷口)의 생사를 봄누에 1기의 고치로 생산할 수 있도록 1단지를 20ha로 하여 회사와 양잠농가 사이에 계약을 맺도록 하고 뽕밭의 비배관리는 물론 애누에부터 상족에 이르기까지 집중적으로 지도함으로써 고치의 품질을 고르게 하는 동시에 양잠경영의 모델이 되게 하였다.

제사회사가 양잠농가와 체결하는 소작조건은 다음과 같다.

- ㉠ 뽕나무를 식재한 뒤 2년간은 소작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단 2년째에는 가을누에를 사육하되 전액을 양잠농가의 소득으로 한다. 3년째부터 고치의 각 등급 마다 그 수결량의 절반을 소작료로 제사회사에 분납한다.
- ㉡ 양잠농가는 자기의 소득에 속하는 고치라도 이것을 전부 그 군의 공동판매소를 통하여 제사업자에게 판매한다.
- ㉢ 양잠농가는 소작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비배 관리를 한다.

이 제도는 각 도마다 주로 정해진 특정의 일본 제사회사로 하여금 설정케 하였다. 즉 경기도에서는 편창제사(片倉製絲), 중방(鍾紡), 조선제사(朝鮮製絲) 충청북도에 있어서는 군시제사(郡是製絲), 황해도에 있어서는 동양제사(東洋製絲), 함경남도에 있어서는 편창제사(片倉製絲) 등이 대상회사로 지정이 되었다.

이 제도는 고치의 감산을 우려한 일제가 그들의 자본이 투입된 제사회사의 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한 가지 수단으로 이용한 제도라고 볼 수 있으며, 생산자인 양잠농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한 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 다. 잠사류 생산

양잠농가 호수(춘잠기준)는 1910년대 이후 계속 늘어나 1939년에는 823천호가 되었으며 뽕밭면적 또한 계속 늘어나 1939년에 약 8만2천ha로 놀라운 증가를 보이고 있다.



1934년 지역별 고치와 생사생산액



누에고치 판매 재래시장

상묘생산 분야에서 접목묘(뽕밭식재 묘목) 생산수량이 1918년 63백만 주로 가장 많고 1930년대에는 2천만 내지 5천만 주 내외이며 소잠량은 1930년 100만장을 돌파하였으며, 고치생산량은 1934년에 22,991M/T(1910년 442M/T 대비 52배)로 절정에 달했고 생사 생산량은 1941년에 2,166M/T(1912년 66M/T의 33배)으로 생산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당시 이 기간의 잠사업 추진상황을 개관하면 일제는 전란의 중심으로 뛰어들었고 농업은 극도의 불황을 만나게 되었지만 잠사업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증산계획이 계속 추진되어 양잠의 기반은 오히려 확충되고 생산량은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이것은 잠사업이 평화적인 시기에는 일본의 외화 획득원의 목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나, 전쟁 중에는 중요한 전쟁물자로 취급하면서 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증가하게 되는 기현상이다. 특히 이 기간에는 잠사업 중에서 가장 기업적 효과가 높은 제사업에 대하여 많은 일본 자본이 투입됨으로서 잠사업에 대한 일제의 수탈은 더욱더 본격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제의 침략기 내내 잠사의 모든 분야가 수량적으로는 비약적인 기록을 남기게 된 결과로 비록 증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그만큼의 당시 수익이나 혜택에 따른 실속은 모두 일본이 챙겼고 전쟁의 발발 이후에는 전략물자 공급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이었다.

#### 4. 제4기 (1940~1945)

이 기간은 1940년부터 일제가 패망하여 식민지 지배가 종식되는 시점이다.

1939년 '전시총동원령'을 칙령(勅令)으로 공포한 일본은 이 동원령을 근거로 사람은 물론 개인의 토지, 자본 모든 물자는 동원령에 근거하여 공출(供出)이 시작되고 물가는 공정 가격제도를 도입하면서 통제하는 등 전쟁을 이유로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은 제약되고 박탈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1941년 12월에는 일제는 마침내 태평양전쟁을 일으켜서 완전히 전시체제로 바뀌었고 모든 산업이 전쟁 수행이라는 한 가지 목적달성만을 위하여 강력한 전시통제 상황으로 돌입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잠사업계가 일본 식민지 정책에 동원된 사례로는 조선잠

사회의 주관에 따라 추진한 사항으로 전쟁에 사용될 비행기 헌납을 위해 앞장서 누에고치를 모금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 가. 누에고치 50만석 급속 증산계획

1939년에 끝난 고치 100만석 증수 계획은 성과가 미흡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40년을 기점으로 1945년까지 고치 50만석 급속증산이라는 별도의 추가적인 증산계획을 수립하였다. 이것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당시의 일제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면화와 양모 등 섬유자원의 부족에 따라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생사류의 증산으로 대체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생사류는 군수물자로도 중요물품으로 평화산업인 잠사업이 소위 전시에 따른 산업물자공급 또는 시국관련 산업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이 계획은 6개년 동안에 고치의 생산량을 1940년의 약 22,000M/T(70만석)인 현 수준에서 약 16,000M/T(50만석)의 누에고치를 추가로 더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43년까지의 4개년 간에 50,000ha의 뽕밭을 추가 조성하여 1940년 당시의 뽕밭 약 80,000ha 보다 60% 정도를 더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쟁이 심화 될수록 점점 더 모든 형편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계획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고 오히려 감산으로 상황이 바뀌면서 종전(終戰) 직전인 1944년에는 고치의 생산량이 약 14,000M/T으로 급속하게 감산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말았다.

#### 나. 잠사업의 통제

일제는 모든 산업을 전시체제로 개편하고 강력한 통제를 하게 됨에 따라 잠사업도 강력한 통제가 시행되었다.

태평양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인 1941년 8월에는 총독의 인가를 받아서 1941년 12월 8일에는 관제회사인 '조선잠사주식회사(朝鮮蠶絲株式會社)'가 설립되었다. 이어서 다음 해인 1942년 3월에는 '조선잠사업통제령(朝鮮蠶絲業統制令)'을 공포하고 이 법령에 따라서 조선잠사주식회사를 '조선잠사통제회사'로 개편 설립하여 잠사업 전체를 완전한 통제체제로 전환 시켰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종래 협정제도로 결정하던 고치 가격을 일제가 통제하는 공정가격 제도로 전환하고 고치의 판매는 소위 공출(供出)제도로 바꾸어 놓게 된 것이다.



조선의 잠사업통제

공출제도는 당국이 양잠농가에게 일정한 양의 고치를 할당하여 판매를 강제적으로 시행한 제도인데 항상 누에고치 생산 할당량이 과중하여 양잠농가에서는 할당된 공출량을 달성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됨에 따라 부담이 더욱더 많아지게 된 것이다.

이 제도는 해마다 생산량이 줄어가는 고치를 전량 강제수매를 통해서 제사공장의 원료로 확보하기 위해 생사의 생산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것으로 일제가 식민지 통치 말기에 농산물 전체에 대해서 시행한 가장 악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강제공출의 영향은 광복 후에까지 남아서 양잠농가들은 뽕나무를 보기만 하여도 몸서리가 난다고 캐어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음을 보아도 일제의 공출제도가 얼마나 농민을 괴롭혔는지 짐작이 가능하다.

#### 다. 야잠(野蠶)의 장려

일제는 섬유자원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 기간 중에 야잠 특히 열대성인 피마잠(蓖麻蠶) 생산관련 연구를 병행하였다. 이 피마잠을 단섬유로 가공하여 방적원료로 이용할 수 있고 그 사료인 피마(아주까리)의 열매에서 짜내는 기름은 비행기의 윤활유로 사용이 가능하여 전쟁물자로도 매우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시험연구에 박차를 가했지만 기대할 만한 성과는 별로 얻지는 못했다.

결론적으로 이 기간을 돌이켜보면 일제가 전쟁에서 패망을 눈앞에 두고 오직 그들만의 전쟁승리만의 목표를 향하여 모든 산업을 강력히 통제하며 누에고치 생산의 증강만을 요구하면서 강력한 통제 수단을 강구하며 몰아붙였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잠견의 생산량은 점점 더 감소하여 잠업이 위축되는 기간이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일본은 조선의 강점이후 지난 36년 동안 잠사업의 개선을 통한 발전과 비약적인 양적증가로 인한 조선의 잠업을 근대화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조선인에게 돌아온 것은 낮은 인건비와 저가로 판매된 고치가격 등을 고려한다면 분명한 것은 강제적인 수탈만을 강구하고 이익은 고스란히 일제가 가져간 형국이 되고 말았다.

일제 말기인 1940년을 전후해서는 일제의 통제와 공출 등 강제가 증폭됨에 따라 시간이 흐를수록 잠사업분야 전체의 생각과 행동은 반일, 반 잠사업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정서와 추세가 연결되면서 광복이후에도 이러한 영향으로 잠사업 유지 발전에 오히려 가장 큰 심리적 장애요소로 남게 되었다.

## 제3장 해방 직후 혼란기 (1945~1950)

### 제1절 사회적 배경

1945년 8월 15일은 지난 1910년 8월 22일 한·일 합병조약으로 36년간의 일본의 식민지체제에서 벗어나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된 날이다. 그러나 해방은 완전한 독립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군사상의 편의에 따라 설정되었던 38선을 경계로 미·소 양국을 중심으로 자유 진영 대공산 진영의 대립이 구체화 되었고, 1948년 8월의 정부수립이 있기까지 3년간의 미군정 기간은 민심안정과 치안유지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시기로 잠업정책에까지 발전적 방향전환 같은 것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제2절 잠사업 상황 (1945)

광복과 함께 국내의 모든 산업은 미군정에 의하여 접수됨에 따라 각 제사공장은 미군정청 상공부광공국(商工部鑛工局) 소관으로, 제사공장 관리인 임명에 농무부는 관여하지 못하고 상무부장이 전행(專行)하였다.

잠종제조소는 대부분 일본인 생산자의 지시에 의해 수행하던 종업원이 맡게 되었으므로 당시 통신이나 교통 상황으로는 잠종 보유량조차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행정기관으로 농무부(農務部) 농정국(農政局) 잠정과(蠶政課)를 두었으며 초대 농무부장에 이훈구(李勳求)박사, 초대과장은 한국인 이기인(李起仁)과 미국인 존슨이 각각 맡게 되었다.

미군정은 잠사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한국잠사업을 통제하고 관리해오던 조선잠사 통제주식회사 역시 업무를 지속할 수가 없어서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 책임생산 및 잠견공출에 시달리면서 심한 단속과 고통을 받아온 양



잠농민들은 8·15해방이 되자 앞을 다투어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분출되면서 마구잡이로 뽕나무를 굴취하며 양잠 의욕 또한 저하되었다.

또한 잠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미군정마저 잠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전혀 생소한 분야이었기에 잠사업 발전에 대한 적절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견가(繭價)조차 다른 물가에 비해 평가가 절하된 상태로 국내의 산견량(産繭量)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광복 이후 전반적으로 잠사업관련 행정지도체계가 문란해지고 추진력도 약화 됨에 따라 산견량은 더욱더 대폭적인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치하에서 그들의 의도에 따라 야심을 달성할 목적으로 기형적인 형태로 추진된 잠사업 상황이 광복이후 우리에게 이전될 당시에는 정책적인 사전준비도 없이 유통시장마저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자체적으로 잠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형국이 되었으므로 다양한 성격을 지닌 잠사업 상황 속성상 여러 가지로 체질적인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준비가 마련되지 못했다.

### 제3절 조선잠사통제주식회사의 해체 (1946)

특히 8.15 해방 직전까지 일본인이 운영하던 조선잠사통제주식회사를 일단 미군정에서 접수는 하였으나, 이 회사의 계속 운영여부에 대하여 1946년 1월초에 전국잠업대회를 소집하여 잠사인들에게 여론을 듣기로 하였다. 그 대회에서 논의결과 참석한 잠사인들은 당분간 조선잠사통제주식회사를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1946년 4월 말에 당국의 정책에 의해 조선잠사통제주식회사는 해산하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1947년 12월 1일에 생사 가격통제가 해제되자 생사의 생산가격과 시중가격 간에 엄청난 차액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해방 이후의 심각한 경제변동의 원인도 있지만 결국은 고치를 저렴하게 구입 가공한 생사를 고가에 판매한 것이므로 제사업자의 부당 이득이란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948년 3월 25일에 개최된 조선잠사회 제2회 정기총회에서는 '잠사류안정자금'이란 명목으로 이 차액을 적립하여 양잠농가에게 환원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는 제사업자에 한하여 해당되는 문제이므로 그 이튿날 열린 전국제사업자회

의에서 재차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제사업자회의에서는 잠사류 안정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자율적인 적립을 진행하기로 결의하고 1948년 6월 20일자로 농림부에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11월 6일에 자금의 적립기준과 적립방법을 다시 검토할 것을 전제로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득하였다.



'잠사류 안정자금' 적립 관련 전국 제사업자 회의 (1948)

이후 제사업자의 적립내용이 부진함에 따라 여러 가지 잡음도 많았지만 이후 잠사류안정자금은 '잠사업장려자금'이란 명칭으로 변경되었고, 1950년 3월 10일에 잠사업장려자금에 대한 처분 결정이 내려져 적립된 자금은 상묘대금 및 잠종대금 보조 등의 명목으로 양잠농가에 환원되었다.

### 제4절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잠사업 (1948)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49년을 기점으로 산견(産繭) 3개년계획(1949~1951)을 수립하면서 과잉제사공장 시설의 정리, 잠사생산자금의 저리융자, 생사 취급요령, 생사수출대책 등등 잠사업계가 비로소 기반을 갖추기 시작하였으나 6.25 전쟁의 발발로 인하여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산견증산 3개년계획은 8·15광복이후 최초의 증산계획이었고 우리나라 잠업사(蠶業史)로 보면, 일제치하의 '산견 100만섬 증수계획' (1925~1939)과 '6개년 산견계획'(1940~1945 : 산견50만섬 급속증산계획)에 이은 세 번째로 실시되는 누에고치 증산계획이 되는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1949년 가을 이승만 대통령은 진해(鎭海)군항을 방문하면서 이곳의 주변 유희지에 뽕나무를 심는 것이 긴급한 일이라며 잠업장려에 힘을 쓸 것을 지시하여 이 일대에 많은 양의 뽕나무를 심기도 하였다.

## 제 4장 대한민국 잠사업 전개 (1950~2009)

### 제1절 6.25 동란과 잠사업 (1950년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은 잠사업에도 큰 타격이었다.

전쟁의 발발로 공장시설은 거의 파괴되고 기술 인력도 산산이 흩어지고 말았다.

그러한 가운데에도 우리나라 잠사업을 부흥 발전시키고 잠사업자의 공존공영을 위하여 기본자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업계에서는 1951년 9월 1일부터 잠업부흥 기본자금을 적립하기로 하였다.

1951년 5월 24일 춘잠기 생산자금 용자를 위하여 농림부, 재무부, 대한잠사회 및 각 금융기관 책임자들이 모인 연석회의에서 한국은행 측으로부터 잠사류 자금의 부채상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잠사업자 간에 보험금 적립제도를 실시하는 등 행정적 방안을 마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이 받아들여지면서 이 내용으로 농림부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것이 바로 ‘잠사업부흥기본자금적립’안(案)이다.

전쟁으로 인해 부산 피란 당시에 이루어진 이 잠업부흥 기본자금과 이후의 운영으로 대한잠사회는 잠사회관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오늘날 잠사회의 운영에 자산이 되는 기본금도 바로 이때 마련된 것이다.

#### 1. 5개년 잠견증산 계획 수립 (1952~1956)

당시 정부도 잠사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5개년 잠견증산계획’(1952~1956)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1953년부터 정부의 강력한 장려시책으로 상전면적은 다소 확장되었으나 산견량의 감소는 지속되고 있었다.

정부도 전후 복구와 생산증대에 힘쓴 결과 1953년 하반기부터 산업이 동란 전 수준을 회복하고 수출도 점차 활발해 지면서 증가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당시의 생사(生絲)는 농산물의 다양한 품목 가운데 수출의 1, 2 위를 차지하는 품목으로 당시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3~5%를 차지하고 있었다.

당시 잠사업계에서도 1952년 8월 1일부터 한국생사수출조합이 업무를 개시하게 되어 수출태세를 가다듬고 박차를 가한 결과 수출의 총아로 두각을 나타내고 수출주력품목으로 완전하게 기틀을 잡게 되었으나 계속되는 통화팽창과 물가폭등 등 모든 경제적 사회적 불안정으로 양잠농가가 원하는 견가(繭價)를 흡족하게 반영하여 주지 못하게 됨에 따라 양잠농가의 의욕은 더욱 저하되었고, 전국적으로(특히 남부지방) 누에고치의 암거래(暗去來)가 성행하여 공동판매의 실적도 매우 저조하였다.

#### 2. 파괴된 잠사시설의 복구 (1954)

6. 25동란은 양잠의욕의 저하와 함께 잠종, 제사 등 생산시설의 파괴를 가져왔다. 생산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어 일부 개선이나 복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1954년 미국 대외원조행정기구(FOA)로 부터 200만불의 원조자금(1955년 6월부터 ICA로 변경)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기획처와 협의하고 절충하였으나 74만불 정도밖에 배정받지 못하여 공장시설의 건설까지 계획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기계구입 자금을 한정하여 충당하기로 변경하고 17개 공장에 배정하였다.

기계구입 요청서를 1955년 3월에 부흥부를 통하여 발송하여 10월 말까지 구매계약 완료, 1956년 10월 말까지 기계의 도입을 완료한다는 조건의 승인서를 1955년 4월 7일에 받아 잠사업계에서는 그나마 이것만으로도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게 되었다.

참고 : 미국은 1948년 한미 원조협정(ECA), 1952년 한미 상호방위원조협정(SEC), 1952년 한미 경제조정협정(마이어 협정) 등을 체결한 뒤 전시간급구제계획(SEC)과 대외원조행정기구(FOA), 국제협조처(ICA) 등 다양한 채널로 원조를 제공했다.

#### 3. 대통령의 잠업 장려 (1955)

당시 정부의 수반인 이승만 대통령은 잠사업의 발전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1955년 4월 19일 국산품을 애용하라는 담화 중에 “일본인(日本人)들은 양잠을 해서 생사를 미국(美國)에 수출하여 많은 금전(金錢)을 벌어들인데 우리도 이것에 힘쓰면 그 반이라도 차지할 것인데 이것을 앓고 있으니 깊이 생각해서 외국에 물건 팔 것을 노력해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또한 1955년 6월 6일 농림부장관에게 내린 유시에 의하면 “중전에도 수차 지시한 바 있

거니와 농촌에 뽕나무를 장려하여 농촌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외화획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뽕나무를 재배하여 농가마다 누에를 기르게 하는 정책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상황과 장래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1955년 8월 26일 개최된 제50차 국무회의와 1956년 2월 25일 발표한 담화문, 1958년 2월 18일 정례국무회의 석상에서도 대통령은 잠업장려에 대하여 회의 때마다 언급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잠업장려 정책이 매우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OEC 경제협력단 경기제사방문 (1958)

#### 4. 제1회 잠사업진흥 전국대회 개최 (1956)

1956년 12월 3일 대한잠사회 회의실에서는 잠업관계인들이 모여 제1회 잠사업진흥 전국대회를 개최하였다. 참석자는 농림부를 위시하여 생사검사소, 농산물검사소, 농업기술원(농촌진흥청의 전신) 잠사과 등 관계기관과 각 도의 업종별 대표, 기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 대회를 계기로 한국잠사업의 진흥을 위한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잠사업진흥 전국대회 이후 정부주도로 이른바 대충자금 미국 국제협조처(ICA 원조자금)에 의한 ‘잠견증산 5개년계획(1959~1963)’이 수립되고 시행되었다. 증산계획의 주요 내용은 상묘대 지원, 양잠특설지구조성, 750명의 지도원 확보 등이었다.

이 계획 기간 중에 집단으로 조성한 상전을 기반으로 양잠특설지구 1,000개소를 설치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전남 기술직원을 배치하고 또 식상에 적합한 일정 지역을 선정하여 상전단지 조성함으로써 오늘날 집단상전 지대, 양잠 주산지역이라는 형태의 기반이 되었던 것이 바로 양잠특설지구이다.

양잠특설지구는 1960년대에서도 활발하게 육성 되었다.

뽕나무 품종을 따지고 식재형식, 집단상전, 순상전의 점유율 확대 등을 중시하는 시책도 여기서 연유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일정 지역의 책정 등에서 오는 폐단 즉 할당량의 강제 식상으로 뽕나무의 생리를 무시한 조잡한 식상이 이루어져 오랫동안 부실상전이거나 비경제성 상전이라 하여 잠업증산에 많은 문제점을 안겨주는 폐해도 발생했다.

## 제2절 잠업진흥 정책 (1960년대)

### 1. 제2차 전국잠사업진흥대회 개최 (1961. 1. 25)

잠사업의 부흥이 절실히 요청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새로 집권한 민주당정부에 잠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1961년 1월 25일에 제2차 잠사업진흥전국대회를 개최하고 건의서(建議書)를 채택하여 관계부처 및 각계각층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은 4개월 만에 물러나게 되어 이 건의는 시행되지 못하였으나 이 대회에서 채택된 결의문과 건의서는 이후 잠업증산계획 수립의 모태가 되었다.

1961년 5.16 군사정권이 들어서게 되자 잠사업계에서도 ‘잠사업증산 10개년계획(1961~1970)’을 핵심으로 하는 잠사업 진흥책의 실시를 요망하였다.

그동안 잠업증산계획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유명무실하게 되고 말았으나 1962년부터는 경제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잠업증산 5개년계획이 수립되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에 따라서 침체하였던 잠사업계에는 비로소 활기를 되찾게 되었으며 대한잠사회는 비록 잠사류 알선업무가 농협으로 이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사업 증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더욱더 활발하게 잠사업 발전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다.

### 2. 법률 제883호 잠업법 공포 (1961. 12. 27)

잠업분야는 광복 후 1960년까지는 1919년 4월 24일 제령(制令) 제10호로 공포 시행된 조선잠업령, 1935년 2월 18일 제령 제11호로 공포 시행된 조선제사업령(朝鮮製絲業令), 1942년 3월 25일 제령 제24호로 공포 시행된 조선잠사업 통제령(朝鮮蠶絲業統制令), 1947년 3월 8일 군정법령 제133호로 공포된 견사검사법(繭絲檢查法)과 3월 18일 시행으로 잠업 정책 전반이 운영되어왔다.

이후 잠사인의 노력으로 1961년 12월 27일 법률 제883호로 ‘잠업법(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이 유일하게 탄생한 것이다. 잠업법에 이어 두 번째 잠업관계 법률로는 1963년 5월 14일 법률 제1342호로 ‘잠사가격안정기금법’이 공포되고 6월 14일부터 시행된 법률이 있다.

이 잠사가격안정기금법은 1971년 1월 19일 법률 제2289호로 공포 시행된 '농수산물수출진흥법' 제정으로 이 법에 흡수 통합되어 폐지되었다. 이들 법률에 부수된 시행령, 시행규칙들이 법률 제정에 뒤이어 공포 시행된 것을 비롯한 법령들과 법령에 버금가는 여러 가지 규정(부령이나 훈령)과 이에 준하는 여러 가지 요강들이 1960년대 이후 1970년대 잠업 중흥기간 당시에는 특히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시행되었다.

### 3. 전국 잠업대회 개최 (1962. 2. 21)

잠업증산 5개년계획을 수립한 정부는 제1차년도인 1962년 2월 21일에 전국잠업대회를 서울 국민회당(현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전국의 잠업인들 1,515명이 한자리에 모여 잠업증산 5개년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 개최한 것이다 전국잠업대회에서 전국잠



1961 전국잠업대회 광화문 홍보안내

사인 일동의 결의문과 전국잠업대회 참가자 대표를 비롯한 대한잠사회장, 생사수출조합장 명의로 작성된 메시지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게 전달하였다. 당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산업행사로 개최된 전국잠업대회는 제1차 잠업증산 5개년 계획의 출발신호가 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 4. 정부 책임자의 잠업증산 관심 고조 (1962. 2. 9)

정부의 잠업중흥의 의지는 2월 9일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한신 내무부장관, 장경순 농림부장관을 대동하고 경기제사(주)를 방문한 것에 이어, 5월에는 춘경 가격인상 결정에 따르는 농림부장관의 권잠담화문 발표, 8월5일의 농림부장관, 농협중앙회장의 권잠담화문 발표 등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

### 5. 잠업증산 1차 5개년계획 (1962~1966)

정부는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하면서 제1차 산업부문 중에서 잠업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잠업은 천혜의

생산 환경과 인적인 여건이 마련돼 있어 기후풍토가 양잠에 가장 적합하며 농작물 중 그 수익성이 매우 높아 농가 수입을 증대할 수 있으며 풍부한 노동력을 흡수하여 농촌 공업화로 신속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었다.

한편 세계 생사 수요의 증대와 더불어 생사에 대한 판로가 안정적인 수출산업이라는 면으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당시의 상황은 양잠농가의 경영규모가 극히 영세하고 생산 의욕은 박약한 상태였으며 이전 정부 정책의 추진 또한 의지가 부족함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는 1962년부터 제1차 잠업증산 5개년계획을 발표하고 특히 잠업증산 극대화에 주안점을 두면서 적극적인 추진에 나섰다.

그 주요사업의 목표로 상묘생산에서부터 잠업 생산 및 공동판매 생사생산 및 수출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직접 개입 통제하거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양잠의 정책적 개입을 통하여 정부 주도사업으로 이끌어 조속한 잠업증산을 이룩한다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였다. 이렇듯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최고 통치 권력과 자금이 집중된 5개년계획의 성과는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제1차 잠업증산 5개년계획은 계획이 너무 방대하다느니 식상 사업 편중이라는 등 이견도 있었으나 한쪽 측면만을 바라보고 평가하기보다 한국잠사업 역사상 남긴 의의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잠사업 중흥의 바탕이 되었으며 세계적인 잠사 생산국으로 지위를 마련할 수 있었던 기반이 이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 6. 잠업증산 목표 달성을 위한 일본산 상묘의 긴급수입 (1963. 3)

1962년 제1차 잠업증산 5개년계획 수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뽕나무 부족 문제가 대두되어 계획 첫해부터 잠업증산 목표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외국에서 성묘인 뽕나무를 사들여서라도 증산계획의 성과를 촉진하라는 통치권자의 지시에 따라 뽕나무를 해외에서 긴급히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잠업증산을 위해 필요한 250만주의 상묘를 긴급히 구입하기 위한 교섭이 1962년 12월에 일본에서 이루어졌고, 이듬해 3월에야 선적이 가능했다.

3,000톤급 화물선에 적재된 상묘는 일본의 요코하마에서 출발하여 부산까지 약 1주

일 동안 운반되어 3월 21일 새벽에야 부산항 부두에 도착하였다. 시간이 오래 걸려 운반된 상묘는 상태가 많이 상했고 부패 직전에 놓여 있었다.



일본상묘 긴급 수입 1963. 3

따라서 통관 및 검역사무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여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였고, 식재지역도

지리적으로 멀지 않은 경상남도와 전라북도에 국한하여 집중 식재하기로 결정하였다. 긴급 수입된 상묘는 대부분이 재육묘(再育苗)였고 그 포장은 대·중·소로 되어 있었다. 중은 500주, 소는 1,000주 단위였다. 품종은 다호조생, 대도상 등의 조생종, 일지뢰, 개량 일지뢰, 개량서반, 국상 27호 등의 중생종, 검지의 만생종 등 7개 품종이었다.

이 250 만주의 상묘는 막대한 분량으로 경상남도 지역에 할당된 200만주는 화물자동차 70대분이었고 전라북도지역에 할당된 50만주는 20대분이나 되었다.

경상남도에 식재한 200만주는 산청군 45만주, 함양군 67만주, 거창군 85만주, 기타 군부대 등에 식재되었다. 이렇게 무모할 정도로 급하게 진행된 상묘의 식재성적은 전라북도의 경우는 양호한 편이었으나 수량이 과다했던 경상남도의 경우는 다소 부진하였다.

### 7. 잠업장려금의 적립과 관리 (1963. 12. 13)

정부는 잠업증산 5개년계획에 따른 정부의 재정 투·융자와 병행되어 민간자본의 동원방안으로 '제사업자의 잠업장려금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함'을 목적으로 1963년 12월 13일자(농생잠 1123.63)로, "제사공장 조사시설 증설인가 사무취급 지시" 가운데 제사업자 조사시설 증설에 대한 민간투자 실시요령에 따른 잠업장려금을 적립토록 하였다. 이 잠업장려금은 대한잠사회로 하여금 특별회계를 두어 은행에 예치 관리케 하고, 각도 지회에서도 경리케 하여 적립금을 관리하며, 지회는 잠업장려금을 각출한 제사업자와 협의 결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자금을 사용하되 자금의 사용계획은 농림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1964년 4월 23일자(농업령 1123.63-99) 제사공장의 조사시설 증설인가로 그에 따른 잠업장려금의 적립액도 책정되었다.

이 밖에 옥사 및 중하건(中下繭) 제사공장의 증설에 따르는 적립금도 대한잠사회에서 관리하도록 하였다.

### 8. 교육계의 잠업진흥 참여 (1964. 7. 28)

문교부에서는 1964년 7월 28일 '잠업증산 5개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각 학교에 뽕나무를 심고, 당시의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재상, 양잠 교육을 실시하도록 각 시도 교육위원회 교육감 및 각 대학 총 학장에게 지시하여 잠업의 증산 붐을 지원하였으며, 농림부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학교를 통한 잠업관련 교육 및 실습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1. 각 급 학교에서는 다음 교육과정에 부합하도록 재상, 양잠교육을 실시할 것. 교육내용은 국민학교 4, 5, 6학년 '실과', 중학교 1, 2, 3학년 '실업·가정과목', 고등학교 '실업과목'. 실업고등학교 '양잠과목·재상과목', 교육대학 '실업과목', 농과대학 '잠사과' 등이다.



잠업증산 학생포스터 및 웅변대회 개최광고

2. 식상은 학교 실습지, 공지, 교지 경계선 기타 유휴지를 활용하되 가급적 다음 목표량을 기준으로 심을 것.

국민학교 '300주', 중학교 '500주', 고등학교 '750주', 실업고등학교 '1,000주', 교육대학·일반대학 '750주', 농과대학 '1,200주' 식재를 목표로 하였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농림부의 지시사항으로는 '현지 행정 및 지도기관은 학교별 식상작업, 상전관리, 양잠 등 각종 계획 수립에 적극 참여하여 기술적 행정적 협조를 하는 동시에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실습지 또는 공휴지를 현지 답사하여 식상주수, 정지방법, 식재방법을 지도하며 상묘 구입 및 수중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퇴비 및 금비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였다.

### 9. 잠종(蠶種)의 수출 (1967. 1. 12)

잠종의 수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1966년 10월 5월부터 약 40일간에 걸쳐 잠종수출 시장 개척활동이 전개되었다.

당시 한국잠종협회 회장과 충남지부장 등 2인은 대만, 태국, 인도, 터키, 이태리, 프랑스 등 여러 나라를 순방한 결과 한국산 잠종의 수출전망이 매우 좋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인도, 터키 등은 수출의 가능성이 크며 이의 실현을 위해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활동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사전노력의 결과 이듬해인 1967년 1월 12일에는 잠종

2,835상자 (4,800\$)를 인도에 대한민국 잠종으로는 최초로 해외에 수출되었던 역사적인 일로서 이날 잠종은 항공편으로 인도의 카슈미르 지방으로 수송되었다. 이후 양국은 수차에 걸친 협조를 거쳐 우리 양잠 전문가를 인도에 파견키로 하여 수출한 한국산 잠종의 사육기술을 지도하기로 하였다.



잠종수출을 위한 60년대 활동

잠종의 수출에 관한 최초의 논의는 1965년산 잠종가격 심의회 때에 비롯되었다.

당시 해를 거듭하여 증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소잠량 또한 크게 늘어나게 되었고, 잠종의 생산량 또한 크게 늘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잉여잠종 또한 해가 거듭하면서 그 양이 증폭됨에 따라 이의 해결방안으로 잉여잠종 수출문제가 거론되었다. 결국 1965년도 생산 잠종가격의 생산비용에 잠종수출 대책 비용이라는 것을 계상하고 이것으로 잠종협회에서는 선전용 인쇄물을 제작과 배부하는 한편 위에서 말한 잠종업계 인사 2명이 직접 해외시장개척 활동을 전개한 것이 최초이다. 이후 1967년도에도 3월 17일 한국잠종협회는 제5회 정기총회를 열고 1967년도 수지예산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전체 6백 39만 8천 3백원 중 잠종수출시장 개척비 2백 10만원을 계상하고 1인의 잠종기술자를 인도로 파견하였다.

그리고 1967년 3월에 농림부는 잠종의 수출시장개척을 위한 견본용으로 이탈리아에 50상자, 터키에 100상자의 잠종을 4월 중 수출하도록 한국잠종협회에 허가하였다. 1970년에는 터키에 잠종 2,500상자를 수출하고 터키의 잠업관계인사 3명(농림부잠종담당과장, 잠업시험소장, 양잠협동조합장)을 초청하여 한국 잠사업계를 시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의 잠종의 수출은 이후에도 수출시장조사와 개척은 물론 해외 판매 활동이 꾸준히 계속되었고 특히 80년대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란, 파키스탄 등 외국의 주요 잠종 수입국에 대하여 판촉활동을 벌여왔으며 잠종 수입국에 우리나라의 기술자를 파견시켜 사육기술을 지도하는 등 잠종 수출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잠종수출 초기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해외시장에서의 일본산 잠종과의 경합을 타개하고 우리나라 잠종 수출시장은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였다.

## 10. 상묘(桑苗)의 수출 (1967. 11. 30)

상묘수출도 잠종이 처음으로 수출되었던 1967년 11월 30일 실생묘 10,000본이 1,500불에

태국으로 최초의 우리나라 상묘수출이 이루어졌다. 그 후 1969년까지 일본, 이태리 등지에 국내 종묘상들이 일본 상인과의 상거래 형식으로 실생묘를 중심으로 수출하였는데 상묘는 수출이 없었던 1969년을 제외하고 1967년, 1968년, 1970년의 3개년 동안에 실생묘 8,510천주, 접목묘 3,110천주 계 11,620천주를 수출하여 181,210불의 수출실적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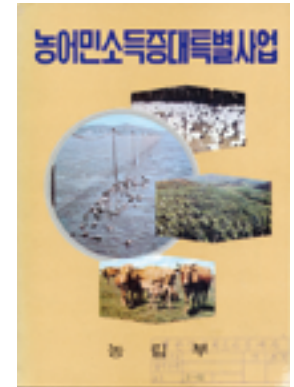
상묘수출을 위한 60년대 활동

1968년에 상묘수출이 활발해지자 농림부에서는 이를 건전하게 조장하여 우량한 상묘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출상묘 취급에 대하여 규제의 필요가 발생하여 10월 22일자로 전문11조의 '상묘수출취급요령'을 제정하고 시행하였다.

이 요령은 제1조의 목적을 "1968년산 수출상묘의 수급조절 및 수출절차를 규정"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상묘를 수출하고자하는 자는 수출추천의뢰서를 한국상묘협회에 제출케 하며, 동 협회에서는 계약농가의 포지(圃地)를 현지 확인하여 수출 상묘단지를 지정하며 관할도 잠업검사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수출을 희망하는 업자, 상묘생산지역, 생산량 등이 결정되며, 다음으로 이러한 상황을 보고 받은 농림부는 국내 수급계획, 유통, 수출단가 등을 착안점으로 하여 수출추천 여부를 결정토록 하였다. 이때 적용하였던 수출단가는 접목묘 1,000주당 40불 이상, 실생묘 1,000주당 7불 이상으로 하였으며 검사는 잠업검사소가 전수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주목되는 점은 '제1차 잠업증산 5개년계획'의 효과를 하루빨리 성취하기 위하여 1962년 봄, 일본에서 250만주의 상묘를 수입한지 불과 5년 이후 1967년에는 오히려 우리상묘를 일본으로 역수출하게 된 것이며, 그 이후에도 양은 많지 않았지만 꾸준히 일본으로 수출하였다.

## 11. 제2차 잠업증산 5개년계획 추진 (1967~1971)

제2차 잠업증산 5개년계획도 국가의 전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 사업으로 잠업증산계획이 수립되었으며 1965년부터 계획이 입안되어 1966년 중 증산계획이 수립되었다. 제1차 잠업증산 5개년계획의 성과는 수출진흥에 크게 기여하고 농가소득향상에 이바지했으며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잠업진흥에 대한 의욕이 대단하여 1967년 2월 24일 농림부는 이른바 뽕나무 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당초 계획보다 상묘생산과 식상 계획 등 생산계획이 대폭 확대된 계획을 세웠다.



제2차 잠업증산확대 5개년계획은 1967년 5월 22일 제24차 경제장관회의에 별도 상정, 의결을 거쳐 정부가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특별사안으로 다루게 되었다.

이러한 특별대우의 배경은 바로 제1차 잠업증산 5개년계획의 성과가 특별한 만큼 그에 따른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1962년 잠사류 총수



생사수출을 위한 60년대 활동

출액은 496만6천불에 불과하던 것이 1966년에는 1,661만천불로 5년간 3배를 초과하였으며 당시의 우리나라 총 수출액은 1962년은 54,800천불, 1966년에 250,300천불이었다.

이렇게 볼 때 잠사류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과 앞으로 성장의 가능성이 풍부한 잠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기대는 매우 큰 것이었으며 증산을 통해 수출증대를 이룩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의 자금투입 등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기에 생산계획의 극대화과 아울러 자금지원이 확대된 것이다.

잠업증산사업은 농가소득과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식량의 자급도 증진을 위한 식량 증산사업과 함께 정부의 중요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농림수산물의 증산과 농가 소득향상 및 수출증대 계획과 연관되어 경지 이용도와 생사류의 시장성, 재정 투융자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다.

제2차 5개년계획의 생산실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5년간 뽕나무를 6억주 이상 심는데 비하면 잠전이나 생사 생산은 그만큼 생산이 되지 못하고 국제 생사류 가격의 급등과 국제 수출시장 사정이 극히 좋아 수출목표만은 크게 초과달성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 12. 농어민소득증대 특별사업 (1968. 5. 11)

제2차 잠업증산 5개년계획 기간 중 '농어촌소득증대 특별사업'(이하 '농특사업'이라 한다)이 있다. 농특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1965년 이전은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보다 높았으나(1964년 도시근로자 소득대비 농가소득은 129.3%) 1966년에는 그 비율이 80.6%로 떨어졌다.

이것은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공업위주 정책 추진과 식량 증산 위주의 시책의 원인과, 반면에 식량작물 위주에서 농수산물 가격 유지를 비롯한 경제작물의 주산지 조성 등 농

가소득증대 시책으로 전환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1967년 대통령 연두교서로 농림정책의 기본 방향을 획기적인 농·공 병진 정책과 농어민소득증대에 주력했기 때문에 농특사업이 추진되었다. 따라서 잠사업은 여기에서 중점사업으로 더욱 활기를 띠게 되어 제2차 잠업증산 5개년 계획의 성과에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 <농특사업 개요>

농특사업은 1차로 1968년부터 1971년까지 4개년 계획이며 최초의 13개 복합 생산단지 조성계획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주산단지를 90개로 확대해 1968년 5월 11일을 기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1차 사업 기간 중 참여 단지 수는 90개소, 품목 수는 43개, 참여 농·어가 수는 전체농가의 16.5%인 41만 호, 총 투자액은 4백 52억 원이었다.

당시 농특사업 별 투자내용을 보면 잠업이 가장 높은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실적은 계획된 목표를 거의 달성하였다. (참고자료: 새마을 소득증대 농수산부 1975. 12. p. 55.) 농특사업 실시 농가의 소득을 보면 낙농을 제외하고는 소득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농특사업 실시 효과로는 1971년의 호당 소득이 일반농가는 35만 6천 원에 비하여 농특사업 참여 농가는 40만 3천원으로 4만 9천원이 더 많았고 농특사업 참여 농가는 도시근로자 소득과의 격차가 68년 이전에 비하여 해가 거듭 될수록 격차가 줄어들었다.

농특사업 추진과정에서 잠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는 농·특사업을 총 정리한 새마을 소득증대 책자의 목록과 내용에서 항상 잠업을 첫 번째 기사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

## 제3절 잠사업의 최성기 (1970년대)

### 1. 농수산물수출진흥법 공포와 기금운용 (1971)

농수산물 수출진흥법은 1971년 1월 19일 공포되었고 2월 18일 시행되었다.

'농수산물 수출진흥법'에 의하여 종래 잠사가격안정기금법에서 다루어 오던 안정기금

관리업자가 안정기금법 폐지로 이 수출진흥법 부칙 경과조치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서 잠사가격 안정기금은 이 법에 따라서 적립된 것이다. 기금관리는 수출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잠사업자(상묘, 양잠, 잠종, 제사업자)로 구성된 법인으로서 이 법당시에 관리한 자에 의해 계속 관리하며 적립된 잠사 가격 안정기금은 '잠업진흥기금'으로 개편되고, 이 기금은 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잠사가격 안정 및 잠업장려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잠사류 가격결정은 1971년 1월 22일 잠업법 개정으로 이 법에서 다루게 되어 있어 수출진흥법이 비록 농수산물 수출관련 법령을 통합되는 법령이지만 잠사가격 결정과 적립된 기금의 운영권은 잠사업계가 계속 행사하게 됨으로서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수출진흥법 시행 이후 1977년 3월 1일 잠업법 개정으로 잠업진흥기금 관리에 관한 일체의 규정이 잠업법에 흡수 될 때까지의 기금관리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연 도	적립액(A)	수출장려 및 손실보상액(B)	차인(A-B)
1971	204	21	183
1972	72	-	72
1973	2,290	-	2,290
1974	1,476	2,061	△585
1975	2,420	854	1,566
1976	613	163	450
계	7,075	3,099	3,976

자료 : 대한잠사회, 2000.10

## 2. 생사의 비축 및 건건수출 (1974)

일본의 수입규제 조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정부에서는 1974년 12월 10일 잠업진흥기금 (당시 농수산물수출진흥기금)에서 10억원을 제사업체의 특별운영자금으로 용자지원(연 이율 9%, 1년간)하여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일본의 생사수입 규제로 인한 재고누증으로 조업중단 등의 위기



생사수입규제 철폐운동 (1974)

에 처해 있는 제사업체의 불황을 타개하는데 노력했다.

아울러 생사 재고의 누적된 증가로 극심한 경영난과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는 제사업체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1975년도 조달청의 주요 물자기금 운용계획상의 과잉재고 물자의 수매·보관 및 방출에 따른 비축요령에 의거 1975년 2월 21일 조달청장과 한국생사수출조합 이사장 간에 '비축용 생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우리나라 잠업사상(蠶業史上) 처음으로 생사 406,608kg(6,776표)를 비축하게 되었다.

국내 생사재고량은 1974년부터 재고가 누적증가 되기 시작하여 1976년에는 1972년에 비해 13.5배나 늘어난 52,380표에 이르러 국내 제사업체들은 1977년산 누에고치를 수매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점에 도달하였으며 누에고치 수매에 별도대책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1977년 5월에 누에고치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1차로 누에고치 181,580kg(약 250만 달러 상당)을 일본의 미쓰이, 마루베니 등 5개 상사에 수출하게 되었다. 이로써 제사업체에 가중되던 원료재고의 압박을 덜게 되었고 국내 잠사업의 어렵던 상황에 활로를 열었다.

이렇게 시작된 건건수출은 모두 2,037톤으로 25,349천불 상당이 수출되었다. 수출가격은 건건 kg당 12.80달러(FOB)였으며 수출 건건 kg당 평균 425.80원씩을 잠업진흥기금에 적립하여 기타지역으로 생사류 수출을 확대하는 수출장려금 재원으로 활용하였다.

## 3. 생사수요 확대 대책 적극추진 (1974)

이러한 조치와 함께 생사수요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동안 일방적으로 일본수출에만 매달려온 우리나라 잠사업의 수출정책을 점검하고 이를 전화위복 기회로 삼고자 한국산 실크의 선전강화, 수출시장의 다변화, 내수 증진책 등 여러 가지의 생사류 수요확대 대책이 강구되었다.

먼저 한국실크협회는 1974년 10월 30일부터 3일간 미국 뉴욕 프라자호텔에서 한국산 실크의 패션쇼와 트레이드쇼를 개최하여 한국산 실크의 우수성을 선전, 판매촉진에 나섰다. 1974년 11월 27일에는 한국생사수출조합 회의실에서 관계기관, 잠사관계 단체 및 협회와 견직관계 회사가 참석한 생사수요촉진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여

- ① 생사에 대한 물품세의 전면 면세를 정부에 건의
- ② 대일지역의 견직물 수출량 2배 확대 대책 강구
- ③ 실크의 국내수요확대 촉진책으로 실크 소비의 대중화를 위한 국내 주요도시에 판매



## 센터 설치운영

④ 한, 양 복지 소비량 중 20%에 대해 생사 20% 혼직 방안을 상공부에 건의키로 하는 등 생사 소비대책에 부심 하였다.

또한 한국생사수출조합에서는 1975년 1월 24일부터 2월 2일 서독의 서베를린 농산물박람회에 생사, 옥사, 견직물원단, 넥타이, 스카프 등 견제품 전 품목을 출품 전시하여 한국 실크제품을 종합적으로 선전하였다.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는 1975년 10월 14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1975년 10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미국 뉴욕에서 한국산 실크전시회를 개최하여 우리나라 실크의 우수성을 소개하며 수출시장 개척에 노력하였다.

## 4. 일본 외 기타지역 수출장려금 지급 (1975)

이러한 노력과 아울러 일본이외 지역에 대한 수출시장을 개척하여 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하고 일본의 수입규제조치로 인해 둔화된 수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하여 1975년 12월 1일 부터 1981년 12월 31일까지 기타지역(일본 외 지역)에 수출되는 생사류에 대하여 수출장려금 5,679백만원을 지급하여 수출을 촉진시켰다.

수출장려금은 잠업진흥과 한국생사수출조합의 자체 적립금에서 지급하였는데 장려금 지급 총액 5,679백만원 중 4,268백만원은 잠업진흥기금에서 나머지 1,411백만 원은 한국생사수출조합의 자체 적립금에서 지급하였다. 이 장려금 지급액은 당시 잠업진흥기금의 규모로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당시 생사류 수출타개에 커다란 노력과 투자를 했는지 확인된다. 이와 같이 기타 지역 수출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37,958표의 생사류가 기타지역으로 수출되어 생사류 수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이전까지는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지 까지도 진출하여 많은 나라에 우리나라의 실크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성과 또한 매우 컸다고 보겠다. 특히 견직물은 총 수출량의 64%를 차지하게 되었고 수출장려금 지급에 따른 우수한 견직물 생산 및 수출증대는 물론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 5. 1970년대의 잠종수출

1967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잠종수출은 초기 수출량은 그다지 많지 않았으나 수출기반이 잡힌 1970년대 중반부터는 매년 8~9만 상자를 수출해 왔다.

1975년 및 1981년에는 10만 상자 가까이 수출하여 잠종수출의 전성기를 맞았으며, 한국산 잠종의 수출 주요 대상국은 인도, 이란 및 파키스탄 등을 비롯하여 8개국이나 되었으며 이 중에서도 이란과 파키스탄은 잠종수출의 가장 큰 고객이었다. 특히 이란은 한국산 잠종의 단골 수입국으로 1980년대 초까지 연간 85,000상자씩 수입해 갔으나 이라크와의 전쟁이 장기화 됨에 따라 연간수입량이 40,000상자로까지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잠종을 무상으로 기증한 나라는 수입국인 인도, 이란, 태국, 터키 등을 비롯하여 잠업개발 국가인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이집트 등 모두 24개국에 이르고 1967~1988년까지 4,424상자를 기증하였다.

## 6. 1970년대 상묘(桑苗)의 수출

상묘의 수출도 잠종이 처음으로 수출되었던 1967년에 실생묘 10,000본을 1,500\$에 태국으로 처음 수출한 이래 같은 해 일본에 상묘 73,500본을 수출하였고, 1968년 일본과 이태리에 103,970본, 1970년부터 1977년까지 일본에 상묘 55,037본을 수출하였다.



70년대 잠종 및 상묘수출 활동

## 7. 잠업법 개정에 따른 제도 및 법령 정비 (1977)

1977년은 1976. 12. 31자로 잠업법이 전면 개정되고 농림수산부 조직도 농특사업국에서 잠사업예국으로 개편 됨으로서 잠업으로서는 법제나 조직 면에서는 새로운 기반이 갖추어진 셈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구비된 조직체제 속에서 오히려 잠업이 축소되기 시작하여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잠업법의 개정에 따라 잠업법 시행령이 1977. 5. 2 대통령령 제 8556 호로 전면 개정되고 잠업법 시행규칙이 1977. 8. 20 농림수산부령 제 696호로 전면 개정되었다.

개정된 잠업법 시행령은 잠종생산업, 제사업, 견방업의 허가기준 및 동업종의 생산시설의 양도, 임대 또는 이전 시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상묘, 잠종 및 잠견가격의 기준결정시기와 적용기간 등을 규정하였으며, 잠업진흥기금의 적립, 손실보상, 용자 및 회수에 관한 사항과 양잠농가, 잠종 및 상묘생산자, 생사류 및 견직물 생산자 등에 대한 장려금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잠업법 시행규칙은 잠종, 제사, 견방업의 허가, 준공검사, 이들 업종의 양도, 임대 및 이전 승인과 폐업 또는 휴업신고의 서식을 규정하고, 잠종생산에 필요한 설치 및 관리방법을 규정했다. 또 잠업진흥기금 적립액 납부통지서, 결손보상 승인실시, 용자승인 신청서의 서식과 잠업진흥기금의 관리비목을 규정하였다.



거창군 농양면 100만주 식량단지 조성 (1977)

### 8. 잠견생산 조정 및 배경 (1977)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한 잠업증산정책으로 1970년부터 1976년까지 6년간에 누에고치 생산량은 2배로 증가되었다.

반면에 1974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생사류 수입규제로 우리나라 잠업에 어려움이 가중되며 증산된 누에고치는 국내 잠업계에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는 상황에 도달했다.

이 당시 생사 재고량을 보면 한 잠기 분량의 누에고치가 그대로 재고로 이월되고 있는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생사 재고누적으로 인하여 생사 가격도 크게 떨어진 가격으로 거래되면서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제사업체는 자금압박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누에고치를 생산해도 보관할 창고가 부족한 실정이 되었다.

1977년의 우리나라 잠업은 한마디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는 물론 잠사업계와 학계, 잠사단체들 상호간에 수차례에 걸쳐 긴밀한 협의가 오고갔으며, 1977년의 잠업시책은 증산을 억제하고 1976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목표를 수립했으나, 결국은 누에고치 생산량을 감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1977년의 잠업시책의 기본 방향으로 누에고치 생산기반을 감축하여 잠사류 증산을 억제하고 단위당 생산성 제고 및 품질개량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생사류 시장 다변화 및 생사가공 확대의 지원강화로 설정하였다.

감산정책은 당시의 국내외 여건상 위기에 처한 국내 잠사업의 재기를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지만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충격적인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잠업을 포기하는 분위기가 팽배하여 그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국내 잠업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게 되었다.

이의 심각성을 느낀 잠업관계 단체장들은 1977년 11월 30일 대한잠사회 제49차 정기총

회에서 잠사업 안정기반 유지를 위한 대책을 협의하고 급기야 정부의 감산정책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지원책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농림수산부 장관은 적극적인 지원과 재원마련에 노력할 것이며 견직물의 수출시장 개척 및 내수개발을 위하여 이후 홍보사업을 함께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 9. 잠업법시행령 개정 (1979. 9. 21)

1976년 12월 31일자로 잠업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던 잠업법 시행령을 1979년 9월 21일 그동안에 시행과정에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개선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또 다시 개정하였다. 개정내용을 보면,

- ① 잠종생산 관리자를 별도로 채용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신설
- ② 가격결정시기를 매년 6월 31일에서 7월 31일로 변경
- ③ 잠업진흥기금 적립손실발생(제사업체의 수출보고 불이행)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규정
- ④ 잠견 출하 장려금의 지급 시 고시토록 변경
- ⑤ 회계년도 중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 ⑥ 잠업진흥기금 예치기관을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 국한하였던 것을 시 조합에도 할 수 있도록 변경
- ⑦ 기금의 용자 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 ⑧ 건건기의 종류에 구분 없이 시설된 건건기의 처리능력이 허가 규모에 정하는 처리 능력과 동일한 경우 동 시설기준에 의한 시설로 봄
- ⑨ 허가취소 및 영업제한 조치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잠종수출입 허가권을 국립 잠종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79. 9. 27 농수산부령 제 773호로 잠업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 예지검사에 의하여 미립자병독이 없는 나방을 사용토록 하고, 검사단위를 “아(娥)마다”를 “1아 내지 14아를 단위로 하도록 하였으며, 자동조사기의 환산기준과 잠업진흥기금의 용자기간을 용도별로 생산 및 운영자금은 1년 이내 시설자금은 3년 이내로 하도록 하였다.

또한, 1981. 3. 20에 대통령령 제 10256호로 잠업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잠종, 제사 및 견방업의 허가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완화하고 제사업 및 견방업의 경우는 당해 공장의 원료권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료 조달량이 허가 규모별 생산시설

의 처리능력에 미달한다고 인정할 때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조사기 및 견정방기의 허가 규모와 이에 따른 시설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원료건 생산추세에 맞추어 시설 기준을 현실화하여 과잉시설을 방지토록 하였으며, 매년 9월 30일까지 결정하던 상모가격을 6월 30일까지 결정토록 하여 양잠농가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 제4절 잠사업의 환경변화 (1980년대)

### 1. 1977~1985까지의 잠사업 상황변화

우리나라 잠업은 그동안 증산위주로 성장만 해왔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여서 이러한 외부의 어려운 여건과 충격을 흡수할 수 없었다.

1977~1985년간의 잠업구조를 보면, 호당 뽕밭면적이 10a 미만인 농가가 1977년에 43%에서 1985년에는 56%로 늘어난 반면, 20a이상인 농가의 비율은 26%에서 20%로 오히려 줄어들어 영세성을 면치 못했다. 그리고 농가 호당 뽕밭면적도 1975년의 18.3a에서 1981년 12a까지 계속 줄다가 그 이후 점차 늘어나 1985년에는 22.4a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농가호당 잠견 생산량도 1977~1983년까지는 65.8~77.7kg이었으며, 1984년 이후부터 90Kg이상 되었으나 이는 일본의 호당 잠견 생산량에 비하여 5분의 1 정도로 잠업소득이 농가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잠업구조가 취약하여 외부정세 변화에 대응력이 약한 상태로 적은 충격에도 견뎌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탄력적 대처가 어려운 상태였다.

누에고치 생산량은 감산시책추진으로 1977년 31,884톤 생산 이후 매년 많은 물량이 감소되어 1985년에는 누에고치 생산량이 8,996톤으로 1977년에 비해 28.2%에 불과해 71.8%가 감소되었으며, 누에고치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1976년에 비하면 21.6%에 불과하여 이 역시 5분의1로 감소되었고, 누에고치 생산량만 가지고 보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났던 1966년 수준에도 못 미쳐 잠업이 20년 전으로 회귀 된 셈이다. 따라서 농업생산액 중에서 잠업생산액의 비중은 1977년 1.15%에서 1985년 0.35%로 0.8%가 감소되었다.

생사류의 수출물량도 일본의 수입규제 영향으로 1977년에 5,016톤에서 1985년에는 2,592톤으로 48.3%가 감소되었다. 따라서 생사 및 견연사의 직수출도 점차 감소되어

1977년 2,733톤에서 1985년에 434톤으로 줄었고 생사는 1980년부터 연간 400톤 밖에 수출되지 못하였으며, 그나마 1981년과 1984년 이후에는 수출실적이 전혀 없게 되었다.

생사류의 수출 비율도 1977년에 직수출과 가공수출이 서로 절반정도 유지하였으나, 1978년부터 가공수출의 비율이 높아져 1985년에는 90%로 견직물 등 가공제품의 수출이 주종을 이루게 되었다.

1977~1985년에는 잠업 행정조직에도 큰 변동이 있었다.

1976년 12월 31일 농수산부의 직제변동에 따라 잠사업예국이 신설되어 중앙부처에 잠업 중심의 국(局)단위 조직이 되었으나 잠업진흥이 기대했던 만큼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자

1978년 4월 12일 농특사업국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 농특사업국은 1960년대부터 추진해오던 농특사업이 별도 사업단위로 추진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1981년 11월 22일 특작국으로 변경되었으며 1982년 7월 1일에는 잠업과의 업무 분장 계(係)단위가 종전의 잠정, 재상, 양잠, 견사의 4개의 부서가 재상이 양잠에 통합되어 3개의 계로 축소되었다.



80년대 잠업증산 촉진대회

한편 내무부산하의 잠업분야 기구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내무부산하의 각도 잠업과를 폐지하고 특작과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유인즉 전국의 잠업규모는 매년 감소되는 반면 채소, 과수 및 특작분야 업무량이 점차 늘어나자 각도가 내무부에 건의한 것을 내무부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누구보다도 우선 내무부 관료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잠업은 아직도 농가 소득 특히 타 작물 재배가 어려운 중산간지 농가의 중요한 소득원이며 우리나라가 잠업선진국으로서 후진국 잠업개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사례로 들며 앞으로 그 전망이 밝다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1982)와 그동안 정부가 잠사업 증흥을 위하여 막대한 투자를 해왔으며 1985년부터는 뽕나무 묘목 비용을 국고에서 30%까지 확대보조 지원하는 등 잠사업 확대 추진내용 및 잠업과 존치의 필요성에 대한 농수산부장관 방침을 받아 내무부 관계관에게 여러 차례 설명하여 당초 폐지가 확실시되었던 잠업과를 1983년 10월에 잠업특작과로 개편함으로써 계속하여 잠사업을 주 업무로 계속 수행하게 되었다.

이처럼 잠사업을 추진하는 행정기구가 그동안 누에고치 감산으로 인해 여러 차례의 우

여곡질이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1986년 5월 31일에는 농림수산부의 직제개편으로 특작국이 농산물유통국으로 개편 되면서 잠업과는 농산국에 편입되었다.

## 2. 1980년대 이후 잠사 가공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환

1976년도 우리나라 양잠농가는 480,000호, 뽕밭면적 82,000ha, 고치생산은 42,000톤, 생사생산은 5,494톤으로서 전 세계 생산량 49,000톤의 11%를 점했다. 잠업증산 1차 5개년 계획부터 2, 3차 계획까지 잠사업은 수출산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섬유가공기술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료로 수출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1970년대 중반부터 어려움이 잠사업계에 닥쳐왔다.

첫 번째로는 90%이상 수출을 하던 우리나라 1974년산 생사를 일본의 수입규제에 따라 우리나라의 생사는 자율적 수출의 판로가 막히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정부 간 생사회담을 통하여 물량을 합의해서 수출하고 있었다.

둘째로 1970년 후반부터 급격한 공업화에 따라서 농촌의 이농현상(移農現象)이 급격히 일어나면서 노동집약 산업인 잠업이 큰 타격을 보게 되었고,

세째는 1970년대 이후 중국의 생사덤핑 수출이 계속되어서 국제가격은 계속 하락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수출이 원자재에 속하는 생사수출 마저도 어려워지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활로를 찾기 시작하면서 견직물 등 가공분야가 발전하게 되었다.

견직물 가공분야의 발전은 수출산업으로는 이어졌으나 반대로 국내의 고치생산은 급격한 감소와 가격상승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값싼 고치수입이 대체하게 되었다.

1981년을 기점으로 해서 누에고치의 수입이 급격히 확장되어 1987년에는 중국으로부터 거의 80% 수준의 누에고치를 수입하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견직업계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원자재를 가공해서 수출하는 가공수출 분야만이 발전을 가져왔고 우리나라 잠업생산기반이 크게 위축되어 국내의 누에고치 생산은 수익성이 떨어져서 더 이상 누에고치 생산은 힘들어지게 된 상황이었다.



견직물수출을 위한 활동

## 3. 생사류의 수입과 국내 생사 수급상황 (1980)

1976년을 기점으로 국내 누에고치 생산량이 조금씩 줄긴 했지만 한국이 생사의 주요 생산국이면서 수출국이었기 때문에 외국산 누에고치나 생사의 수입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사공장도 국내생산 누에고치가 원료로 충분히 공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수입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국내 잠점 생산량의 지속적인 감소는 80년대 들어서 제사공장의 정상적인 조업율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었다.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 ① 생사를 가공하는 수출은 확대되면서 원료생사의 수요량은 증가하였고, 국제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값이 싼 누에고치와 원료생사의 수입이 필요했다. 나아가 국내수요 실크의 기반을 넓히려는 노력과 더불어 경제의 발전에 따른
- ② 국내 실크수요 확대로 80년대 들어서 생사 수요량이 급격히 늘어나 국내 생사생산량으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게 되자 일부 물량을 수입으로 충당하게 되었다.

## 4. 누에고치 수출에서 수입으로 (1985)

제사업체에서는 공장의 정상가동과 생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1980년부터 중국 누에고치 수입이 시작하였다. 이것은 국내 누에고치 생산농가 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조치로 농림수산부는 행정조치를 통해 1984년 2월 15일부터 누에고치의 수입을 제한하였으며 1985년 7월 1일부터는 누에고치를 수입 감시품목으로 지정하여 내수용수입은 금지하고 대신 필요한 물량은 외화획득용 누에고치만 수입을 허용하였다. 또한 1987년 11월부터는 누에고치 수입 당시에 kg당 600원씩 잠업진흥기금에 적립토록 하여 국내 잠업기반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토록 하였으나 누에고치의 수입 가격 상승으로 1988년 4월 8일 통관 분부터는 기금적립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

## 5. 생사 및 견연사 수입 (1986)

생사 및 견연사는 1980년 이전에도 시험용 등 특수한 규격이 소량 수입되었으나, 내수용 생사는 1987년 이전까지는 국산 공급이 가능하여 수입을 계속 제한하였으며 국내산 공급량이 계속 감소됨에 따라 1987년 7월부터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한 수입한도량 범위

내에서 수입토록 허용하였는데, 수입한도량은 1987년에 1,500표, 1988년에 3,300표였다. 반면 외화 획득용 생사는 수요자단체인 한국섬유직물수출조합의 추천에 의해 수입이 허용되었으나, 수입생사 국내 유출 등 물의를 빚게 되자 국내산 생사 사용실적에 따라 링크제에 따라 수입 하도록 하였다. 수입 추진을 1984년부터는 수요자단체에 맡기지 않고 상공부에서 직접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6년부터는 견연사용 원료생사는 한국생사 수출조합에서, 견직물용 원료생사는 한국섬유직물수출조합에서 추천하여 수입하도록 이원화하였다. 견연사는 일부 특수규격을 제외하고는 수입을 규제하였지만 누에고치, 생사, 견연사의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국내 생사 생산량은 계속 감소하여 1987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생사 자급비율은 불과 35%수준으로 저하되었다.

### 6. 잠사업 발전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 시급 (1987)

1987년도 상황을 보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잠사류의 90% 이상을 전부 외국에 수출하였다.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고품질의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지난 기간 중국에서 생산한 값싼 원자재인 생사에 의존해서 수출하여 온 것이 당시 우리 견직업계의 실정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가격이 1987년 하반기보다 약 50% 가량 상승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량을 시기에 맞추어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존립기반마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우리나라 잠사업이 새롭게 생산기반을 새롭게 다져야 할 당위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당시 중국이 수출하는 양상도 누에고치 값이나 생사는 계속해서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견직물 가격은 거의 덩핑공세로 하락하는 국면이 진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견직물이 자유화 되어서 수입이 예상되던 당시 우리나라 견직업도 우리 잠사업의 생산기반과 마찬가지로 쉽게 무너질 것이 예상되었다. 당시 우리나라 제사공장이나 견직업계의 가동상태가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국내 잠업기반이 없기 때문이었으므로 다급한 것은 생산기반의 구축으로 여기게 되었다.

### 7. 생사수급 부족에 따른 잠업증산의 필요성 (1988)

그러나 이에 반하여 생사류의 절대부족으로 수입량은 매년 증가하여 1987년도에 177백만불, 1988년도에 318백만불로 가격도 매년 상승하고 있었으며 생사보다 견직물로 수입

이 배 이상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잠사업은 당시에 도 부가가치가 높아서 국민경제에 기여도가 큰 작목으로 국제경쟁력도 있었고 선진국과의 통상마찰도 없기 때문에 수입농산물 대체작목으로 유망하므로 개발육성산업으로 선정되고 있었다.

당시 잠사업 진흥의 필요성에 대하여 주생산국인 중국의 내수증가 및 가공수출 증대로 인하여 생사수급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세계적으로 견직물 수요는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었다. 일본 또한 누에고치 감산으로 인한 고급생사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우리 양잠농가는 누에고치 생산을 권장작목으로 선정하고 수입개방 농산물의 대체작목으로 육성할 필요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2000년대까지 연평균 3%의 생사수요 증가를 전망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ERI) 연구보고서 결과도 있고 누에고치 생산량의 90% 이상이 국내에서 가공되어 수출되므로 누에고치 가격이 인상되어도 국내 물가와 관련이 없으며 선진국과의 통상마찰도 없는 품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의 잠사업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상황도 증산 정책에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 8. 단순생산에서 견직물 가공수출(加工輸出)로 발전 (1988)

우리나라는 누에고치가 감산되면서 1980년 이후 원료수입이 매년 증가되어 잠사업 수급이 바뀌었다. 따라서 수출형태도 원료 직수출에서 가공수출로 바뀌어 1988년에는 가공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견직물의 수출상황을 보면 1987년도에 429백만불, 1988년도에 562백만불을 수출하였는데 전체 수출액의 61%가 미국을 비롯한 유럽, 중동 등에 견봉제품 수출로 진행되었고 일본수출은 견직물과 견연사 수출로서 39%에 불과했다. 이와 같이 국가별 수출물량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우리나라의 수출품이 단순 생사에서 견직물 고급 완제품으로 발전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 제5절 잠사업의 제도적 변화 (1990년대 이후)

### 1. 내수용 생사 수입업무세부시행지침과 장려금 적립 (1994)

1994년 3월 11일 한국생사수출조합(현 한국생사수출입조합)과 진주직물공업협동조합(현 경남직물공업협동조합)은 내수 견직물의 고급화와 견직물생산 원가 절감을 위해 연간 고급생사(4A이상) 120M/T(2,000표)를 수입하는 등의 내용을 골격으로 하는 내수 견직물 생사수입, 공급에 따른 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이 합의서를 근거로 하여 수출조합은 '내수용생사수입추천업무세부시행지침안'을 작성 1994년 3월 23일 농림수산부(현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침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농림수산부는 1994년 3월 30일(잠특 51236-119)에 이 시행지침을 승인하고 수출조합과 대한잠사회에 대하여 지침시행과 장려금적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각각 공문을 시달하였다. 이 지침에서 잠사업계에서는 생사수출조합이 수입물량을 추천하고 수입되는 물량에는 일정액의 장려금을 적립(대한잠사회 잠업진흥기금으로)토록 하였다.

이 장려금을 적립하게 한 목적은 적립된 장려금으로 누에고치 증산에 기여하도록 함으로서 국산 생사 공급을 확대시켜 보려는 취지였으나 1990년대 후반기 지속된 감산과 1997년 7월 1일부 이후 무역자유화 시행에 따라 장려금 적립제도는 폐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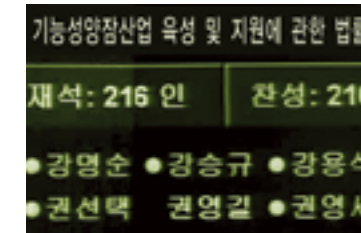


### 2. 잠업법 폐지 (1999)

1998년 11월 잠업법 폐지 법률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1990년대 들어서 잠사업이 급격히 쇠퇴(양잠농가 4,200호, 제사업체수:1개)하고, 양잠의 목적도 잠사류 생산보다는 오히려 식·의약품 생산을 위한 것으로 전환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잠업법 폐지에 대하여 1998년 7월 10일 잠업관련기관(대한잠사회, 한국잠종협회, 한국생사수출조합, 농촌진흥청 잠사곤충부등)협의회를 거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였으나 별다른 사항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을 정부 측에서 확인하였다. 이에 1998년 11월 27

일에 잠업법 폐지 법률안이 상정되었고 이후 잠업법 법률 폐지에 따른 심사과정을 거쳐 12월 16일 소위원회의 보고서를 수정결의 하였으며 1999년 1월 21일자로 잠업법은 폐지되었다.

### 3.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09)



1999년 잠업법이 폐지된 이후 2009년 1월 8일 이용희 의원에 의해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대표발의 되면서 '기능성 양잠산업은 다른 작목이 추종할 수 없는 친환경적이면서 웰빙 농업에 상징적인 작목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성 양잠농가의 유치방안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통하여 종합적인 양잠지원에 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라는 법률안이 제안되어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이 법률안은 2009년 4월 29일 제282회 국회 본회의에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은 법률 제9726호로 제정되었다.

이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1822호로 2009년 11월 28일자로 공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제 5장 60년대 이후 잠업정책

### 제1절 잠업증흥의 기반구축

#### 1. 국내외 잠사업 상황

우리 잠사업은 1950년 30,643ha보다 뽕밭면적이 20,407ha로 10,236ha나 감소하였고, 누에고치 생산량도 5,272톤이던 것이 4,599톤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1961년 5.16혁명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잠사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잠업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 목표달성을 위하여 재정지원과 함께 강력한 행정력을 뒷받침함으로써, 1965년부터 뽕밭면적과 누에고치 생산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1970년에는 뽕밭면적이 84,976ha, 누에고치 생산량은 21,409톤으로, 1950년보다 뽕밭면적은 2.8배, 누에고치생산량은 4.1배로 증가하였고, 잠사류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1970년 수출액은 75백만\$로 1950년보다 무려 279배나 증가하였다. 1960~1970년까지 년 평균 20.7% 인상과 더불어 누에고치 가격을 1970년부터 1974년까지 5년간 연평균 26.5%나 인상하여 양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양잠농가의 누에고치 생산의욕이 고무되고 있었다.

<1960년대 잠사업현황>

	1950	1960	1965	1967	1968	1969	1970
양잠호수(천호)	502	379	403	458	480	499	493
뽕밭면적(ha)	30,643	20,407	50,477	68,515	94,433	99,264	84,976
잠견생산(톤)	5,272	4,599	7,768	10,03	16,615	20,747	21,409
잠사류수출(천\$)	269	1,877	9,943	32,467	40,568	55,108	75,094

또한 1963년까지는 일본이 생사 수출국이었으나 1964년 생사 수입국으로 전환되면서 생사 수출가격이 1972년 파운드 당 11.60\$이, 1973년에 20.10\$까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우리 잠사업체는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제1차 석유파동으로 세계 최대 생사 수입국인 일본의 경기침체와 함께 전통의상인 기모노(着物) 소비가 줄어들면서 생사 재고가 쌓여갔다. 그러자 일본은 1974년부터 생사의

수입규제가 시작되었고, 누에고치 최대 생산국인 중국의 일본 시장진출이 시작되면서 불가피한 경쟁에 따라 우리 잠사업은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 2. 잠업진흥 시책 내용 (1960년대)

##### 가. 누에고치가격 대폭 인상

1962년부터 1976년까지 15년간 식상 1,407백만 주, 1976년 뽕밭면적 105,690ha, 누에고치 생산 47,210톤을 생산하기 위한 3차에 걸친 잠업증산 5개년계획은 양잠농가 소득증대가 현실화 되지 않는다면 잠업증산 구호는 쓸모없는 일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잠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1961년부터 1970년까지 10년간 누에고치 가격을 연평균 20.7%나 인상하였으며, 특히 1964년에는 1963년 대비 무려 62.6%나 인상하여 양잠농가의 수익증대를 현실로 확인시켜 준 것은 정부의 잠업증산 의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 주는 좋은 사례이다.

<누에고치가격 인상율 (1961~197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가격(원/kg)	116	141	166	270	326	405	419	480	480	549
인상율(%)	27.5	21.5	17.7	62.6	20.7	24.2	3.4	14.5	0.0	14.4

##### 나. 잠사가격안정 기금법 시행과 기금적립

1962년부터 시작된 제1차 잠업증산 5개년 계획 본격 추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잠업증산 활동과 국제 생사 가격의 호전으로 잠사업 경기의 상승국면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생사판매(수출)가격이 정부가 고시한 생사 기준가격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1/2을 적립 또는 보상하고, 잠사류 가격결정은 잠사가격 심의회를 거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제정된 '잠사가격안정기금법'이 12월 13일 제정되었다.

잠업진흥기금은 1963년 6월 13일에 시행되고 적립됨으로써 오늘날까지 잠사업 유지발전에 기본이 되었다. 그러나 1971년 11월 19일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잠사가격안정 기금법'은 폐지되었다.

##### 다. 재정 및 행정력 지원

3차 5개년계획 기간 동안 총 5,418백만 원의 국고보조, 잠업지도원 971명 육성 및 박정희 대통령 2차례의 제사 생산공장 시찰(1차: 1962년 2월 9일 서울 소재, 경기제사, 2차: 1966

년 4월 7일 강원도 춘천 뽕나무마을, 동방제사), 육영수 여사 새마을양잠 시범대회에 3회(1~3회)에 걸쳐 참석하여 친잠례 시범, 농림부장관, 각도지사의 잠업증산을 독려하는 담화문 발표 등 강력한 행정력에 힘입어 3차에 걸친 잠업증산 5개년 계획을 성공으로 수행 할 수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 강원도 춘천 동방제사 시찰(1966.4.7)

### 3. 대정부 건의사항

이승만 대통령은 1955년 6월 6일 농림부 장관에게 내린 유시(諭示)를 통해 외화획득이 가능한 뽕나무를 재배하여 농가마다 누에를 기르게 하는 정책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진행 상황과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보고하라는 지시에 따라 제11대 농림장관인 임철호 장관은 1955년 6월 25일 이승만 대통령에게 뽕나무 3천 7백만 주의 상묘대금 2억 9천 6백만원과 잠업기술자를 시·군에 341명, 읍·면에 1,514명(1읍면 당 1명)을 배치, 개량 자축기 무상배부, 치잠공동사육장 628개소의 설치를 건의하였다. 대한잠사회는 1959년 7월 24일 각도 양잠농가대표 등 잠사업 관련 대표자들과 전국잠사업자 회의를 개최하고, 생사에 물품세를 부과하면 잠전에 전가되어 고치가격이 하락함으로 생사에 대한 물품세 면세요청 건의서를 농림부, 상공부, 재무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등 각계각층에서 '생사물품세폐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1959년 12월 23일 제 33회 국회 본회의에서 '생사물품세폐지'안 의결에 따라 1960년 1월 1일부터 '생사물품세'가 없어지게 되었다.

농림부는 물품세 폐지를 예견하고 1959년 가을누에고치 가격을 26% 인상하고, 이 재원은 '생사에 대한 물품세 해당액 적립요강' 제정에 따라 물품세 해당 금액을 적립하였다.

1960년 5.16혁명 이후, 잠사업계는 1961년부터 1970년까지 10년간 누에고치 37,500톤 생산, 외화획득 5천만\$, 상묘 3억주 식재 등 구체적이고 과감한 증산계획 추진을 위해 총 소요경비 230억원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 건의가 1962년부터 본격 추진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잠업증산 제1차 5개년 계획에 많은 부분이 반영되었다.

## 제2절 잠업증산 5개년 계획(1962~1976)

### 1. 잠사업 상황 및 배경

2차 세계대전 중에 책임생산 및 잠견공출에 시달리며 명주실(明紬絲)을 자가 소비하지 못하게 심한 단속을 받아온 농민들은 양잠에 원한을 품고 있었다.

8.15해방이 되자 순 상전이 많은 전라남도과 평야 지대에서 뽕나무를 뽑아내는 굴취상황이 나타나, 누에고치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가 시작되어 1945년 광복 시기보다 1961년에는 양잠호수 41%, 뽕밭면적 14%, 소잠량 64%, 누에고치 생산량 31% 감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감소원인은 농민의 양잠의욕 저하가 큰 원인이었고, 또한 인조견의 출현과 누에고치가격이 다른 농산물 가격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잠업증산에 대한 정부 예산의 뒷받침이 미흡한 것이 더 큰 원인이라 생각된다.

<광복 후 잠업생산기반의 변화>

	양잠호수 (천호)	뽕밭면적(ha)	소잠량(천매)	누에고치 생산(톤)
1945	615(100%)	43,049(100)	725(100)	7,090(100)
1961	369(59)	37,040(86)	260(36)	4,880(69)

이러한 침체국면을 회복하고 잠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잠사업계의 활동은 1956년 12월 2일 잠업진흥전국대회, 1957년 8월 17일~1958년 10월까지 농림 부와 대한잠사회, OEC(미국 경제협조처) 등 관계자가 20회에 걸친 협의 끝에, 잠업특설지구당(뽕밭 2ha기준) 잠업기술지도원 1명을 배치하고, 연간 2~3천만 주의 식상을 위해 상묘대 100% 장기융자(당시 주당 상묘대 14환) 17억 5천 5백만원, 잠업기술지도원 배치보조비 17억 2천만원을 제상하여 외국 경제원조에 의해 1959년부터 1963년 5개년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었다.

이후 4.19와 5.16 등으로 1960년 이전에 수립된 계획은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그러나 ICA원조 자금을 바탕으로 한 증산계획으로 잠업지도원 750명 양성과 상묘대금 100% 융자지원을 했던 것이 추후 증산계획을 실천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2. 1~3차 잠업증산 추진 성과(1962~1976)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수립된 잠업증산 5개년계획은 세계 생사



수요 증대와 더불어 판로가 안정적인 잠사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1차(1962~1966)를 비롯하여 2차(1967~1971), 3차(1972~1976)에 걸쳐 성공리에 추진되었으며, 정부의 국가차원 자금지원과 적극적인 행정력의 뒷받침으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강력한 행정력 뒷받침의 사례로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잠업과장(윤창진 과장)과 직접 면담을 마치고 “잠견 증산을 하루속히 이루려면 뽕나무가 많아야 하므로 뽕나무가 부족하다면 외국에서 키운 뽕나무를 수입해서라도 증산계획을 촉진하라”는 지시에 따라 1962년 3월 20일 250만주의 뽕나무를 일본으로부터 긴급히 수입하여 경남에 200만주(산청 45만, 거창 85만5천, 함양 67만 5천), 전북 임실에 50만주를 심은 것은 물론, 생사류 수출증대를 위해 생사의 일부가 국내 견직용으로 소비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였음은 당시 혁명정부가 잠업증산에 얼마나 역점을 두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다.

#### 가. 제1차 잠업증산 5개년(1962~1966) 계획과 성과

5·16혁명정부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수립한 잠업증산 5개년계획은, 1961년 1월 25일 잠사업계가 정부에 건의한 10개년 계획을 참고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차 산업부문 중 잠업증산계획이 우위를 차지하였다. 주요목표는 누에고치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 ① 5년간 5억 5천 5백만 주의 뽕나무를 식상(植桑)하여 30ha 단위 양잠단지를 전국에 2,464개소 조성
- ② 양잠특설지구에 잠업기술지도원을 배치, 새로운 양잠기술 보급
- ③ 치잡공동사육장을 설치하고 잠구·상묘대를 국비·지방비 보조지원 등 이었다.

본 계획은 최종 효과연도인 1970년에 누에고치 46,500톤을 생산, 5,213톤의 생사를 수출하여 5천 6백만\$의 외화획득을 목표로, 상묘생산에서부터 잠견생산 및 공동판매, 생사 생산 및 수출까지 정부가 직접 또는 통제 개입하는 등 정부 주도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사업의 양적 측면의 성과는 계획 기간 중 식상 실적은 계획대비 95.6%, 누에고치 생산량은 계획대비 97.6%로 성공적으로 평가되었으며, 생사류 수출은 일본 수출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계획을 초과 달성함으로써 제2차 증산계획을 추진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투융자 실적을 보면 5년간 총 투자액은 1,391백만원으로 계획 1,600백만원의 87%로 목표에는 미달하였으나, 융자액은 339백만원으로 계획 312백만원의 109%로 목표를 초과함으로써 제1차 잠업증산 5개년 계획은 생산이나 정부재정 지원측면에서 성공적이었다.

<1차 잠업증산 5개년 계획 실적(사업량)>

	식상(백만주)	누에고치 생산(톤)	생사류 수출(톤)	수출액(천불)
계 획	506.8	35,731	2,544	33,277
실 적	484.4	34,886	2,827	44,243
비율(%)	95.6	97.6	111.1	133.0

<1차 잠업증산 5개년 투·융자실적(백만 원)>

	상묘대 보 조	잠 실 건축비	양잠특설지구 지 도원배치	생사 및 누에고치검사	기타	계
투 자	904.5	-	268.1	114.6	103.4	1,390.6
융 자	-	292.9	-	-	46.2	339.1
계	904.5	292.9	268.1	114.6	149.6	3,076.1

#### 나. 2차 잠업증산 5개년(1967~1971) 계획과 성과

2차 잠업증산 5개년계획도 1차 5개년 계획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전체 경제개발계획인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1차 잠업증산 5개년계획이 수출증대와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고,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잠업진흥 의욕이 대단하여, 농림부는 1967년 2월 24일, 이른바 「뽕나무 회의」를 긴급 소집,

- ① 상묘의 성묘율을 높이고
- ② 상전조성은 다른 작물과 경합을 피하기 위하여 산지식상을 원칙으로 하고 비배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다.

\*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상전조성은 산지로 선정하며 반계단식으로 조성하고, 부락주변의 환경사지에 뽕나무를 심도록 하라’는 것은 당시 잠업증산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에 따라 2차 잠업증산 5개년계획이 원래의 계획보다 크게 확대되어 식상은 당초 300백만주이었던 것을 550백만주로, 누에고치 생산은 94,100톤 계획에서 126,600톤으로, 생사류 수출액은 147,954천\$ 목표에서 193,400천\$로 확대·조정되었다. 성과를 보면, 식상실적은 658백만주로 계획대비 120%이었으나, 뽕밭면적은 계획 114천ha의 71%인 81천여ha, 누에고치 생산은 계획 126,600톤의 75%인 94,367톤으로 목표에 크게 미달하였으나, 생사류 수출액은 국제생사가격 상승으로 282백만\$로 계획보다 88백만\$ 이상 초과달성을 이룩하였다. 식상실적은 20%나 초과달성 하였으나 뽕밭면적이 계획대비 71%에 불과한 것은 ‘기업양잠농’ 육성 방침에 따라 산간오지 양잠을 할 수 없는 곳에 무더기로 뽕나무를 심은 원인에 있으며, ‘기업양잠농’ 육성지역이 아닌 일반 뽕밭에서도 뽕나무가 제대

로 심겨지지 않았고, 잠업 볍을 타고 무자격자가 생산한 상묘를 심다보니 상묘의 과잉 생산과 부실식상으로 이어졌으며 이에 따라 누에고치 생산실적도 계획대비 75%에 그쳤다. 투·용자액은 13,045백만원으로 계획 9,782백만원 보다 33.4%가 증가하였다.

당초 뽕밭 조성비는 자부담 없이 보조 70%, 용자 30%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추진과정에서 용자의 자부담 전환 등으로 전체농가의 자부담액이 계획된 1,913백만원보다 3,899백만원이 증가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2차 잠업증산 5개년 계획 조정내역>

	식상(백만주)	누에고치 생산(톤)	생사류 수출(톤)	수출액(천불)
당초(A)	300	94,100	10,594	147,954
조정(B)	550	126,600	13,947	193,400
증△감(B-A)	250	32,500	3,353	45,446

<2차 잠업증산 5개년 계획 투·용자 실적(백만 원)>

	계 획				실 적				비율 (%)
	보조	용자	민간	계	보조	용자	민간	계	
뽕밭조성	2,755.5	1,157.3	-	3,912.8	2,482.0	-	1,738.4	4,220.4	108
누에고치생산	575.3	1,471.5	1,912.6	3,959.4	579.0	3,732.7	3,898.4	8,210.1	207
생사수출	713.7	-	-	713.7	-	176.0	175.0	351	49
기타	1,195.1	-	-	1,195.1	264.2	-	-	264.2	22
계	5,239.6	2,628.8	1,912.6	9,781.0	3,325.2	3,908.7	5,811.8	13,045.7	133

### 다. 3차 잠업증산 5개년(1972~1976) 계획과 성과

3차 잠업증산 5개년 계획은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공업화, 도시화로 이농이 촉진되자, 도·농간의 소득격차 확대로 농가 소득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1970년에 수립되었으며, 1972년~1976년 '제2차 농특사업계획'이 3차 잠업증산 5개년 계획을 대부분 수용하였다.

식상계획은 350천만주로 제2차 5개년 계획기간 식상실적 658백만주 대비 53%에 불과하나, 1976년의 뽕밭면적은 105천ha로 1970년 85천ha보다 24%, 누에고치 생산량은 47천톤으로 1970년 23천톤보다 무려 2배로 보아 3차 잠업증산 5개년 계획도 대단히 의욕적으로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계획을 수립할 당시 농수산부 잠업 관계자는

- ① 1970년까지 식상과다로 부실뽕밭이 1만여ha이므로 누에고치 생산목표 달성하려면 호당 양잠규모를 늘리고 치잠공동사육이나 현대식 생력양잠 기술을 보급해야 하고

- ② 3차5개년계획 기간 동안 생사류 수출여건이 일본의 수입물량 축소와 중국의 덩핑 수출로 1~2차 5개년계획 기간만큼 호황을 누리지 못할 것이 예측되고

- ③ 정부의 투용자와 민간자본이 계획대로 동원되느냐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사업실적을 보면, 식상실적은 계획기간 동안 총 3억 6백만주로 계획대비 87.5%였으나, 1976년은 계획대비 24.3%로 극히 부진하였다. 이유는 1974년 8월 1일부터 실시한 일본의 생사수입 규제조치로 1975년도 누에고치 가격을 올리지 못하였고 1976년 인상율이 6%로 소폭 인상에 그쳤기 때문이다. 1976년 뽕밭면적은 82,876ha로 계획대비 78.4%, 1976년 누에고치 생산량은 71,704톤으로 계획대비 88.3%이었으나, 계획기간 동안 생사류 수출 실적은 970백만\$로 계획대비 195.9%를 달성하였다.

<3차 잠업증산 5개년 계획 연도별 사업실적>

	단위	1972			1973			1974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식상	천주	50,000	40,989	82.0	80,000	69,946	87.4	80,000	113,173	141.5
뽕밭면적	ha	101,010	78,441	77.7	102,320	80,267	78.4	103,550	88,006	85.0
누에고치생산	톤	34,900	26,800	76.8	37,500	30,980	82.6	43,000	37,178	86.5
생사류수출량	톤	4,180	3,508	83.9	4,670	3,367	72.1	5,250	3,021	57.5
생사류수출액	천\$	80,670	113,756	141.0	89,940	180,301	200.5	101,050	164,568	162.9

	단위	1975			1976			합계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식상	천주	70,000	65,133	93.0	70,000	17,015	24.3	350,000	306,256	87.5
뽕밭면적	ha	104,660	90,955	86.9	105,690	82,876	78.4	-	-	-
누에고치생산	톤	45,050	36,091	80.1	47,210	41,704	88.3	207,660	172,753	83.2
생사류수출량	톤	5,700	5,364	94.1	6,040	3,902	64.6	25,840	19,162	74.2
생사류수출액	천\$	109,590	240,462	219.4	115,940	271,076	233.8	497,190	970,163	195.9

총 투용자 실적을 보면 국고·지방비 보조, 용자 및 민간부담 등 15,980백만 원으로 계획 23,310백만원의 68.4%에 불과하였으며, 뽕밭조성 사업비는 6,864백만원으로 계획 7,687백만원의 89.3%로, 당초 국고·지방비로 4,780백만원을 보조지원 계획이었으나, 재정의 악화로 1976년에는 보조지원이 중단됨으로써 계획의 42.0%의 지원으로 인해 민간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누에고치 생산 관련 사업비 투·용자실적은 6,444백만원으로 계획 14,246백만원 대비 45.2%로 극히 부진하였다. 이는 양잠약재, 양잠자재, 잠종생산에 국고 지방비지원이 계획에 훨씬 미달함에 따라 민간부담도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었다.

&lt;3차 잠업증산 5개년 계획 투·융자 실적(백만 원)&gt;

사업별	계				지방비	기타	민간
		투자	재정융자	소계			
계	15,441	2,626	3,536	6,162	2,419	184	
뽕밭조성	6,864	875	-	875	1,104	24	6,676
누에고치 생산	6,444	696	3,536	4,232	334	130	4,861
생산지원	2,077	1,027	-	1,027	953	30	1,748
생사수출	56	28	-	28	28	-	-

### 라. 농어민소득증대특별사업 추진

농어민소득증대특별사업(이하 “농특사업”)은 1964년에는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소득의 129.3%이었던 것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도시근로자 소득은 크게 높아진 반면, 1966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80.6%로 저하됨으로써, 식량증산 위주의 농업정책을 농공병진정책과 함께 경제작물의 주산지 조성 등 농가소득증대시책으로 전환이 그 추진 배경이다.

당시 사업별 투자실적을 보면 잠업이 92억 원으로 총사업비 453억 원의 20%인 반면, 타 경제작물 전체 투자액이 97억 원으로, 잠업이 중점사업으로 추진되어 제2차 잠업증산 5개년 계획 추진에 큰 도움이 되었으나, 사업비가 제2차 잠업증산 5개년계획의 일부와 제3차 잠업증산 5개년 계획을 ‘농특사업’으로 편입시켜 추진하였다.

## 제3절 누에고치 생산조정과 감산시책

### 1. 누에고치 생산조정 배경

1960년대는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강력한 잠업증산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생산기반이 확대 조성되고, 생사를 비롯한 잠사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1969년 뽕밭면적은 99,264ha로 1962년 5,793ha보다 17배나 증가함에 따라 누에고치 생산량도 1970년 21,409톤이던 것이 1976년에는 41,704톤으로 95%나 증가하였다. 누에고치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누에고치 가격을 1972년 봄 누에고치 전년 대비 21%, 가을

누에고치 36%나 인상했고, 나아가 1973년 봄 누에고치 53%, 가을 누에고치를 71%나 인상한 것이 큰 원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생사의 주 수입국인 일본이 1974년 8월 1일부터 수입규제를 단행함으로써 생사류 수출급감에 따른 생사 재고가 크게 증가하여 1976년에 한 잠기(蠶期) 생산량에 상당하는 52,380표의 생사 재고가 쌓이게 되었다.

### <한·일 생사재고 현황>

(단위:표/60kg)

	1973	1974	1975	1976	1977	1980	1985	1990	1995
한국	7,466	36,733	33,370	52,380	50,300	5,749	1,830	4,017	1,200
일본	33,235	83,169	71,112	47,792	77,343	158,387	166,877	33,919	31,106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일시적이거나 감산시책을 단행하여 잠사류 수급의 불균형을 시정하기로 하고 1977년 누에고치 감산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1962년 이후 15년간 증산정책에 따른 확대생산 정책에서 감산시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 2. 감산시책 주요내용과 대책

누에고치 감산시책은 고치 생산 억제를 통해 생사류 수급 안정도모 조치로 주요내용은

- ① 잠업전망이 호전될 때까지 상묘생산과 식상을 억제
  - ② 4,000ha의 부실뽕밭을 타 작목으로 전환
  - ③ 2년생 미만 뽕밭 춘벌 실시 수세를 갱신하고 봄누에 소잠량을 감축하는 것이었다.
- 한편으로는 생사류 수출 다변화를 위하여 일본 외 지역 수출의에는 파운드 당 2~3.50\$의 수출장려금을 지급하고, 제사업체의 경영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견자금을 저리 융자하고 정부의 주요물자 비축자금으로 10,000표의 생사를 비축하도록 하였다.

&lt;1977년 누에고치 생산조정 내역&gt;

	당 초			조 정		
	춘기	추기	계	춘기	추기	계
소잠(천상자)	650	640	1,290	503	550	1,053
누에고치생산(톤)	22,000	19,700	41,700	17,600	16,600	34,200

### 3. 감산시책 추진결과

춘잠종 배부를 억제하기 위하여 잠종저장고를 봉인하여 계획물량 이상으로 잠종출고

를 금지하는 등 감산정책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1977년 뽕밭면적(춘별면적 제외)은 67,800ha로 1976년 82,900ha보다 15,100ha가 감소하였고, 누에고치 생산량은 31,884톤으로 1976년 41,704톤보다 9,820톤이 감소한 반면에 생사류 수출액은 279백만\$로 1976년 271백만\$ 보다 8백만\$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감산정책 추진과정에서 양잠농가의 잠종 추가배부와 각도 잠업담당자들이 감산시책 완화를 강력히 요청하였음에도, 강제적이고 인위적인 감산정책의 강행은 지난 15년간 잠업증산에 전력해온 잠사업 관계자 모두를 안타깝게 했다. 일시적인 감산정책 이후, 현상유지 정책으로 전환하였음에도 1978년 누에고치 생산량이 1977년 대비 12.3%나 감소하고, 뽕밭면적이 1978년 당년에 13,480ha나 감소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1979년 누에고치 가격 전년 대비 23% 인상하고 뽕밭 비료대를 지원하는 한편, 1980년산 누에고치 가격을 전년 대비 27%나 인상하는 등 누에고치 증산시책을 다시 강력추진하였다.

#### 제4절 새마을 양잠 시범대회 개최

##### 1. 잠업증산 대회

6.25사변 후 부산 피난에서 서울로 돌아온 잠사회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잠업진흥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1회 잠업진흥대회를 1956년 12월 3일 대한잠사회 회의실에서 잠사기관·단체, 각도 업종별 대표 유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서 누에고치 56,250톤, 생사수출 6,000톤, 외화 5000만\$을 기본목표로, 뽕밭 10만ha 조성, 상묘대 70% 보조, 뽕밭비료 저리용자, 잠업기술자 양성을 위한 농업고등학교에 잠과(蠶科)설치, 잠사류 자급에 대한 저리용자, 중요 산견군(産蠶郡)에 견견장 설치, 누에고치생산 장려금 교부, 잠종대 일부 보조, 제사공장 정비, 친잠제도 부활, 중앙관서에 잠사국 설치 및 잠업시험장 독립 등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결의하였다.

당시의 결의문 요지를 탄원서로 작성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에 제출하였다.

그 결과 잠사업진흥추진위원회가 경제 4부 장관, 한국은행총재, 국회 5개분과위원장, 중앙농업기술원장, 각 도지사를 고문으로, 각도별 업종별 위원 66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홍재근 잠사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112명의 위원회를 발족하고, 식상계획 450백만주

등을 골자로 하는 잠업증산 5개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이를 농림부에 제출하였다.

이에 농림부는 식상계획을 300백만 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잠업증산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10개년 계획이 5.16 혁명정부가 196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제1차 잠업증산 5개년계획의 초석이 되었다. 이어 제2회 잠업진흥대회를 1961년 1월 25일에 개최하여 추진 중인 잠업증산계획의 확대와 추진방안을 다시 채택하여 민주당, 정부, 국회 등 각계 각처에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 2. 새마을 양잠 시범대회

조선왕조 왕비가 누에를 사육하는 전통행사인 친잠례 의미를 계승하며 이를 기회로 잠업진흥을 다짐하기 위한 ‘새마을 양잠 시범대회’가 제 1회부터 제 3회까지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 여사가 참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1984년 9월에 개최된 제10회 잠업증산 대회까지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나 잠사업의 침체로 인하여 중단 되고 말았다.



	개최일자	개최 장소	주요 참석자
1회	1972.6.9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상천2리	○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 여사 ○ 김보현 농림부 장관 외 500여명
2회	1973.6.5	충청북도 청원(잠업기술연수원)	○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 여사 ○ 정소영 농림부 장관 외 1,300여명
3회	1974.5.28	강원도 춘천 뽕나무 마을	○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 여사 ○ 김보현 농림부 장관 외 500여명
4회	1975.6.5	충청북도 청원(잠업기술연수원)	○ 정소영 농림부 장관 부인 등
5회	1976.6.4	충청북도 청원(잠업기술연수원)	○ 최각규 농림부 장관 부인 등 380여명
6회	1979.6.8	충청북도 청원(잠업기술연수원)	○ 조익래 농특국장 외 300여명
7회	1980.8.31	전라북도 부안군 산내면 마포리	○ 700여명 참석
8회	1981.9.9	충청북도 청원(잠업기술연수원)	○ 대통령 영부인 이순자 여사 ○ 고건 농수산부장관 내외 외 600여명
9회	1982.9.10	충청북도 청원(잠업기술연수원)	○ 박종문 농수산부 장관 내외
10회	1984.9.14	충청북도 청원(잠업기술연수원)	○ 박종문 농수산부 장관 내외

## 제5절 잠사류 수출상황

### 1. 수출산업으로 성장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부주도의 강력한 수출추진 정책에 있었다. 해방 이후 경제자립을 위해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중심의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농업 분야는 잠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잠사업이 수출산업으로 주목을 받게 된 배경에는, 일제강점기 누에고치 증산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뽕밭 등 생산기반이 마련되어 있었고, 1964년경 생사 수출국인 일본이 수입국으로 전환되면서 생사 수출시장 확보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1949년 식목일에 이승만 대통령은 잠사업을 통한 외화획득을 강조하면서 “명주를 짜서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라”고 하였고, 1950년 4월 19일 국산품을 애용하라는 담화에서 일본은 양잠을 해서 미국에 수출, 외화를 많이 벌고 있으니 한국도 잠업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후 5.16 군사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1962년부터 1976년까지 15년 동안 계획된 3차 잠업증산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박정희 대통령의 2차령에 걸친 제사공장 시찰이 있었고, 육영수 여사의 3차령에 걸친 양잠시범대회에 참석하여 친잠례와 같은 누에사육에 모범을 보임으로서 양잠농가의 누에고치 생산의욕을 고취시켰다.

상묘대 보조지원과 누에고치 가격 대폭 인상에 따라 뽕밭 면적 등 잠업기반이 크게 확대되었고, 제사업체에는 구견(購繭)자금 융자와 수출장려금의 지급이 주효하였다.

이와 함께 1970년대에는 일본의 생사수입량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1970년에 64,583표이던 생사수출량이 1972년에 168,841표로 1970년보다 무려 261% 증가하였고, 국제 생사 가격도 당시 1파운드(약 445g)당 11\$에서 20\$까지 급격히 상승함으로써 우리 잠사업이 수출산업으로 성장에 큰 원동력이 되었다.

#### <일본의 국별 생사 수입동향(1970~1974)> (단위:표/60kg)

	1970	1971	1972	1973	1974
중 국	21,833	47,118	103,192	96,040	43,660

	1970	1971	1972	1973	1974
한 국	31,353	34,514	47,021	31,220	39,019
기 타	11,217	16,878	18,428	16,081	15,998
계	64,583	98,510	168,841	143,341	98,677
국내 생사생산량	336,650	325,822	322,929	314,894	330,419

### 2. 잠사류 수출동향

생사는 1965년 이전에는 주로 미국에 수출되었으나, 1964년 한·일 협정에 따른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와 경제의 급성장으로 생사소비 증가에 따라 일본이 생사 수입국으로 전환되면서, 1970년 이후 우리나라의 생사 수출시장이 일본으로 바뀌어 생사 수출의 대부분은 일본으로 수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74년 일본의 생사 수입규제 조치로 1976년부터 한·일 양국 정부 사이에 생사 회담을 통한 수출입물량을 합의 결정하는 쿼터제로 바뀌면서 1994년까지 매년 쿼터량을 결정해 왔다.

그러나 일본이 자국의 생사 재고 등을 이유로 쿼터 합의 결정 이후에도 수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1981년도와 1982년도 생사쿼터 합의량 일부를 견연사로 전환하여 수출함으로써, 대일본 생사 수출은 1984년부터 사실상 중단되었다. 이후 우즈베키스탄, 브라질, 중국 등 일본 외 지역으로 극히 소량이 수출되는 현상이 빚어진 것이다.

견연사는 1974년 이전까지는 주로 태국으로 수출되었으나, 일본의 수입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수출시장을 일본으로 전환함으로써, 1975년 일본에 대한 견연사 수출량이 2,686톤으로 1974년 74.6톤보다 무려 36배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일본이 생사와 함께 1976년부터 쿼터제로 수입을 규제하면서 1976년부터 1979년까지 매년 1,380톤 ~ 706.8톤, 1980년부터 2000년까지는 매년 360톤 ~ 585.4톤으로 쿼터제의 합의에 따라 어느 정도 수출은 유지되고 있었으나, 200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9년 이후부터는 거의 중단되었고, 베트남, 필리핀, 중국 등의 지역으로 극히 소량이 수출되었다.

#### <잠사류 수출실적> (단위 : 잠종 상자/천\$, 기타 톤/천\$)

	잠사류총계		생사		견연사		견방사		소계		가공수출		잠종		옥사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973	3,367	180,301	2,072	71,717	18	749	(764)	7,801	2,126	80,926	1,241	99,295	33	80	36	659
1975	5,364	240,462	6,791	20,764	2,691	88,607	(659)	5,031	3,372	114,431	1,992	125,558	100	473	2	29
1980	3,179	244,884	436	19,228	916	42,593	(312)	2,978	1,352	64,799	1,827	179,642	99,691	473	-	-
1985	3,026	252,492	-	-	632	25,007	(102)	1,980	632	26,987	2,827	219,045	60,000	522	-	-

연도	잠사류총계		생사		견연사		견방사		소계		가공수출		잠종		육사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990	4,811	514,498	18	580	396	27,036	(382)	5,115	414	32,731	4,197	480,310	96,000	1,457	-	-
1991	4,233	507,972	7	342	493	29,640	(318)	3,153	501	33,152	3,732	473,711	78,000	1,109	0.7	17
1992	5,267	579,473	9	231	612	34,588	(301)	3,050	621	37,831	4,646	540,489	72,000	1,103	0.3	12
1993	6,267	592,731	7	270	825	38,931	(865)	6,092	835	45,410	5,442	546,333	69,000	1,105	-	-
1994	5,496	526,291	7	130	565	23,052	(942)	9,421	575	32,649	4,921	492,987	42,000	655	3	46
1995	5,044	452,311	81	2,334	681	27,458	(983)	7,005	762	36,787	4,282	415,192	26,000	332	-	-
1996	695.3	27,886	---	---	695.3	27,886	---	---	695.3	27,886	---	---	---	---	---	---
1997	393.0	16,111	---	---	393.0	16,111	---	---	393.0	16,111	---	---	---	---	---	---
1998	205.8	7,025	---	---	205.8	7,025	---	---	205.8	7,025	---	---	---	---	---	---
1999	3,459	246,032	11.0	123	227.1	6,111	71.5	589	734	26,987	1,745	138,208	---	---	-	-
2000	4,611.0	513,041	1.8	46	193.5	5,617	5.7	59	796.0	32,731	1,838	145,233	-	-	-	-
2001	4,233	506,880	5.1	65	43.2	1,334	0.1	6	818.0	33,135	1,571	116,456	-	-	-	-
2002	5,267	578,332	0.6	4	83.7	2,080	2.1	91	922.0	37,869	1,416	110,250	-	-	-	-
2003	6,277	591,743	21.3	324	119.3	2,677	7.6	199	1,697.0	45,293	1,426	101,750	-	-	-	-
2004	5,496	525,682	7.2	121	119.7	3,088	4.3	119	1,514.0	32,603	1,709	125,294	-	-	-	-
2005	5,044	451,979	11.3	204	27.2	582	6.5	163	1,745.0	36,797	1,720	131,473	-	-	0.7	13
2006	369	54,170	49.2	1,500	41.9	1,588	6.5	216	21.0	415	1,294	105,815	-	-	0.6	17
2007	282.4	44,984	22.9	613	6.5	244	8.6	190	1.4	92.2	1,016	87,430	-	-	2.2	54
2008	224.2	40,287	24.3	617	5.7	202	5.7	182	6.2	398	1,118	108,715	-	-	0.1	2
2009	204.2	33,899	24.1	627	18.2	90	1.1	33	2.2	257	776	70,679	-	-	-	-
2010	853.4	86,016	25.3	983	29.8	197	0.3	1	55.4	1,181	795	84,763	-	-	3.0	72
2011	728.8	97,930	13.3	757	26.8	549	0.2	18	40.3	1,324	688	96,588	-	-	0.5	18
2012	679.0	91,567	-	-	6.0	423	-	-	6.0	423	673	91,144	-	-	-	-
2013	574.4	81,399	0.1	1	14.1	598	0.1	16	14.3	615	560	80,780	-	-	0.1	4
2014	495.4	73,452	-	-	11.2	533	2.2	23	13.4	556	482	72,896	-	-	-	-
2015	496.1	63,833	-	-	28.7	174	0.4	21	29.1	195	467	63,638	-	-	-	-
2016	369.0	54,170	1.8	91	19.1	317	0.1	7	21.0	415	348	53,755	-	-	-	-
2017	282.4	44,984	0.3	63	0.9	29	0.23	0.2	1.4	92	281	44,892	-	-	-	-
2018	224.2	40,287	2.5	148	3.6	156	0.1	94	6.2	398	218	39,889	-	-	-	-
2019	204.2	33,899	0.1	15	2.0	100	0.1	142	2.2	257	202	33,642	-	-	-	-

(자료 : 1. 1973~1995년 잠사회 80년사 189p, 1996년~2019년 한국생사수출입조합 제공)

- 주 : 1. 견방사류는 부잠사류가 포함 됨  
 2. 가공수출은 견직물, 견봉제품으로 생사로 환산됨  
 3. 잠사류 총계에는 견건을 생사로 환산한 것이 포함 됨  
 4. 1996년 이후 소량의 수출통계는 수입품 중 반송분과 생사의 경우 개성공단에서 견연사 가공을 위한 원료 반출된 것이 포함 됨.

### 3. 잠종수출

잠종 수출은 1967년에 인도에 2,850상자(4,800\$)를 처음 수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한국잠종협회가 적극적인 시장개척 활동을 전개하여 이란에는 1976년부터 1990년까지 매년 40,000~75,000상자를 수출하였고, 파키스탄으로 1976년부터 1985년 기간 중 (1983, 1984년 제외) 매년 100~18,930상자를, 태국에는 1977년에 8,000상자, 이후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연간 200~2,000상자 상당량을 수출하였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우리나라 잠종의 주 수입국이던 이란이 수입처를 수교국인 북한으로 전환하면서 이란에 대한 수출이 중단되었고,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시험용으로 일부 수출되기는 하였으나, 그 수출량은 아주 미미한 상황이었다. 무역통계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연간 4천\$에서 62천\$까지 수출되었으나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수출실적이 없으며, 2017년부터 2019년에는 아주 적은 수량이 시험용 등으로 수출되었다.

#### <잠종수출실적>

(단위: 상자, 천\$)

연도	이란		파키스탄		인도		태국		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976	75,000	420.0	1,500	9.0	2,153	15.3	-	-	78,653	444.3
1977	50,000	280.0	17,195	103.1	8,000	61.6	8,000	61.6	75,195	444.8
1978	50,000	280.0	18,930	113.6	-	-	-	-	68,930	393.6
1979	75,000	446.3	12,925	79.6	-	-	-	-	87,925	525.9
1980	60,500	384.0	7,955	50.7	-	-	-	-	68,455	434.7
1981	86,200	715.2	10,350	84.9	-	-	-	-	96,550	800.1
1982	86,500	618.6	1,155	10.4	-	-	-	-	87,655	629.0
1983	70,000	461.3	-	-	18,000	167.9	-	-	88,000	629.1
1984	60,000	522.3	-	-	-	-	-	-	60,000	522.3
1985	51,190	385.9	100	0.9	-	-	-	-	51,290	386.7
1986	65,000	688.4	-	-	-	-	200	1.8	65,200	690.2
1987	40,000	499.5	-	-	-	-	2,000	18.0	42,000	517.5
1988	40,000	604.2	-	-	-	-	-	-	54,919	751.5
1989	66,300	956.2	-	-	-	-	1,000	15.0	73,530	1,067.8
1990	75,000	1,158.5	-	-	-	-	360	5.4	95,516	1,456.8

### 4. 상묘수출

상묘는 실생묘(實生苗)와 접목묘(接木苗) 형태로 수출되었다. 1967년 11월 30일 1,000본 1,500\$에 처음으로 태국에 수출을 시작으로 일본에는 1967년부터 1977년까지 12,570천 주

를 227천\$에 수출하였으며, 1968년에는 연간 실생묘 8,000천주, 접목묘 1,610천주가 수출되었다. 1977년 이후 상묘 수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무역통계에 2005년 82\$, 2006년 38\$, 2007년 38\$, 2019년 7\$의 수출실적이 기록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험용 등으로 극히 적은 양이 수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묘 수출실적> (단위: 천주, \$) ( )는 실생묘임

	일본		태국		이태리		네 팔		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967	1,500	73,500	(10) 10	1,500	-	-	-	-	(10) 1,510	75,000
1968	(8,000) 9,610	97,970	-	-	300	6,000	-	-	(8,000) 9,910	103,870
1969	-	-	-	-	-	-	-	-	-	-
1970	(200) 200	2,240	-	-	-	-	-	-	(200) 200	2,240
1971	1,000	25,000	-	-	-	-	-	-	1,000	25,000
1972	-	-	-	-	-	-	-	-	-	-
1973	-	-	-	-	-	-	-	-	-	-
1974	-	-	-	-	-	-	10	-	10	기증
1975	-	-	-	-	-	-	-	-	-	-
1976	100	9,000	-	-	-	-	-	-	100	9,000
1977	150	18,797	-	-	-	-	-	-	150	18,797

## 5. 기능성 양잠산물 수출

잠사업이 1990년대 들어 급격히 쇠퇴하고, 양잠의 목적도 생사 등 잠사류 생산보다는 누에가루 또는 환 및 동충하초(冬蟲夏草) 등 기능성 양잠산물 생산으로 전환되면서, 1999년 잠업법이 폐지되었고, 이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9년 4월 제정되었으며, 11월 대통령령으로 시행되었다.

기능성 양잠산물 수출은 미미한 단계이나, 2019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수출됨으로써 친환경 건강식품으로 수출전망은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9. 기능성 양잠산물 수출실적> (단위: kg, 천원)

	미국		일본		캄보디아		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오디즙	126	2,016	-	-	-	-	126	2,016
오디잼	1,010	3,840	-	-	-	-	1,010	3,840

	미국		일본		캄보디아		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누에가루	-	-	105	15,708	-	-	105	15,708
누에환	500	2,6250	-	-	-	-	500	26,250
뽕잎가루	-	-	-	-	50	460	50	460
계	1,636	32,106	105	15,708	50	460	1,791	48,274

(자료: 산청군양잠협동조합 제공)

[김한수]

## 6. 잠사기계 세계 20여개 국가 수출

### 가. 고급실크는 좋은 제사기계(製絲機械)에서 생산

잠사업은 상묘, 잠종, 양잠, 제사의 네 바퀴가 균형 있게 잘 돌아가야 발전된다는 평범한 상식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으나, 이 네 바퀴를 갖춘 나라는 세계에서 몇 나라 안된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적극 지원으로 잠사 선진국이자 일본과 버금가는 잠사기계 수출국이다. 고급실크는 누에고치 특성에 맞는 섬세하고 고도의 정밀제사기계만 생산 가능하다.

### 나. Bangladesh 에 제사기계 국제입찰

방글라데시 정부가 아시아 개발은행(ADB) 자금으로 새로운 제사공장을 설립국제입찰 공고가 발표되었다. 우리나라 기업농의 신규 제사공장 설립 이후 수출만이 살길이라 결심하고 방글라데시로 향했다. 현지에 도착하니 어떻게 하여 좋은 생사가 만들어지는지를 전혀 모르고 최신 자동조사기만 설치하면 다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현지 원료 견과 기타 모든 조건이 전혀 좋은 Silk는커녕 가동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현지 담당자에게 이곳의 누에고치, 제사용수 등 조건에서는 한국에서 새로 개발된 다조조사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돌아와 입찰청 담당자에게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거의 일본 자동조사기로 결정될 것을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그 뒤 두 차례 더 방문한 후 추가설명도 하여 마침내 한국형 다조조사기를 수출하게 되는 쾌거를 올렸다.

### 다. 인도에서 세계은행(IBRD) 자금으로 Silk Plant 국제입찰

방글라데시 사업을 진행하는 중, 인도 중남부에 위치한 K. State에서 새 제사공장 설립의 국제입찰이 시작되었다. 인도는 10억 인구의 반이 여성이고 여성의 반이 “Silk샤리”를 입는

나라로 실크 소비가 대단하다. 시집을 때 혼수의 척도가 “Silk샤리”일 정도이다. 그러나 인도의 잠품종은 다화성이고 열대성 기후의 양잠이라 고치의 질이 좋지 않으니 좋은 Silk 생산이 어려워 동력직기보다 수직기로 샤리를 생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 정부는 잠품종 개량과 고급 Silk 생산을 위해 최신 자동조사기를 수입하려고 입찰공고 한 것이다.

### 1) 일본과의 한판승부

입찰청에 가보니 일본 M상사는 이미 Sample 기계까지 무상 제공하여 제사공장에서 시 운전 중이었다. 그곳을 찾아가 일본 기계를 확인하고 입찰청에 한국에서도 무상으로 Sample 기계를 한 달 내에 보내겠으니 양쪽 기계로 시험을 충분히 해본 후 어느 쪽이든 기계를 선정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한하여 응낙을 받았다. 한국에 돌아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모두 한마음이 되어 한 달 만에 Sample 기계를 선적하고 두 달이 지나 Sample 기계가 공장에 도착하였다.

### 2) 비교시험 끝에 인도에서 Silk Plant 낙찰

비교시험은 이 나라 잠업시험장에서 3명이 외부사람은 일체접근을 금지시키고 공정하게 행할 것이며 그 결과는 추후 발표한다고 한다. 이후 우리 기계 성능이 일본보다 좋았다는 전갈이었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은후에 어려운 인도시장에서 처음으로 그 큰 Project를 수출하게 되었다. - 근잠회 발행, “비단길 30년” p.82 비단길 따라 삼만리(全熙煥) 발체 요약 -

[채대석]

## 제6절 잠업 관계기관의 변천

### 1. 농림부 잠업과

우리나라 전통산업으로 잠사업은 역대 왕들에 의해 국가적으로 권장되었고 왕실도 왕비가 누에치기 시범을 보이는 등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근대에까지 이어져 왔다.

1960년대에는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 1970년대에는 누에고치를 사상 최고인 4만2천톤까지 생산, 농가 주요 소득원이자 외화획득에 앞장서는 수출산업으로 농촌을 부흥시

키고 국가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따라서 다른 산업보다 먼저 잠사관계기관과 연구소가 설립되었으며 발전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농촌의 구조적 변화와 중국의 세계시장 진출 등 급격한 국제 정세의 변화로 잠사업이 점차 쇠퇴하면서 1994년도 누에고치 생산량은 1,000톤 선이 무너지고 2001년에는 2톤에 불과한 상황에 따라 정부의 잠사관련 기구도 축소 또는 폐지되었다.

농림부 잠업과의 변천을 보면 다음과 같다.



농상공부청사 (1910)

### 조선시대

1884 : 농상공사(農桑公司)설치(고종 21년)

### 대한제국

1900. 11. : 궁내부 잠업과시험장(蠶業課試驗場)설치(광무 4년)

1910 ~ 1945 : 조선총독부 식산국 농무과

### 미국 군정청

1946. 3. 29. : 농무부 농정국 잠사과

### 대한민국

1948. 11. 4. : 농무부 농정국 잠정과(3계)

1950. 3. 31. : 농무부 농정국 잠업과(3계)

1962. 6. 29. : 농림부 농업생산국 잠업과(3계)

1963. 12. 6. : 농림부 농정차관보 농업생산국 잠업과(3계)(각도 1명씩 8명 잠사류 생산비 조사원 주재근무)

1965. 2. 15. : 농림부 농정차관보 농업생산국 잠업과(3계)(각도 2명씩 16명 잠사류 생산비 조사원 주재근무)

1965. 3. 12. : 5개도에 잠업과 설치 (잠정계, 재상계, 잠사계 =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 1966년도에 경기, 충남, 전남도 3개도 설치

1966. 2. 5. : 농림부 농정차관보 농업생산국 잠업과(4계)

<잠정계, 양잠계, 견사계, 재상계(신설)> (각도 16명 주재근무)

1971. 11. 22. : 농림부 차관보 농업개발관실 잠업담당관실 (4계 21명)

(각도 16명 주재근무, 전국 잠업지도원 971명)

1973. 1. 16. : 농수산부 식산차관보 농특사업국 잠업과(4계 20명)



1976. 12. 31. : 농수산부 식산차관보 잠사원예국 잠업과(4계 18명)  
 1978. 4. 12. : 농수산부 식산차관보 농특사업국 잠업과(4계 15명)  
 1981. 11. 2. : 농수산부 제2차관보 특작국 잠업과(4계 15명)  
 1982. 7. 1. : 농수산부 제2차관보 특작국 잠업과(3계 13명)  
 1986. 5. 31. : 농수산부 제1차관보 농산국 잠업과(3계 13명)  
 1987. 1. 1. : 농림수산부 제1차관보 농산국 잠업과(3계 13명)  
 1990. 3. 20. : 농림수산부 제1차관보 농산국 잠업특작과(4계 14명)  
 1994. 12. 23. : 농림수산부 식산차관보 원예특작국 원예특작과 잠업계(3명)  
 1998. 3. 21. : 농림부 농산원예국 과수화훼과 잠업계(3명)  
 1999. 2. 22.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과수화훼과 화훼유통계(잠업)  
 - '비단길 30년사(근잠회)' 인용 -  
 2001. 2. 1. : 농산물유통국 과수화훼과 화훼유통계(잠업)  
 2007. 11. 3. : 농산물식품산업국 과수화훼과 화훼유통계(잠업)  
 2008. 3. 3. : 유통정책관 과수화훼팀 화훼유통계(잠업)  
 2009. 4. 30. : 식량원예정책관 과수화훼과 화훼유통계(잠업)  
 2011. 6. 15. : 녹색성장정책관 종자생명산업과(잠업)  
 2013. 3. 23. : 소비정책관 종자생명산업과(잠업)  
 2015. 1. 6. : 창조농식품정책관 종자생명산업과(잠업)  
 2018. 1. 1. : 농업생명정책관 종자생명산업과(잠업)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실 제공 -

## 2. 국립생사검사소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생사 통제를 위해 조선총독부는 1942년 생사검사소를 설치하였다. 1945년 8.15광복 이후 1947년 국립견사검사장, 1949년 중앙생사검사소, 1961년 국립생사검사소로 확대 개편되었다. 이후 누에고치 생산과 생사류 수출이 확대 추세에 따라 1967년 11월 23일, 검사기관 1개소 증설하여 국립서울생사검사소는 경기도, 충남북도 소재 제사공장에서 생산한 생사를 검사하였으며 강원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소재 제사공장의 생사는 국립부산생사검사소에서 검사를 담당하였다.

## 3. 국립잠종장

잠업진흥 시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잠업시험장에서 담당하던 연구사업과 원원잠종 생산사업을 분리하고자 1973년 7월 대통령령에 따라 '국립잠종장' 직제가 공포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농촌진흥청 잠업시험장 소속 잠종생산과가 분리되어 1973년 9월 26일자로 국립잠종장이 독립된 기관으로 발족되었다.

## 4. 국립잠사소

1990년 3월 20일 정부의 기관통합 방침에 따라 국립생사검사소와 국립잠종장을 통합되어 국립잠사소가 설립되었다. 본소에는 사무과, 생사검사과, 잠종과를 두었고, 하부조직으로는 구 국립잠종장을 잠종관리소로, 구 국립생사검사소 부산지소는 국립잠사소 부산지소로 개편 운영되었다. 이후 국립잠사소는 1994년 12월 23일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장려 잠(蠶)품종인 원원잠종(原原蠶種)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업무는 잠업시험장으로, 생사검사업무는 국립농산물검사소로 분리되어 이관되었다. 이후 잠종과 업무는 농촌진흥청으로 이관되었고, 생사과 업무는 농산물검사소로 이관되었다.



농촌진흥청-국립잠종장 (1973)

## 5. 잠업시험장

1900년 11월 농상공부 잠업시험장이 설치되었다. 이후 1905년 서강(西江)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능이 상실되었다. 그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훈령으로 1913년 3월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이 용산에 설치되었고 원잠종(原蠶種)제조소는 수원에 설치하여 잠업기술자 양성을 수행하였다. 이후 1917년 6월 조선총독부 훈령에 따라 원잠종(原蠶種)제조소를 잠업시험소로 개편하여 잠업연구사업이 본격화되었다. 그 후 잠업시험소는 1929년 1월 조선총독부 훈령에 따라 농사시험장 잠사부로 개편되었다. 일제강점기 이후 명칭이 그대로 유지되었던 잠업시험소는 1962년 4월 「농촌진흥법」 따라 농촌진흥청 잠업시험장으로 개편되었다.



농사원중앙잠업시험장 (1957)

## 제7절 잠업 관계법규의 변천

### 1. 잠업법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초창기인 1961년 12월 27일 법률 제 883호로 공포된 잠업법은 전문(全文) 31조 부칙 4개항으로 구성되었다. 부칙 '제2항에 단기 4264년 제령(制令) 제10호 조선잠업령, 단기 4268년 제령 제11호 조선제사업령(朝鮮製絲業令)과 단기 4280년 군정법령 제133호 견사법은 이를 폐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일제강점기와 군정기의 법령들을 폐지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잠업관계 대종(大宗)법률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잠업법의 개요는 잠사업의 개량발전과 그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잠종의 제조 및 검사 등 잠종관계, 누에고치의 검사, 양잠농가에 식상장려금 또는 양잠장려금 교부, 제사업 면허, 생사검사 등에 관한 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잠업법은 1차 개정 이후, 1976년 12월 31일 대폭 개정되면서, 그동안 농수산물수출진흥법 규정에 따라 운영해 오던 잠업진흥기금의 적립, 보전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잠업법에 규정토록 개정함으로써 이렇게 개정된 잠업법에 따라 잠업진흥기금이 적립 및 운용·관리 되어왔다. 잠업법이 제정된 이후 9번의 개정을 통해서 잠사업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 잠사업이 급격히 쇠퇴(양잠농가 4,200호, 제사업체 1개)하고, 양잠의 목적도 식·의약품 생산을 위한 기능성양잠으로 전환되어, 잠업법 존속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잠업법은 1999년 1월 21일 법률 제5666호로 폐지되었다.

### 2. 잠업진흥기금 관련 법령의 변천

#### 가. 잠사가격안정기금법

양잠농가의 경제향상과 생사수출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잠사가격안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제 판매가격(수출가격)이 정부 기준에 따른 가격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1/2을 적립 또는 보상하고, 잠사류 가격 결정을 잠업진흥심의회를 거쳐도록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1963년 5월 14일 '잠사가격안정기금법'이 제정되었으나, 1971년 1월 19일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흡수 폐지되었다.

#### 나. 농수산물수출진흥법

농수산물의 생산·수집·가공 및 수출체제를 계열화하여 안정된 수출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수출진흥과 농어민 소득증대 기여를 목적으로, 농수산물의 생산·수집·가공 및 수출에 있어서 실손이 발생했을 경우 이의 보상 등 효율적인 금융지원을 위하여 수출진흥기금을 조성, 수출결손보상과 생산장려금 지급 및 비축, 기타 소요 자금을 지급하고, 이윤이 좋은 지정품목 수출 이익금의 1/2 이내를 적립하고 기금관리자를 감사회 등 단체로 한다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이 제정되어 1971년 1월 19일 시행되었다.

### 3. 기능성 양잠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잠사업을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62년부터 1976년까지 3차에 걸친 잠업증산 5개년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에 따라 1970년대 중반에는 양잠농가 50만호, 뽕밭면적 83,000ha, 누에고치 생산 42,000톤, 잠사류수출액 270백만\$을 달성으로 잠사업의 최성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경제개발 5개년계획 추진으로 1차산업에서 2차산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1974년 이후 일본의 생사 수입규제, 국제경쟁력 약화 등으로 잠업기반은 급격히 쇠퇴하여 1997년 양잠농가는 4,000호, 뽕밭면적은 1,700ha로 급격히 감소하고 양잠의 목적도 잠사류 생산보다는 기능성식품 생산으로 전환됨에 따라 잠업법 존속의 필요성이 없어져 1999년 1월 21일 잠업법이 폐지되었다.



한편 농촌진흥청 잠사곤충부의 연구개발에 따라 뽕잎차, 누에가루, 누에동충하초 등 양잠산물이 건강식품으로 개발됨으로써 누에고치를 생산하는 것보다 소득이 월등히 높고, 식품위생법상 식품원료로 인정되었다.

기능성 양잠산물 생산에 따른 누에사육량이 확대되면서 양잠산업을 건강기능성 소재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소득증대와 친환경산업으로 육성하여 양잠농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양잠기반 정착을 위한 '기능성 양잠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9년 4월 29일 제282회 국회 본회의 투표결과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법률 제 9726호로 제정되었고, '기능성 양잠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1822호로 2009년 11월 28일 공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정

「농산물검사법」은 농산물에 대한 국가에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개선을 촉구하여 공정하고 원활한 거래와 소비의 합리화를 기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 목적으로 1949년 8월 13일 법률 제49호로 공포되었다.

이 법에서 누에고치 육안검사는 농산물검사소장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나, 1999년 7월 31일자로 농산물검사법이 폐지되고,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유도로서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1999년 8월 1일 시행됨으로써, 국립잠사소가 관장하던 생사검사, 누에씨(잠종) 검사업무가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되었으나, 2013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누에고치, 누에씨, 생사검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다.

### 제8절 잠업진흥기금의 조성과 운용

#### 1. 잠업진흥기금 조성 배경

5.16혁명 당시인 1961년에는 국제 생사 가격이 폭등하여 제사공장이 크게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이 정보를 접한 장경순 제18대 농림부장관(1961.5.~1963.6.)이 당시 농림부 윤창진 잠업과장을 불러 “전국의 제사공장들이 지금 막대한 폭리를 보고 있으니 당장 환수조치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계엄 상황이라고 하지만 무역행위로 생긴 이득을 강제 환수할 수 없으므로, 국제 생사시세는 4년을 주기로 등락을 반복하고 고치가격은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그 후 국제가격이 오르거나 반대로 떨어지는 위험 부담은 제사공장이 부담하도록 되어있다”라고 설명을 하였다. 이에 장관은 “어떻던 많은 이익이 났으니 환수하는 법안을 즉각 작성하라”는 지시에 따라 ‘잠사가격안정기금법’ 제정이 추진되어 잠업진흥기금을 조성,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잠사가격안정기금법’이 국가재건최고회의를 통과함으로써 1963년 5월 14일 법률 제1342호로 공포되었다.

\* ‘비단길 30년’(근잠회) 고(故) 윤창진 고문님 기고문에서 인용

#### 2. 잠업진흥기금 적립과정 및 관련 법령의 변천

1963년 5월 14일 잠사가격안정기금법이 공포되고 동법 하위 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인 1963년 11월 4일, ‘잠사가격안정기금적립요령’(적용기간:1963.7.1.~1964.6.30.)이 시달되어 기금을 적립하게 되었다.

1963년 12월 23일에 시달된 ‘제사공장 조사시설 증설허가 사무 취급지시’에 따라 제사공장 증설장려금을 적립하였다. 1971년 2월 18일 ‘농수산물수출진흥법’ 시행으로 잠사가격안정기금법이 폐지되어 1977년 2월까지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을 근거로 잠업진흥기금이 적립되고 수출결손액을 보상하였다. 이후 1977년 3월 1일, 잠업법 개정으로 잠업법에 ‘잠업진흥기금’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1994년 3월 30일자 농수산부의 ‘내수용생사추천업무세부시행지침’(잠특51236-119)이 시달되어 잠업진흥기금을 적립해왔다. 그러나 1997년 11월 23일 잠업법이 개정되어 잠업진흥기금 관련규정을 모두 폐지하고 부칙 경과 조치에서 ‘잠업진흥기금계정’을 ‘잠업사업자금계정’으로 개정, 1998년 2월 23일부터 기금의 적립 및 보상 관련 업무를 대한잠사회가 전담 운영해 오고 있다.

#### 3. 잠업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 가. 잠업진흥기금 조성

##### 1) 생사판매가격과 생사기준가격 차액 기금적립

잠사가격안정기금법이 공포 시행에 이어 동법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야 하나 당시 사정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잠정적으로 1963년 11월 4일, ‘안정기금적립요령’(농생잠 1123.41-1377호)을 시달하여 생사판매가격과 기준가격과의 차액을 적립하도록 운영하다가, 이후 하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생사수출(내수 포함) 가격이 정부가 고시한 생사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의 1/2을 적립하고 미달될 경우 보상하도록 하였다.

##### 2) 제사공장 조사(繰絲) 시설 증설 인가 관련 기금적립

1963년 당시 26개 제사업체 총 조사기 대수가 3,563대였으나 5,419대로 증설하여 총 8,982대로 인가 하면서 ‘제사공장 조사(繰絲) 시설 증설인가 사무취급지시’(農生蠶1123-63호:1963.12.3)에 의거 신규업자는 다조조사기(多條繰絲機:20緒分) 1대당 81,000원, 기존

업자는 32,400원에서 72,900원(규모가 클수록 금액이 많아짐)을 1964년부터 1966년까지 장려금 명목으로 2억 7천만원의 기금을 적립하였다.

### 3) 내수용 수입 생사판매가격과 국내 생사가격 차액 적립

그동안 내수용 생사는 국내 잠사업 보호를 위해 수입을 제한해 왔으나 위장생사 수입 적발, 대일 견연사 수출재개와 더불어, 누에고치 생산량 감소로 국산 생사공급이 수요를 충당하지 못함으로써, 국산 생사 가격이 중국산 보다 2배가 되어도 국산 생사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자 국내 견직업계는 정부(농림수산부, 상공자원부)와 잠사업계에 내수용 생사 수입허용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생사수출조합(현 한국생사수출입조합)과 진주직물공업협동조합(현 경남진주직물공업협동조합)이 원활한 생사공급을 위해 내수 견직물용 생사를 국산 생사 판매가격과 수입생사가격(제비용 포함)과의 차액을 '내수용 생사 수입추천 세부지침'에 따라 잠업진흥기금에 적립키로 합의함으로써 한국생사수출조합이 1987~1989, 1994~1997년 내수용 생사 수입·공급을 통해 잠업진흥기금을 적립해왔으나, 1997년 7월 1일 무역자유화에 따라 생사 수입에 의한 기금적립은 이후 운영되지 않았다.

### 4)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

일본의 수입규제와 더불어 생사판매가격 하락 등으로 제사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자력으로는 누에고치 수매가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게 되자, 잠사업진흥을 위해 정부가 잠업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는 잠업법 규정을 들어 농림수산부 관계관, 업계가 혼연일체가 되어 국회와 예산 당국을 설득 이해시킴으로써, 정부가 1988년부터 1996년까지 9년간 총 184억 6천 1백만원을 출연하였으나, 1997년 이후 잠사업기반 위축과 더불어 정부의 잠업기금 출연은 없었다. 1997년 잠업법 폐지과정 당시 정부가 국가 예산으로 잠업진흥기금에 출연해왔다는 이유로 잔액 107억 원을 국고 환수하려 하였으나, 당시 잠업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국고 환수되지 않고 잠업진흥기금을 현 대한잠사회의 잠업사업자금계정으로 남게 되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나. 잠업진흥기금 운용

### 1) 잠업진흥기금 운용기관

잠업진흥기금은 1997년 11월 잠업법 개정 전까지는 기금관리자로 지정된 대한잠사회가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아 운용해 왔으나, 잠업법 개정으로 잠업진흥기금 관련규정이 모두 삭제되어 잠업진흥기금 계정이 '잠업사업자금계정'으로 바뀐에 따라 1998년 2월 23일부터 잠업사업자금 107억원이 민간단체인 대한잠사회로 이관되어 운용하고 있다.

### 2) 잠업진흥기금 조성액

1963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 출연금(1988~1996) 184억 6천 1백만원(총 조성액의 21%), 생사판매가격에 의한 적립금 376억 5천 3백만원(42%), 운용수익금 등 327억 6천만원(37%), 총 888억 7천 4백만원이 조성되었다. 연도별 적립금 규모를 보면 생사류 수출액이 연간 26~114백만US\$이었던 1973년부터 1981년까지 총 279억 7천만원, 1987~1989년, 1994~1997년 내수용 생사 수입에 의해 78억 6천 8백만원이 적립되었으나, 이후 1998년부터는 적립금은 없고, 융자금 및 예금이자 등 운용수익금으로 1979년부터 1983년 기간 중에는 연간 10억 9천 6백만원 ~ 42억 4천 6백만원이 조성되었으나, 1984년부터 감소하여 2000년 5억 1천 4백만원, 2010년 1억 2천 2백만원, 2017년 4천 5백만원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잠업진흥기금 운용기간 55년 중 30년은 사용액이 조성액보다 많아 순조성액이 감소하였다.

### 3) 잠업진흥기금 사용액

1963년부터 2017년까지 잠업진흥기금 사용액은 누에고치 증산을 위한 견가지지 등 양잠농가 지원에 총 사용액 858억 2천8백만원 중 총사용액의 62%인 534억 7천 1백만원, 수출결손 보상 등 수출장려금으로 총 사용액의 19%인 166억 5천 1백만원, 기금관리비 등으로 총사용액의 18%인 157억 6백만원이 사용되었다.

연도별로는 누에고치 생산의욕 고취를 위한 잠업진흥기금으로 생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1978년부터 1988년 까지(1984년 제외) 매년 누에고치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견가지지 등 농가직접 지원금으로 1963년부터 2017년까지 338억 8천 4백만원(농가지원 총액 534억 7천 1백만원의 63%)이 사용되었고, 수출장려금 및 손실보상금은 일본의 생사류 수입규제가 시작된 1974년부터 1982년까지 73억 1천 4백만원(총 수출장려금 및 손실보상금 총액 166억 5천 1백만원의 44%)이 사용되었다.

&lt;연도별 잠업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gt; (단위:백만원)

	조성액(A)				사용액(B)				순조성액(A-B)	
	국 고 보조금	적립	운 용 수입 등	계	건가지지 등 농가지원	수출장려 및 손실보상	기금관리 등	계	당년	누계
1963										
1964	-	151	7	158	-	-	-	0	158	165
1965	-	53	27	80	-	-	1	1	79	244
1966	-	233	101	334	21	12	2	35	299	543
1967	-	192	215	407	25	6	8	39	368	911
1968	-	195	220	415	51	3	14	68	347	1,258
1969	-	72	298	370	33	504	23	560	△190	1,068
1970	-	106	147	253	14	204	28	246	7	1,075
1971	-	204	161	365	53	21	35	109	256	1,331
1972	-	72	118	190	28	-	50	78	112	1,443
1973	-	2,290	171	2,461	-	-	29	29	2,432	3,875
1974	-	1,476	564	2,040	273	2,061	38	2,372	△332	3,543
1975	-	2,420	587	3,007	1,227	854	21	2,102	905	4,448
1976	-	613	477	1,090	716	163	20	899	191	4,639
1977	-	2,036	782	2,818	675	281	16	972	1,846	6,485
1978	-	3,485	988	4,473	3,822	732	21	4,575	△102	6,383
1979	-	9,548	1,724	11,272	6,435	885	41	7,361	3,911	10,294
1980	-	3,733	1,882	5,615	3,334	647	129	4,110	1,505	11,799
1981	-	2,269	4,246	6,515	4,032	1,338	151	5,521	994	12,793
1982	-	219	3,465	3,684	3,359	352	129	3,840	△156	12,637
1983	-	155	1,096	1,251	2,174	-	106	2,280	△1,029	11,608
1984	-	255	911	1,166	1,781	-	135	1,916	△750	1,0858
1985	-	-	880	880	1,339	-	136	1,475	△595	10,263
1986	-	-	761	761	1,626	-	129	1,755	△994	9,269
1987	-	703	444	1,147	2,844	-	1,110	3,954	△2,807	6,462
1988	2,000	3,262	393	5,655	3,138	-	214	3,352	2,303	8,765
1989	2,000	541	723	3,264	1,944	-	286	2,230	1,034	9,799
1990	1,500	1	929	2,430	2,715	-	263	2,978	△548	9,251
1991	2,000	-	1,330	3,330	3,015	1,700	364	5,079	△1,749	7,502
1992	2,500	-	653	3,153	2,976	1,617	345	4,938	△1,785	5,717
1993	2,961	-	426	3,387	2,124	2,102	345	4,571	42	4,533
1994	3,000	629	508	4,137	1,083	2,862	150	4,095	2,493	4,575
1995	1,500	1,367	649	3,516	462	307	254	1,023	2,504	7,068
1996	1,000	1,198	713	2,911	153	-	254	407	676	9,572
1997	-	168	960	1,128	88	-	253	341	111	10,359
1998	-	-	768	768	110	-	225	335	433	1,0792
1999	-	-	744	744	473	-	327	800	△56	1,0736
2000	-	-	514	514	348	-	376	724	△210	10,526
2001	-	-	470	470	331	-	680	1,011	△541	9,985
2002	-	-	598	598	349	-	368	717	△208	9,777
2003	-	-	384	384	300	-	478	778	△394	9,383
2004	-	-	298	298	-	-	760	760	△462	8,921

	조성액(A)				사용액(B)				순조성액(A-B)	
	국 고 보조금	적립	운 용 수입 등	계	건가지지 등 농가지원	수출장려 및 손실보상	기금관리 등	계	당년	누계
2005	-	-	246	246	-	-	1,101	1,101	△855	8,066
2006	-	-	192	192	-	-	1,923	1,923	△1,731	6,335
2007	-	-	152	152	-	-	727	727	△575	5,760
2008	-	-	118	118	-	-	211	211	△ 93	5,667
2009	-	-	104	104	-	-	400	400	△296	5,371
2010	-	-	122	122	-	-	450	450	△328	5,043
2011	-	-	86	86	-	-	300	300	△214	4,829
2012	-	-	92	92	-	-	-	0	92	4,921
2013	-	-	98	98	-	-	300	300	△202	4,719
2014	-	-	95	95	-	-	600	600	△505	4,214
2015	-	-	90	90	-	-	1,250	1,250	△1,160	3,054
2016	-	-	77	77	-	-	130	130	△53	3,001
2017	-	-	45	45	-	-	-	0	45	3,046
2018	-	-	51	51	-	-	50	50	1	3,047
2019	-	-	53	53	-	-	50	50	3	3,050
계	18,461	37,653	32,864	88,978	53,471	16,651	15,806	85,928	3,050	3,050

## 제9절 한·일 생사류 회담과 국제활동

## 1. 한·일 생사류 회담

## 가. 한·일 생사류 회담 개최 배경

일본은 생사, 견연사, 견직물 등 생사류 세계 최대 수입(소비)국으로 한국, 중국 등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생사류를 수입해 왔다. 그러나 1973년 10월 6일부터 시작된 중동 전쟁(아랍,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한 제1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는 침체되고, 일본 전통의상인 기모노(着物)에 대해 단카이(團塊) 세대를



한·일 생사류회담 개최 (1971)

중심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생사 소비가 감소하여 생사 재고가 증가하자, 자국의 잠사업 보호 명목으로 생사류 수입방식을 수출국 자율규제(seller's

quota제)에서 사전수입허가제(buyer's quota제)로 전환하여 수입을 규제함으로써 양국의 생사류 교역이 교착상태에 빠져들었다.

한국정부는 교착상태를 조기에 정상화 시키기 위하여 1974년 12월 19일 한·일 생사 실무 회담 당시 제의한 생사류 교역문제를 별도로 협의하기 위한 생사 연례회담 개최에 대하여 외교 경로를 통하여 계속 협의를 구체화 시켜 나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1976년 2월 8일부터 2월 9일까지 한·일생사류회담의 전신인 1차 한·일 섬유회담(생사, 견연사, 견직물)이 서울에서, 1976년 3월 4일부터 3일간, 2차 한·일 섬유회담이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어, 한국 측은 일본 측의 생사 및 견연사의 수입규제가 부당하므로 수입규제를 즉각 해제할 것과 1975년의 생사, 견직물 등의 대일수출 2억5천만 달러(생사 15, 견연사 84, 견직물 150백만 달러) 정도 계속 유지를 주장하였으나, 일본 측은 정치적 이유를 들어 생사뿐 아니라 견연사, 쓰무기(紬:견주사로 짠 견직물), 홉치기 등 견제품 전반에 걸쳐서 한국의 자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주장, 수출물량을 1975년 보다 대폭 축소를 요청함으로써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 나. 최초의 한·일 생사류 회담

이처럼 양국 간에 합의를 보지 못했던 생사 쿼터가 1976년 4월 7일~10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한·일 생사류 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로써 그동안 양국 간에 현안이 되었던 생사류 교역문제에 종지부를 찍고 생사류 교역이 정상화되었다. 합의 내용은

- ① 생사, 견연사 대일 수출량은 1976년 4월 1일 ~ 12월 31일까지는 32,600표(1,956톤) 1977년 3월 31일까지 1년간은 42,700표(2,562톤)로 하며
- ② 견직물 대일 수출량은 1976년 4월 1일부터 1977년 3월 31일까지 1년간 1975년도 대일 수출 수준인 12,466천㎡(약 39,000표)로 합의 하였고
- ③ 이들 품목의 무역방식을 생사는 1975년도와 같이 일본의 잠사사업단에 의한 소위 일원화 수입을 통한 국별 수입량을 배정, 입찰방식에 의해 수입키로 하였고, 견연사와 견직물은 합의된 수량 범위 내에서 한국이 1년 동안 자율규제 방식으로 수출량을 조절, 매일 수출하도록 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일본은 1976년 5월 7일 한국산 생사 6,000표를 포함, 외국산 생사 23,000표를 수입 공고하여 수입을 재개하였으며, 한·일 간에 생사 쿼터량 등 교역문제 합의에 따라 일본, 중국 간에도 1976년 5월 25일 쿼터량 합의가 이루어졌다.

#### 다. 한·일 생사류 회담 개최 상황

한·일 생사류 회담은 양국정부 간 회담 없이 외교경로를 통해 쿼터량을 결정한 2003년~2004년을 제외하고, 1976년부터 2002년까지 27년간 총 45회, 연 평균 1.7회 개최되었다.

그러나 양국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는 1년에 3~4회나 개최되는 상황 등으로 살펴보면 이는 양측의 쿼터 협상이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이 증명된다.

정해진 쿼터는 당해 쿼터기간(당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내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일본 측이 수입규제를 위해 회담 시기와 합의를 지연시킴으로써 쿼터 기간 내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여러 차례나 쿼터 기간이 지나 합의 되거나 종료 바로 직전에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합의 후 이행이 원활하지 못했다. 회담은 서울과 동경을 오가면서 개최되었는데 27년분 쿼터 중 서울회담에서 합의한 것은 10여 차례에 불과하고, 대부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일본 측이 자국 내 여론을 의식해서 동경에서 합의를 유도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과 같이 한국 측은 많은 물량의 쿼터를 확보하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일본 측의 생사 수요 감소로 쿼터 합의 후에도 수입을 지연시키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급격한 누에고치 생산량 감소가 생사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사전에 합의한 생사 쿼터량 일부를 견연사로 전환해왔으나 1995년부터는 견연사와 견직물만 합의해왔다.

2003년~2004년 외교 경로를 통한 쿼터량 결정 시에도, 일본 측은 2003년 쿼터량은 일·중 간 협정된 물량에 한하여 전년 대비 3.8%가 증가한 10,828표로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한국 측은 2002년 6월 24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한·일 생사류 회담에서 우리 측의 견연사 생산능력을 감안 2002년부터 섬유류 쿼터제가 끝나는 2004년까지 3년간 하한선으로 일정량이 소진하도록 합의하였으나 한국에서의 수입 이행은 하지 않고 베트남, 브라질 등에서의 수입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등 일본 측의 한국산 견연사 수입 이행이 불투명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수입이행 방안을 제시하여 줄 것을 외교 경로를 통해 강력히 요청하였다. 또한, 2005년 한·일 간 쿼터 제도의 종료를 앞두고 일본 측이 2003년도 견제품 쿼터량을 WTO/TMB(섬유·섬유제품 감시기관) 조기에 통보코자 한다는 일본 측의 견에 대해, 일본 측이 2002년도 최소수입 의무량의 수입이행도 극히 저조하였고 2003년에도 현재의 수입추세로 보아 연간 3,500표의 수입이행이 불가능할 것이 예상되므로 WTO/TMB에 2003년도 견 제품 쿼터량을 통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외교 경로를 통해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진행되어온 한국과 일본 간의 생사류 회담은 WTO/TMB 규정에 따라 2004년에 막을 내렸으나, 한·일 양국의 잠사업기반이 크게 감축되었음을 감안하면 WTO/TMB 규정이 아니더라도 생사류 회담이 지속 가능했을지 의심되지만, 한편으로 아쉬움이 남는다.

<한·일 생사류 회담 개최현황>

	합의		합의물량			회담개최 회수(회)
	장소	일자	생사(표)	견연사(표)	견직물(만㎡)	
1976	서울	'76.04.13	19,600	23,000	1,247	3
1977	"	'77.05.21	26,530	13,000	1,055	4
1978	동경	'78.07.24	26,430	13,000	1,055	3
1979	서울	'79.09.08	23,880	11,780	1,055	3
1980	동경	'80.12.19	11,150	8,400	750	4
1981	"	'82.07.29	8,400	6,300	680	3
1982	서울	'83.12.01	8,000	6,300	670	2
1983	동경	'84.12.22	7,200	6,000	595	2
1984			6,500	6,000	595	(동시합의)
1985	동경	'86.01.22	6,250	6,000	595	2
1986	동경	'87.06.19	5,750	6,000	595	2
1987			5,750	6,000	595	(동시합의)
1988	서울	'88.04.23	5,500	6,200	595	2
1989	동경	'89.04.27	5,500	6,800	595	1
1990	서울	'90.05.09	5,500	7,500	595	1
1991	동경	'90.5.29	5,500	7,500	595	1
1992	서울	'92.05.17	5,500	7,875	595	1
1993	동경	'93.06.17	5,500	8,300	595	1
1994	서울	'94.06.24	5,000	8,300	595	1
1995	동경	'95.08.31	-	8,550	595	1
1996	서울	'96.06.14	-	9,150	600	1
1997	동경	'97.06.18	-	9,378	601	1
1998	서울	'98.09.17	-	9,566	606	1
1999	동경	'99.12.22	-	9,566	608	1
2000	서울	'00.12.15	-	9,757	627	1
2001	동경	'01.12.19	-	10,050	645.5	2
	서울	'02.06.04	-			
2002				2,000		
2003	외교경로로 쿼터량 합의		-	3,500		
2004			-	3,500		

(자료) 한국생사수출입조합

\*국내 생사 생산량의 급감으로 1995년 이후로 합의수량에서 제외됨

\*2002년~2004년 합의수량은 일본 측이 수입관리(일본 정부가 수입 업체로 하여금 최소한의 수량(한국측의 견연사 생산능력을 감안한 수량)을 수입하도록 하겠다는 이면합의) 한다는 수량이며 2004년말로 쿼터제도가 종료됨

#### 마. 생사류 쿼터 이행상황

양국 간에 합의된 생사류 쿼터는 1976년~1979년간은 쿼터 이행 기간 내에 순조롭게 수출입이 이루어졌으나, 80년대에 들어서는 쿼터합의도 지연되었지만 합의된 쿼터의 이행도 지연되었다. 견연사는 이행이 다소 지연되기는 하였지만 일본이 합의된 물량을 모두 수입해 갔으나, 생사는 1981년 쿼터합의분 8,400표 가운데 2,000표만 1983년 10월 6일에 계약하여 수입하고 그 이후는 수입공고만 하였을 뿐 실제 수입은 거의 하지 않았다.

이는 일본 측이 종전에 중국산과 1.5~2.0\$/Lb의 차등을 두던 한국산 생사의 수입가격을 중국산 가격이 국제가격이라는 주장으로 한국산도 국제가격으로 수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여 한국산 생사 수입가격을 18\$/Lb ~ 17\$/Lb 선에서 11\$/Lb선으로 낮춘 중국산 수출가격과 동일한 수준인 11~12\$/Lb으로 낮춤으로써 한국로서는 실제로 수출이 불가하므로 일본 잠사업단 입찰에서 계속 유찰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국 측으로서는 양국정부 간 합의된 물량은 이행되는 것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합의의 정신에 충실한 것이라는 입장에서 기합의 된 생사를 견연사로 전환하여 수출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1985년 12월 16일~17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18차 한·일 무역회담 후 별도로 농림수산성에서 농림수산부 조규일 특작국장을 대표로 하는 한국 측 대표단과 일본 농림수산성 잠사원예국 심의관을 대표로 하는 일본측 대표단과 기 합의된 생사쿼터에 대한 이행문제에 대한 특별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회담 결과 1981년도 생사쿼터 8,400표 중 미 이행분 6,400표와 1982년도 생사쿼터 8,000표 중 4,300표 계 10,700표에 대하여 이의 50%(5,350표)는 견연사로 전환하여 수입하기로 하였으며 1982년분 쿼터 중 3,700표에 대하여는 이의 80%인 3,000표를 견연사로 전환하여 이행하기로 합의한 대신 1983년도 생사쿼터 7,200표는 이행을 유보하기로 하였다. 이후에도 견연사 쿼터는 합의량 전량 한·일 양국 간 수출입이 이행되었으나, 생사는 1984년~1985년은 매년 6,250표, 1986년~1994년까지 매년 5,500표의 쿼터량을 합의는 하였으나 양국 생사의 수급 상황에 따라 실제로 수출입은 되지 않았다.

## 2. 국제견업협회(ISA) 참여와 활동

### 가. ISA(International Silk Association) 설립배경

생사는 제2차 세계대전 전에는 미국이 주로 일본으로부터 공급을 받아 양말류 제조에 소비하였으나, 전쟁 중에 개발된 합성섬유 나일론으로 완전히 대체되었을 때, 유럽 특히 프랑스인들의 장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견업(絹業)에 대한 애착심이 ISA 창립의 원동력이 되었다. 원래 유럽에는 가공되지 않은 견(絹)의 거래습관 확립의 목적으로 각국의 견업자를 회원으로 국제견업연맹(Federation International de la Soie)이 프랑스에 사무국을 두고 창립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으로 활동이 중단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프랑스 견업(絹業)협회는 이 연맹을 부활하면서 참가국의 범위를 확대하여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와 미주의 여러 나라를 포함한 국제적인 견업기관의 설립을 추구하였다. 프랑스 견업협회는 세계견업 부흥을 도모하고자 국제견업대회(International Silk Congress)의 개최 계획을 수립하고 설립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1948년 6월 프랑스 리용 및 파리에서 개최하였다. 1947년 10월 27일 위원장 '루이스보사' 명의로 전세계 견업 관계자에게 국제견업대회의 취지와 협조를 요청하는 초청장을 발송하였다.



제9회 국제견업대회[ISA] 참가 (1964)

### 나. ISA 설립

제1차 국제견업대회에 한국은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1948년 6월 14일~15일(2일간) 리용과 파리에서 개최되어, 각 부회별로 당면문제를 검토한 후 10개 항에 걸친 권고 및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가칭 국제견업국(International Silk Bureau)을 설치하고 목적 및 의의를 정하였으며, ISB 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동 위원회는 제1차 국제견업대회의 결의에 따라 ISB 설립에 필요한 정관 등의 준비를 완료하고, 1949년 5월 30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ISB 총회와 국제견업기관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ISB 총회에는 17개국 90개 단체 대표 180명이 참석하여 국제견업기관의 명칭을 국제견업협회(International Silk Association)로 할 것과 본부를 프랑스 리용에 설치할 것을 결정하였다.

국제견업협회창립총회는 ISB총회에 뒤이어 같은 날인 1950년 5월 30일 세계의 잠사견

업국 21개국 95개 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 다. 한국의 가입 및 활동

#### 1) 가입경위

ISA의 초창기에는 한국의 잠사업이 침체 시기로 가입하지 않았으나, ISA가 창립된 지 7년이 지난 1957년 12월에 대한잠사회가 ISA 제1부회와 제3부회에 가입을 요청함에 따라 1958년 2월 14일 ISA 회장으로 부터 1958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는 이사회에서 한국의 가입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니, 동 이사회에 참석할 것과 한국대표의 명단을 1958년 3월 10일까지 제출을 통보받았다. 이에 대한잠사회에서는 1958년 이사회는 참석할 수 없었으나 ISA에 가입하는 한국 대표명단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국가대표 및 제 1부회 대표 : 대한잠사회장 임철호(任哲鎬)

제3부회 대표 : 한국생사수출조합장 : 이경용(李慶容)

통신원 : 대한잠사회 이사 권기동(權奇東) 이렇게 하여 한국은 1958년부터 ISA에 가입되었고 1959년 6월 서독 뮌헨에서 열린 제7차 ISA 총회에서부터 참석하게 되었다.

#### 2) 한국대표의 각 부회별 가입

한국은 1957년 ISA에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제1차로 13개 부회 중 우선 잠종과 양잠 및 견(絹)의 거래문제를 취급하는 제3부회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그 후 1966년 5월 21일부터 6월 4일까지 개최된 바 있는 제10차 동지중해 순항대회를 계기로 제사문제를 취급하는 제2부회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명실공히 발전하는 한국잠업의 국제적 대외활동의 터전을 다져가게 되었다.

당초 ISA는 잠사업 분야의 전문적인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17개의 분야별 부회를 두었으나 그 후 몇 개 부회가 통폐합되기도 하였다.

#### 3) 한국대표 회의(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

역대 대한잠사회장은 국가대표이자 이사로 활동함과 동시에 양잠·제사 부회(제1·2부회) 대표이며 한국생사수출(입)조합 이사장은 생사무역부회(제3부회) 대표로 활동하였다.

한국대표단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였던 것은 한국을 비롯한 생사 생산국을 대변하는 “생사검사방법과 격부법방법”을 반영, 보장받기 위해서 제13차 ~15차 총회와 제18차 총회 시기이며, 당시에 서울대학교 최병희 박사의 연구발표와 이를 사전에 준비한 농림부



잠업 과장들 (권영하, 안신환, 김한수, 최연홍)과 채대석 등 검사 담당관들의 뒷받침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1980~1990년대에는 충북제사(십재익), 신성무역(김홍건), 동아실크(손영배) 신화직물기업 (권성근, 권영호), 경기제사공업(이용기, 이덕재), 경남제사(홍남출), 삼양물산(최병권), 자도(권순중) 등이 견직물 제조 또는 무역부회(제6·7부회)에서 준회원으로 활동하였다.

90년대 들어 국내제사업 및 견직업의 침체에 따라 대부분 업체의 활동이 중단되거나 미미하였고, 1997년 방콕총회, 1999년 리용 총회에는 신성무역 등 1~2개 업체 대표만 ISA 총회에 참석하였다.

전문부회 위원을 보면 실크표준위원회는 국립생사검사소 검사과장(추후 잠사소장), 기술위원회는 최병희 교수, 잠사업개발합동자문위원회는 대한잠사회장이 활동하였다.

#### <ISA 한국대표 총회, 이사회 참석 및 활동 상황>

	개최일	개최장소	한국 측 참석자
제7차 총회	1959.6.1~5	서독 뮌헨	동흥산업 전무 오기복 외 2
1960.이사회	---	스페인 바르셀로나	불참
제8차 총회	1961.6.12~16	영국 런던	"
1962.이사회	---	프랑스 니스	"
1963.이사회	1963.10.7~11	일본 동경	대한잠사회 이사장 윤광빈 외 1
제9차 총회	1964.6.15.~19	스위스 주리히	"
1965.이사회	---	이태리 코모	불참
제10차 총회	1966.5.21.~6.4	동지중해	대한잠사회 이사장 이원영 외 1
1967.이사회	1967.11.9.~12	포르투갈 오포르토	농림부 잠업과장 김영진 외 3
1968.이사회	1968.9.19.~22	오스트리아 비엔나	농림부 잠업과 견사계장 정지현 외 10
1969.이사회	1969.10.2.~5	서독 뒤셀도르프	농림부 잠업과장 송춘종 외 2
제11차 총회	1970.5.11.~15	프랑스 파리	불참
제12차 총회	1973.5.21.~25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한잠사회 이사장 장영진 외 8
1974.이사회	1974.10.10.~11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한잠사회장 이원영
1975.사회	1975.9.25.~28	알제리 트렘센	불참(알제리 정부 비자발급 거부)
제13차 총회	1976.9.21.~24	이태리 꼬모	농수산부 잠업과장 권영하 외 6
기술위원회	1977.9.28.~30	영국 턴브리젤즈	국립서울생사검사소 검사과장 최연홍 외 3
1978.이사회	1968.10.17.~20	인도 벵갈로	대한잠사회 이사 김동섭
제14차 총회	1979.9.24.~28	스위스 루싌	농수산부 잠업과장 안신환 외 4
1981.이사회	1981.5.18.~22	프랑스 리용	농수산부 잠업과장 김한수 외 3
제15차 총회	1982.9.20.~24	영국 런던	농수산부 잠업과장 김한수 외 2
1984.이사회	1984.5.10.~11	이태리 베니스	대한잠사회 회장 정태암 외 1
제16차 총회	1985.9.23.~27	프랑스 리용	농수산부 잠업과장 김원진 외 2

	개최일	개최장소	한국 측 참석자
1987.이사회	1987.5.3.~14	중국 항저우	농수산부 잠업과장 김원진 외 4
제17차 총회	1988.9.25.~29	서독 크라펠트	농수산부 잠업과장 최연홍 외 8
1990.이사회	1990.5.14.~18	스위스 스타인암라인	대한잠사회장 김문헌 외 2
제18차 총회	1991.11.5.~8	이태리 시칠리	농림수산부 잠사소장 김한수 외 6
제20차 총회	1995.5.28.~31	영국 브라이튼	대한잠사회장 최연홍 외 3
제21차 총회	1997.11.3.~8	태국 방콕	대한잠사회장 최연홍 외 6
제22차 총회	1999.7.5.~9	프랑스 리용	대한잠사회장 최연홍 외 3

#### 4) ISA 참석한 한국 대표의 년도별 활동 상황

- 1963년 이사회에서 윤광빈 한국대표는 고치나 생사, 견제품 등은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일종의 수공업제품이므로 적당한 가격이 요청된다고 하였다.
- 제9차 총회에서 한국대표는 제1차 잠업증산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상황을 소개하는 '뻔어가는 양잠'이라는 홍보영화를 상영하였다.
- 1968년 이사회에서 서울대학교 농대 최병희 교수와 일본 측 대표는 기술위원회에서 논의한 염색에 대한 견뢰도 기준 설정 문제와 관련, 콘 방식에 대한 생사의 하조 및 거래적용에 대한 이태리, 스위스 측의 제안에 대해 현 제사공장 시설상 전체 생사 거래에 적용함은 불가한 실정임을 역설하여 좀 더 연구키로 하고 이를 보류시켰다.
- 1969년 이사회에서 제1~2차 잠업증산 5개년 계획을 설명하고, 정부와 업계의 협조로 잠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을 홍보하였다.
- 1973년 제12차 총회에서 한국대표는 일본대표가 제안한 새로운 검사규정에 대하여 검토할 충분한 여유가 없다는 점과, 이를 적용할 경우 생사 수출국으로서 불리하다는 이유를 들어 동 규정을 일본만 적용하고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토록 하였다.
- 1974년 이사회에서는 한국잠업 발전 상황을 설명하고 세계 생사수요 감퇴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였으며, 특히 일본의 생사 수입규제 조치를 비난하였다.
- 1975년 이사회에는 대한잠사회 이원영 회장이 참석하고자 하였으나 알제리 비자발급 거부로 참석을 하지 못하였다.
- 1976년 제13차 총회에서 한국의 생사검사규정 개정안을 제안하였으나 검토 불가로 미채택 되었다.
- 1977년 9월28~30일에 개최된 기술위원회에 한국의 검사방법 및 격부 개정안, 전자공학을 이용한 생사검사와 견방사 검사의 연구보고에 대하여 검토키로 하였다.

- 1979년 제14차 총회에서는 한국의 생사검사 및 격부 개정안 연구검토(단일안 연구) 및 한국의 잠업기술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 1981년 이사회는 총회가 동시에 개최되었으며, 최병희 박사의 생사검사 및 격부에 관한 연구발표와, 물빨래가 가능한 실크에 대한 연구발표에 이어, 잠업개발도상국에 대한 잠업기술지원 가능성을 표명하였다.
- 1982년 제15차 총회는 이사회가 동시에 개최되었으며, 최병희 박사의 생사검사 및 격부 방법론 발표와, 작잠사 염색, 구김 없는 실크의 손질 방법을 발표하였다. 스위스 대표는 소비자 입장을 대변하여 논쟁이 있었다.
- 1985년 제16차 총회에서는 생사의 전자검사 방법도입 및 신 격부법 개선에 관한 제3차 연구사업을 추진(87~89)하기로 하였다.
- 1988년 제17차 총회에서 중국의 생사 수출가격 인상에 따른 각국의 입장과 의견을 제시하고, 생사의 섬도(굵기)표시 단위로 D-tex로 사용키로 결정하였다.
- 1991년 제18차 총회에서 한국측은 생사 전자검사에 대한 최병희 박사의 연구(안)을 발표하고 생산국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 1999년 제22차 총회에는 한국의 5개 업체 견제품을 출품하였다.

### 3. 국제잠사위원회(ISC)참여와 활동

#### 가. ISC (International Sericultural Commission)의 설립배경

국제잠사위원회는 1948년 6월 프랑스 알레스에서 개최된 제1차 국제견업대회(International Sericultural Congress)에서 상임위원회로 발족 되었으며, 1955년 4월 제1기술분과위원회에서 제정한 협약을 1960년 회원국 비준으로 설립된 정부 간 조직체이다.

#### 나. ISC의 설립목적과 기능

ISC는 일반적으로 잠사업(재상, 잠종, 양잠, 제사 포함)에 관련된 모든 활동에 있어서 기술적, 과학적, 경제적 계획에 관한 발전과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 학술적인 활동을 위해 설립되었다.

#### 다. 한국의 참여

ISC는 창립 이래 한국에 대해 10여 차례에 걸쳐 가입을 권고하였으나 국내 잠사업 사

정상 가입하지 못했다. 그러나 1967년 3월 프랑스의 잠업시험장장이며 ISC사무국장인 Andre Shenk 박사의 가입 권고를 받아 농림부와 외무부가 이를 협의하여 1967년 11월 14~20일까지 스페인 바르치아에서 개최되는 제5차 ISC 총회에 참석한 후에 가입 여부를 재검토해 보자는 외무부 의견에 따르기로 하였다.

이후 1967년 11월 포르투갈의 오포로프에서 열린 ISC 이사회에 참석하였던 정부대표로 농림부 김영진 잠업과장이 스페인의 무리카에서 열린 ISC 총회에 참석함으로써 읍서버 자격으로 최초로 참석하게 되었다. 이 회의에서 한국은 시행 중인 잠업증산 5개년계획을 비롯한 한국의 잠업생산 현황을 소개하여 매우 고무적인 성과를 얻었으며 여러 국가가 한국의 잠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며 상모, 잠종 기타 잠업생산에 필요한 기술 공여를 희망하였다.

회의 진행에서도 거의 모든 항목에 대하여 한국의 의견을 물었으며 한국이 비회원국임에도 읍서버로 첫 참석한 제1차 회의에서 의장으로 의사 진행을 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선진 잠사국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정부에서는 ISC 가입을 수차에 거쳐 검토하였으나 부담금 미확보와 국내 사정으로 가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73년 5월 21~2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ISC 심포지움에 서울대 농과대학 박광의 박사가 '잠종생산의 문제점'이란 제목으로 한국의 잠종생산 체계와 현황 소개와 잠종의 생산 기술 및 시설, 생산성에 대한 문제점에 관하여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1974년 10월에는 ISC가 인도의 란치에서 개최한 국제 야잠사 학술회의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최병희 박사가 참석하여 '마취제 처리에 의한 잠아 선발'이라는 제목으로 잠아의 건강성과 영견성(營繭性)을 과학적 근거에 의하여 판단 분석하고 원잠종 보전이나 원종 선발에 응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논문발표를 진행하였다.

1979년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ISC 주최 심포지움에 학계 2인이 초청되었으나 불참하였고, 1980년 3월 20일 주 이태리 한국 농무관이 ISC 사무국장 Dr.Bouvier에게 ISC에 관한 정보 및 규약 등의 자료를 요청한 바 있어 한국가입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후 1981년 2월 10일 농수산부장관이 외무부장관에게 ISC 가입 협조를 요청하였고 외무부에서는 1981년 7월 13일 가입 타당성을 인정하고 법제처에 국회 동의 여부를 협의하였다. 그리하여 1981년 9월 18일 법제처에서 국회 동의를 필요 없다는 통보를 받고 1981년 12월 ISC의 분담금을 1982년 외무부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절감 예산 편성으로 삭감되어 가입하지 못했다.

#### 4. 민간 국제협력 활동

##### 가. 한·일 민간잠사회의 개최

한·일 민간잠사회는 한국은 대한잠사회가 주관이 되고 일본은 중앙잠사협회가 주관으로 1971년부터 1990년까지 서울과 동경에서 12차례 개최되었다. (1973, 1981, 1983, 1985~1988은 미개최) 한·일 민간잠사회의 개최 배경은 1960년대 비약적인 잠업 발전을 이룩한 우리나라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일 생사 수출과 관련하여 중국이 그동안 유럽지역으로 생사를 수출하였던 것을, 유럽지역의 소비량 감퇴로 저가로 일본에 수출하게 됨에 따라 일본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잠사회는 한·일 양국의 잠사업에 대한 정보교환과 잠사업계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1970년 9월 5일, 일본에 한·일 민간잠사회의 개최를 제의하였다.

일본의 중앙잠사협회로 민간이 주가 되고 정부는 읍서버 형식을 취하는 회의를 요구하고 한국이 이에 동의하게 되어 한·일 민간잠사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한·일 잠사회의 개최 (1979)

##### 제1차 한·일 민간잠사회의 개최결과

- (1) 일본 측에서 생사 가격안정을 위하여 한국이 일본의 사가(絲價) 안정 제도를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한국 측은 생사의 수출과 비축 등에 있어 일본의 제도와 운영방법을 참고키로 한다.
- (2) 타국으로부터 생사를 수입함에 수입 관세를 현행대로 진행하여 줄 것을 한국 측 요구에 대하여, 일본 측은 한국 측 입장을 이해하고 관계 당국의 이해를 촉구한다.
- (3) 양국은 세계 생사 수요증진을 도모를 위한 조사와 선전 활동 강구.
- (4) 한국 측은 일본에 양잠 독농가의 기술연수를 맡아 줄 것을 요구하였다.
- (5) 앞으로 한·일 잠사회의는 매년 교대로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그리고 1972년에는 서울에서 제2회 잠사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한·일 민간잠사회의 개최현황>

회수	개최연도	개최지	주요 협의사항
1	1971	동경	생사수급, 유통대책
2	1972	서울	한·일양국의 잠업증산 대책

회수	개최연도	개최지	주요 협의사항
3	1974	동경	생사 생산국간 협력체계 검토
4	1975	서울	일본의 생사류 수입규제 문제
5	1976	동경	양국간 잠사류 무역증진
6	1977	서울	국제 생사가격 안정
7	1978	동경	세계, 한·일 생사수급 전망
8	1979	서울	한·일 생사류 수급, 수요진흥
9	1982	동경	한·일 생사류 수급, 수요증진 대책
10	1984	서울	생사 수급현황과 전망
11	1989	동경	생산 증진, 수급현황 및 전망 기술교류 확대
12	1990	서울	생사 수요증진, 가격 안정화

##### 나. 80년대 말 국제 생사 가격폭등 시 생사 가격안정을 위한 활동

세계 생사 교역량 중 80% 이상을 중국이 점유하여 국제 생사 가격은 중국에 의해 결정되고 있었다. 그 단적인 사례로 1980년대 후반 이후 중국의 수출가격 추이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1987년 4월경 중국의 생사 수출가격(중국 사조진출구 총공사 결정가격) 28.8\$/kg(21D 3A 기준)이 정상적인 가격이었으나 1988년 4월에는 35\$로 수직 급등하였으며, 동년 7월에는 43\$, 그리고 1989년 4월 50\$에서 연말에는 57\$로, 국제 생사 가격은 세계 실크 업계 사상 유례가 없는 초단기 가격폭등과 공급물량 부족 사태가 초래되었다. 이 당시 생사 가격폭등과 더불어 생사 물량 부족 현상이 심각하여 유럽은 물론 우리나라 견직업계는 가격 고하를 불문하고 생사 수입물량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생사의 kg당 가격이 50\$ 이상이 되자 이에 대처하기 위해 원료의 해외생산 공급을 위하여 한국의 업계에서는 80년대 말 콜롬비아, 볼리비아 등 중남미 지역에 잠업개발을 위한 해외투자를 개시하였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잠업 후발국에서 잠견 증산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1990년대 들어 수출수요가 부진하고 자국 내 생산이 과잉되어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기 시작하여 1991년에는 44\$에서 36\$로 인하하였다. 이러한 인하의 배경은 자국의 과잉생산이 원인이었지만, 잠업 후발국의 생산증대에 타격을 입히고자 하는 의도가 없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업체의 해외투자도 경제성을 상실하여 대부분 철수하게 되었다.

당시 잠사회(김문헌 회장)는 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참고하여 북경 실크공사 총경리 황건모(黃健模) 일행을 초청(1989.2.21~28)하여 국제 생사 가격안정과 물량대책을 요청하였다. 유럽의 사정도 마찬가지로서 Morel Journal ISA회장 및 Ronald Currie 사무총장 일행은

생사 공급물량 부족, 가격폭등 등 세계적 생사 수급 불균형을 완화 시키기 위하여 한국에서 누에고치 증산을 협의차 1989년 11.29~12.1 한국을 방문하였다. 이에 따라 잠사회는 서울 팰리스 호텔에서 업계대표 및 정부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ISA회장단과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세계 생사 수급, 국제 생사 가격안정 및 품질개선을 위하여 공동 협력하기로 하였다. 잠사회(김문헌 회장)는 국제협력 업무를 강화하고 대외협력을 증진코자 ISA권유로 제18차 국제견업협회 총회를 한국에 유치하고자 하였으나, 업계의 무관심 등으로 무산된 바 있는 데, 이는 일본, 태국, 중국이 총회 또는 이사회를 이미 개최하였음을 감안할 때, 한국 잠사업의 세계적 위상에 크게 못 미치는 아쉬움만 남게 되었다.

## 5. 잠사업 발전과 생사검사소의 변천

### 가. 세계 생사검사소의 효시

1750년 이태리 트리노(Trino)시 상공업자조합(Guild)이 거래 견사의 함수율을 일정하게 조정하도록 강제한 것이, 생사검사의 효시가 되었다. 그리고 100년 후인 1850년 견사의 평균섬도를 표시하여 거래하도록 한 것이 견사 품질검사의 시작이다. 유럽의 견사 소비 대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1920년 결성된 국제견업연맹(ISU)은 교역견사에 대하여 국제 공통으로 적용하는 견사검사방법의 제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검사방법에 따라 국가간 이해관계가 달라져, 지역 검사소마다 자기들 나름의 전통방식으로 검사해 왔다.

1949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세계견업대회 중에 결성된 국제견업협회(ISA)는 기술분과위원회에서 생사검사 및 격부 방법을 연구토록 의결하였다.

ISA의 기술분과위는 당시 보편화 된 검사방법으로 1950년 7월 1일 “세계생사검사소표준방법(안)”으로 제출하였고, ISA는 곧바로 본 안을 승인 채택하였으며, 오늘날의 세계 생사검사 및 격부 방법의 근간이다. 그리고 생사검사가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지게 된 것은, 1800년대 서양에 수출 물품은 생사뿐인 일본이 자국 생사의 상품가치 확증을 위하여, 1895년 생사검사 관련법(일본법률 제32호)을 제정, 수출생사를 국립검사기관이 검사하도록 세계 최초로 제도화하였고, 이후 국제간 생사거래는 국정검사를 받는 것으로 일반화되었다.

### 나. 일제의 생사검사소 설치 및 국정검사 실시

일본은 1941년 태평양전쟁을 촉발 후 한반도 잠사업을 전시체제로 전환을 위해, 1942년 3월 25일 ‘조선잠사업통제령 제24호’에 이어 1942년 4월 7일 일본왕 칙령 제372호를 공

포, 조선총독부 생사검사소를 서울 용산구 한강로 191번지에 설립하였다. 검사소의 첫 소장(所長) 가도 세이(加等 誠)는 검사소 청사와 검사장비 확보를 꾀하는 한편, 1943년 3월 12일 생사검사소 대구지소를 설립하여(총독부령 제44호) 영남지역 내수 생사에 대한 검사도 서둘렀다. 그런데 본소는 물론 대구지소 또한 검사장비 및 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당시 간이 검사를 실시하던 조선 잠사회에 위탁하여 1944년 4월 11일 내수 생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검사증만은 생사검사소 대구지소에서 발행하였다.

### 다. 해방 이후 생사검사소

#### 1) 미 군정 하에서의 생사검사. 국립견사검사장

해방후 미 군정청 당국은, 1945년 12월6일 군정법령 제33호에 의거 생사검사소를 포함한 모든 조선총독부 재산을 미 군정청에 예속하는 등 해방과 함께 혼란이 수습되자 잠사업계도 안정을 되찾아, 1946년 9월 23일 삼성제사(주)의 생사 2,916Kg, 1946년 8월 9일 군시공업(주)의 생사 750Kg을 검사하였다. 그런데 생사 품질과 중량을 표기한 검정서 발급기관의 이름을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1947년 3월 8일 미군정청 견사법(미군정법령 제133호)의 공포를 서둘러 “국립견사검사장”이 설립된 것이다.

#### 2) 대한민국 건국초기의 생사검사소

일제의 잠사업진흥 정책이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나, 해방 후에도 계속된 극심한 식량난과 강제성 잠업진흥책에 대한 반감으로, 전국의 잠업기반이 위축되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농촌경제를 살리고 외화벌이 농산물로써 최적 산업인 잠사업을 진흥을 위해 정부조직법(1948.11.4)에 의거 1948년 3월 3일 “중앙생사검사소”(대통령령 제64호)을 설립, 내수 및 수출생사가 원활하고 신속한 검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였다.

#### 3) 6.25전쟁 중의 생사검사

정부 수립 5년 만에 6.25 전쟁과 전쟁 중에도 다소간 생산되는 생사를 수출하여 절실한 외화를 벌어들이고자 하였다. 생사 수출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지시(1951.1.30)를 받은 농림부 장관은 전쟁중인 1951년 4월 11일 임시수도 부산시 동광동에 생사검사소 임시사무소를 설치하였다. 임시 사무소는 수출 생사의 중량을 칭량하고 육안 검사만을 실시하여 국정검사 절차를 거쳤다는 요식만을 부여했다. 이 같은 간이검사는 대구지소가 검사기능을 갖추게 된 1951년 7월까지 3개월간 계속됐다. 1950년 9.28서울수복 2개월 동안에

서울 본소의 검사 기기 및 장비를 해체, 14 후퇴 당시 대구로 이송해 왔다. 그런데 그 기기를 설치하려던 중앙검사 검사장 대구지소는 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1952년 6월 경북잠업시험장에 설치하였고, 피난 당시 검사소가 1954년 9월 1일 서울 환도까지, 그곳에서 수출 및 내수 생사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다.

## 라. 잠사업 중흥기의 생사검사소

### 1) 중앙생사검사소 대구지소의 폐쇄

서울환도 이후 이승만 정부는 당장 부족한 외화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당시 년 생산 총량 545여 M/T의 생사수출 장려목적으로, 생사의 내수 억제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이에 따라 국내 직조업체에 생사 공급량은 줄이면서 농림부령 제66호(1958. 3. 19)로 ‘중앙생사검사소’ 대구지소를 폐쇄하였다.

### 2) 국립생사검사소의 개칭 및 검사 인력의 증원

해방 이후 혼란한 정국에 이어 6.25 전쟁으로 가난에 시달리는 농가 경제 부흥을 위해 이승만 정부는 환금성과 수익성이 높고 외화벌이 농산물로 으뜸인 잠사업진흥책을 계획했으나 재정 결핍과 정책의 무능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1961년 박정희 정부는 국가재건산업 중의 하나로 잠사업을 지목하고 1961년 12월 27일 잠업법(법률 제883호)을 제정하고 1962년 3월 27일 제1차 잠업증산 5개년계획(대통령령 제579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잠사업진흥정책을 수행할 정부기구를 개편하면서 1962년 5월 5일 중앙생사검사소장을 “국립생사검사소”로 개칭하고 검사소 정원 16명에서 32명으로 대폭 증원해 원활하고 신속한 생사검사를 준비하였다. 제1차 잠업증산계획 이후 생사 수출이 대폭 증가하고 제2차 잠업증산계획을 세우면서, 1966년 2월 1일 생사검사소 정원을 32명에서 56명으로 연이어 증원 큰 폭으로 증가하는 생사 수출량에 대비하였다.

### 3) 서울·부산 두 개의 국립 생사 검사소 설치

잠업증산 5개년계획의 연속적인 성공으로 폭증하는 생사검사 물량을 용산검사소의 비좁은 공간과 미흡한 검사 편의시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특히 수출 생사 대부분이 부산에서 선적되어 경기지역 외의 수검 생사는 서울까지 오르내리는 역 수송 현상으로 경제적 손실이 매우 컸다. 이에 제2생사검사소 설립하기 위하여 1965년 부산시 동래에 2만여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1968년 3월 20일 검사소 청사와 생사창고를 완공하였다. 부

산의 청사 완공 전 1967년 11월 23일 대통령령 제3,279호로, 경기도 충청남북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국립서울생사검사소와 강원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그리고 제주도를 관장하는 국립부산생사검사소, 두 곳의 생사검사소를 설치하였다.

## 마. 국립서울·부산 생사검사소의 변천

### 1) 국립서울 생사 검사소 청사의 안양이전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191번지 주택가에 자리한 서울검사소는 860여평 부지에 500여평 목조 단층 건물로 매일 2톤 가량 생사검사를 처리하기에 협소하였다. 또한 수검생사를 적재한 대형트럭의 검사소 진·출입은 물론 상·하차 작업에 어려움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전 장소는 남북통일 후 황해도에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경기도 안양으로 결정하였다. 1971년 안양시 안양 6동에 착공 후 2년 6개월 만에 연건평 2,000여 평의 건물을 완성하고, 1973년 5월 5일 국립서울생사검사소는 안양으로 이전했다.

### 2) 서울·부산 생사검사소의 연구기능 통합

서울·부산 검사소에 부여된 동일업무, 생사에 도포(塗布) 또는 오염물질의 정성 및 정량 분석에 관한 검사와 생사검사 방법 등에 관한 연구 기능을 대통령령 제7208호(1974. 7. 20)로 서울검사소에 통합하였다. 이는 화학분석에 관련한 검사신청이 드물어 국가적 낭비요소가 있고, 두 검사소에 분산된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인 연구성과를 거두기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이미 ISA에 제출된 일본의 새로운 생사검사 및 격부 안전에 대항하는 생사 수출국에 유리한 방안 연구 인력과 장비의 보강 차원에서도 통합이 불가피했다.

### 3) 서울·부산 국립 생사 검사소의 통합, 국립 생사 검사소

1962년 출발한 잠업증산 5개년 계획의 연속적인 성공으로 1970년대 초 우리나라 생사의 연간 생산량이 5,000여 M/T으로 연간 수출생사 2,520여 M/T(4,200여 하구/년)을 검사 처리하였다. 검사인력과 시설장비를 확보한 두 검사소의 활약으로 생사수출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그러나 1974년과 1978년 두 차례 유가폭등은 세계적 경제공황과 1980년대 우리나라의 잠업기반 붕괴



선잠을 모시고 제향을 올리던 선잠단지 옛모습(1910년)

에 따른 생사수출 물량부족으로 수출생사 검사신청이 거의 없게 되었다. 일부 국내 견직 산업의 활성화로 내수생사의 품질에 관련한 특정 부분검사(의뢰 검사)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두 개의 국립생사검사소 존치에는 국가적 손실이 컸다. 1981년 11월 2일 대통령령 제10,537호에 따라 서울검사소는 “국립생사검사소”의 본소로, “부산검사소”는 “국립생사검사소 부산지소”로 검사소가 통합되었다.

#### 4) 국립잠사소 기구 통합

1970년대 국제석유 파동과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로 인한 노임상승은, 국내 잠사업기반 붕괴를 가속시키고 1980년대 중후반에는 제사용 잠견생산이 중지되고 전국 34개소의 제사공장 대부분이 가동중단, 폐쇄상태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잠종의 수요가 축소되었고 수출생사 검사도 중단되면서 정부는 1990년 3월 20일 대통령령 12,952호에 의거 농림수산부 직제 개정령으로 국립생사검사소와 국립잠종장을 통합 “국립잠사소” 설립하면서 생사검사과와 잠종과로 나누어 각각의 고유 업무를 수행토록 조치하였다.

### 바. 생사에 대한 국정검사 기능 폐지

#### 1) 국립잠사소의 해체

1980년대 침체를 거듭하던 우리나라 잠사산업이 1990년도에 이르러 거의 전멸 상황에서, 견직업체에서 수입한 생사의 품질확인을 위하여 의뢰 검사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수출생사에 대한 검사가 전무한 상황에서 검사인력 및 시설장비를 방대하게 유지할 필요가 없어, 1994년 12월 23일 대통령령 제14,443호에 의거 국립잠사소를 해체, 잠종과 업무를 농촌진흥청으로 넘기고, 생사검사과의 인력과 시설 장비를 국립농산물검사소에 이관하여 생사에 대한 국정검사 기능은 계속 유지되었다.

#### 2) 생사에 대한 국정검사 기능 소멸

생사검사 기능은 국립농산물검사소에 이관 이후도 향후 수출생사에 대한 검사 재개 전망이 불투명하게 되자 농림부는 1998년 2월 28일 정부조직법(법률 제5529호)과 동 시행령(대통령령 제15,725호)에 의거 농림부령 1,280호 발령, 국립농산물검사소와 농업통계사무소를 통합하며 “생사검사과”를 폐지하고 그 기능만을 “농산물원산지관리과”로 이관하였다. 그 후 생사검사 신청 접수가 없어 생사에 대한 국정검사 기능은 우리나라에서 사라졌다.

[백영현]

## 제 6장 잠사문화 활동 및 유적

양잠(養蠶)은 인류와 더불어 아주 오랜 시절부터 시작되었으며, 우리 인류에게 생활의 기초가 되는 옷(衣)을 제공한 섬유 가운데 한 종류이다. 우리나라는 단군 조선시대 이미 뽕나무를 심고, 누에치기를 장려한 기록이 있어 4,350여년 보다 훨씬 이전부터 양잠이 성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선잠 집례관 임명장(장례원, 1903.3)

우리나라는 건국 초기부터 소중한 섬유 자원으로 견(絹)을 얻기 위해 나라에서도 양잠을 중히 여겨 역대왕실에서 식량을 제공하는 농사의 장려(勸農)와 함께 양잠의 권장(勸蠶)을 산업의 근본정책으로 삼았다. 왕은 몸소 친히 들로 나가서 농기구를 이용해 밭갈이를 직접 하는 친경(親耕)을 행하였고, 왕비는 궐내에서 잠모들과 함께 뽕잎을 따고 누에를 사육하는 친잠(親蠶)을 거행하며,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농사와 함께 누에치기를 적극 장려 하였다.

그로 인해 현재도 서울에는 동대문 밖 제기동에 농사의 신인 신농씨(神農氏)와 후직씨(后稷氏)에게 제의를 지내는 선농단(先農壇)이 있고, 성북동에는 잠신(蠶神)인 서릉씨(西陵氏)에게 제의를 지내던 선잠단(先蠶壇)이 세워진 것이고, 현재는 이곳에서 전통의식을 계승하며 선잠제향이 재현되고 있으며 우리의 잠사 문화가 오늘날까지 계승되어 내려오고 있다.

#### 선잠제(先蠶祭), 친잠례(親蠶禮), 풍잠제(豐蠶祭)

- 누에의 신을 모시고 양잠의 풍요를 기원하는 제례의식 -

### 제1절 선잠제향(先蠶祭享)

선잠제는 친잠례 전에 거행하는 행사로 양잠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으로, 고려시대

부터 역대 왕들의 권잠정책(勸蠶政策)의 상징이며, 양잠 장려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 제향은 옛 중국의 삼황오제(三皇五帝)때 황제비(黃帝妃)인 서릉씨(西陵氏:嫫祖:蠶神)를 제사하는 것으로 당해 양잠의 시기가 시작 되기 전에 한해의 누에농사의 풍년을 기원한 것이었다. 서릉씨에게 제사를 지내는 까닭은 이 세상에서 최초로 백성에게 누에를 사육하는 방법과 누에고치에서 실 뽑아내는 방법을 널리 알리면서 누에고치 실로써 직물을 생산하는 방법과 의복을 만드는데 비단실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쳤기 때문이라 한다. 이를 근거로 하여 서릉씨를 선잠(先蠶)이라 일컫는 것이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의하면 이미 고려 시대에 선잠제향(先蠶祭享)을 지낸 것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당시 이 의식은 중국 한(漢)나라 제도를 따른 것이며, 친잠의식(親蠶儀式)은 송(宋)나라 제도를 본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조선 영조 43년(1976)에 편찬한 「친잠의궤(親蠶儀軌)」에 의하면 선잠제와 친잠례는 뽕잎이 피기 시작하는 3월에 거행하는데, 선잠제를 먼저 지내고 그 뒤에 친잠례를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조선 성종 때에는 함께 거행하기도 하였다.

고려 시대의 선잠 의식을 보면, 매년 늦은 봄의 길(吉)한 사일(巳日)에 잠신인 서릉씨의 신위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데, 희생(犧牲)은 돼지 1마리를 쓰며 폐백은 1장(丈) 8척(尺)의 검은색을 사용하며 의식은 선농제와 비슷하였다. 당시 선잠단의 규모는 방(方)이 2장(丈)이고 높이가 5척(尺)으로서 사방으로 섬돌을 나오게 만들되, 남쪽으로 나온 섬돌은 사방을 깊이 파서 물건을 놓을 수 있게 하였다.

조선 시대 선잠제향은 정종 2년(1400) 3월에 최초로 지냈다. 그 후 태종 11년(1411) 8월에는 선잠제를 지내는 폐백의 제도를 정하고, 2년 뒤 태종 13년(1413) 4월에는 제사의 제도를 정하면서 종묘, 사직, 별묘의 제사를 대사(大祀)로, 선잠제를 선농제와 같이 중사(中祀)로 하고, 그 밖에 사한(司寒)·마조(馬祖) 등의 제사는 소사(小祀)로, 정했다. 그만큼 선잠제를 통해 국가의 근본인 양잠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여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해 6월에는 선잠단 등의 축조 형식이 옛날과는 다르므로, 다시 쌓기로 하는 외에 신주와 제기고·제관의 재소 등을 신축하였으나, 규격에 맞게 개축된 것은 세종 12년(1430)에 이르러서이다.

선잠단의 위치는 동소문 사한이에 있다고 『세종실록』지리지 경도 한성 부조에 표기되어 있고 「동국여지비고(東國餘地備考)」권1 경도 단묘조에서 선잠단이 동교 혜화문 밖에

있다고 하였으니, 이는 현재의 서울 성북구 성북 2동 64의 1에 위치한 선잠단지(先蠶壇址:사적 제83호)를 지칭하는 것이다. 성현(成俔)의 「용재총화(慵齋叢話)」 권10에는 3월에 풍악을 울려 제사를 지낸다고 기록하고 있다. 선잠단의 제(祭) 의식은 세종 당시에 제정되었는데, 이 의식은 「춘관통고(春官通考)」 권41과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권1에도 소개되어 있다. 우선 선잠제향 의식은 서운관(書雲館)에서 1개월 전에 날짜를 잡아 예조에 통보하면, 예조가 왕에게 보고해서 준비시켰다. 이 제향에 참여할 집사관의 노고를 위로하고 잘 치루기를 기원해 주기 위해 왕은 제례 전에 주연(酒宴)을 베풀어 주었다.

성종 8년(1477) 3월에 "오례의(五禮儀)에 의하면 늦은 봄의 길(吉)한 사일(巳日)에 선잠제를 지낸다고 했으나, 오는 3월 초의 2일은 바로 길사일(吉巳日)이지만 뽕잎이 아직 피지 않았으니, 청컨대 다시 3월 안의 사일(巳日)을 받아 행하소서"하니 왕이 그대로 따랐다. 따라서 선잠제향은 절기의 이르고 늦음에 따라 지냈음을 알 수 있다. 선잠제향은 매년(음력 3월)사일(巳日)에 봉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한때 선잠단과 선잠의 신위는 대한제국 순종황제 2년(1908) 7월에 선농단의 신위와 함께 사직단으로 옮겨 배향했고, 그 이후 773평의 현재의 선잠단지 터는 1939년 10월 18일 일제강점기 시기에 보물 제17호로 지정되었다. 이 터는 개인에 불하 되었다가(528평) 광복후 국유로 이속 되어 1961년 11월 10일 선잠단지(先蠶壇址)란 돌 팻말을 세우고, 1963년 1월 21일 사적 제83호로 지정된 후 거의 방치 상태에 있다가, 1976년 단 앞에 뽕나무를 심은 후 주민(이학수씨)에 의해 돌보고 있었고, 1982년부터 근잠회(勤蠶會)와 대한잠사회에 의해 매년 봄 뽕잎이 나기 전 가지치기와 비료 주기, 주변 정리 등을 하며 선잠제향 재현을 수차에 걸쳐 건의하였다.

서울 성북구청에서 서울 정도 600년을 앞두고 문화재복원 차원에서 1993년 5월 16일 고증자료에 의해 옛 의식대로 선잠제향이 일제강점기 당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잊혀지고 있었으나 85년이 지난 이후 잠사인들의 적극적인 건의와 지역주민들의 애향심이 반영되어 선잠제향 행사를 재현하기 시작 되었다. 이후 1998년에 주변 민가를 구입하여 정리한 후 홍살문을 세우며 주변을 정비작업이 진전을 보이던 중, 성북구는 소중한 역사자원인 선잠단지의 발굴 및 정비복원 사업으로 2016년 10월 28일부터 한 달 동안 총 1147㎡ 면적을 발굴 정밀하게 조사되었다. 그 결과 선잠단의 원형인 제단 대지를 비롯해 제단 시설인 유(壘)의 일부를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제단 시설의 일부인 북유(北壘)

와 남유(南纒)가 온전하게 확인되었는데, 이는 축조방법 등을 추정할 수 있어 향후 선잠단의 원형복원 및 정비 사업에 토대가 되는 것으로 눈길을 끈다.

성북구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선잠단의 원형복원과 정비사업은 물론 무형문화유산인 선잠제향의 복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선잠단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민가들이 주민민원으로 동의가 원만치 않아 원형복원은 2~3년예상했으나 현재까지도 답보 상태이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정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 제2절 친잠례(親蠶禮)

**친잠례 : 세계노동 역사에서 여성으로는 최초로 왕비가 백성에게 노동의 모범을 보인 행사**

친잠례는 왕이 친히 밭갈기를 하며 농사의 본을 보여 권농정책(勸農政策)을 펼친 것과 같이 왕비가 뽕소 뽕을 따고 누에에 뽕을 주며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권잠(勸蠶)을 하던 의식이다. 양잠은 고대 삼국시대 이후 농사와 더불어 나라에서 중요한 산업이었고, 국제적으로 잠사견(蠶絲絹)의 가치가 계속 상위로 유지되고 있음은 인류와 끝없는 상존의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조선 시대 여성이 주체가 되는 의례는 주로 길례와 가례에만 집중되어 있으나 그 가운데 친잠례 만은 그 가운데 여성주도의 의례로서 국왕의 친정례와 함께 국가의 주요 행사 가운데 하나였다. 왕비의 친잠례는 근본인 농상에 모범을 보인다는 의미와 함께 왕비가 직접 생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일반 여성들의 생산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행사로서 지난 과거 전 세계를 통틀어 유일한 의미를 지닌 중요한 의례이다.

특히 여성이 주체가 되어 우리나라 산업 경제 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산업으로 최초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다.

친잠례 거행기록을 보면 조선초기인 태종 11년(1411)에 "옛날에 후비친잠례가 있었으니 앞으로 이를 궁중에서 행하도록 하라"는 왕명 이후 다음부터 친잠이 시작되었다. (당시의 친잠은 왕비가 누에를 기르는 일에만 국한됨) 그 후 역대 왕비는 궁궐 내에서 꾸준히 친잠을 진행한 것은 조선왕조실록에 잘 나타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세종 8년(1426)의 친잠례에는 ①친잠의 제례 ②뽕잎이 덜 피어났을 때 누에의 소잠을 연기하는 일 ③왕비 출입시에 주악 ④수상기(受桑器)의 착생 및 어조(御釣)등의 개조 ⑤백관(百官)의 진열(陳列)에 관해서 제정하였다.

그리고 세종 24년(1442)에 왕비가 왕세자빈 및 내외명부를 거느리고 채상단(採桑壇)에서 친잠례(親蠶禮)를 행하였는데 이를 마치면 백관들이 진가하였다. 성종은 역대 왕들 가운데 친잠례를 빈번하게 거행하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종 7년(1476) 3월에 친잠례를 거행하고 나서, 같은 해 9월에 "친잠응행절목(親蠶應行節目)"을 논하기 시작하여 그 이듬해 윤2월 우승지 임사홍과 예조참판 이주돈이 친잠의례를 제정하였다.

"친잠응행절목"이 제정되고 나서, 성종 8년 3월에 친잠례를 행하게 되자 선공감(繕工監)에서는 이에 앞서 채상단을 창덕궁 후원에 쌓았다. 이에 길(吉)한 사일(巳日)을 가려 왕비가 내외명부를 거느리고 채상단에 이르러, 친잠례를 행한 뒤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내외명부의 가례를 받았으며, 백관은 영영문(迎英門)밖에서 잔을 올려 진가했고 이어서 성종은 권농 권잠에 대한 교시를 내렸다.

한편 친잠례 때에는 왕비가 국의(鞠衣)를 입고 수식(首飾)을 가하게 하였으며, 내외명부들은 푸른색 옷보다는 아청(鴉靑)을 쓰도록 하였다. 친잠례를 마친 당일에 성종은 의정부, 육조 당상과 선공감 제조 등의 신하들을 대궐 뜰에 모이게 해서 악(樂)을 내리고, 그 이튿날 왕비는 선정전에 나아가 내외명부를 모아서 물건을 차등있게 하사(下賜)하였다.

그 뒤 성종 24년(1493) 3월에는 왕세자빈과 내외명부를 거느리고 친잠례를 행하였는데, 대체로 친잠례는 성종, 중종, 영조 재위 중에 빈번하게 집행하였다. 중종 8년(1513) 3월과 왕 12년 2월, 왕 13년 3월, 왕 24년(1429) 3월 24일에 각각 친잠례를 거행하였다. 왕 13년 친잠례를 행할 때는 중종이 친잠교서(親蠶敎書)를 내리며 친잠의식을 강조하였다. 같은 해 4월 친잠에서 생산한 누에고치를 의정부와 승정원에 나누어 주면서, 중종은 '고서에 보니 궁중에서 양잠하여 모든 귀신(貴臣)에게 반사(頒賜)하는데, 이는 근본을 힘쓰는 뜻이다. 근자에 내전에서 양잠한 누에고치 약간을 의정부와 승정원에 내려준은 내가 근본을 힘쓰는 뜻과 궁중에서 양잠한 공을 보인 것이다.' 라고 하



순정효황후의 친잠의식(1924)



였으니, 양잠에 관심을 가지고 주력한 중종의 일면을 알 수 있다.

중종 24년 2월에는 친잠례 의식을 행하기 전에 친잠단의 터를 정하도록 명하자, 예조에서 고단(古壇)을 보고 조금 이전하여 신축하였다. 중종 이후 친잠례가 빈번치 못하고 중단상태에 있다가, 영조 43년(1767) 1월 친잠례와 선잠제를 부활하도록 한 뒤, 춘하관에 명하여 강화도에 소장되어 있는 실록에서 제도의 옛 일을 고찰하도록 하여, 이 해 "친잠의례(親蠶儀軌)"가 제정되었고, 이 의례는 이해 3월에 친잠례를 정순왕비가 지냈던 제반 절차와 소용되는 집기 등에 의해 예조에서 기록한 것으로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영조 46년(1770)에는 왕비의 친잠의식을 칭찬하며 경복궁 친잠단에 "정해친잠(丁亥親蠶)"이라고 쓴 글을 내려 비석까지 세웠다.



옛 제도의 고찰에 의해 춘하관에서 왕비의 친잠의식을 정리하여 기록한 친잠의례 친잠례의 의미와 내용 수록(1767)

1910년 6월 25일 순정효황후(純貞孝皇后)가 전례에 따라 친잠례를 행하였다. 그 후 일제 강점기에도 1939년까지 친잠례를 행한 기록이 있으며, 현재 창덕궁 주합루 서쪽에는 서향각이라는 장소에 '친잠권민'과 '어친잠실'이라는 현판이 남아있다. 현재는 이 지역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며 보존되고 있다.

### 가. 친잠의례에 따라 진행된 왕비의 친잠례 행사

조선시대 왕비가 내외명부 여성들을 거느리고 잠실(蠶室)에 행차하여 함께 뽕을 따고 누에를 치는 의식이 바로 친잠례였다. 이 의식은 만물이 자라기 시작하는 3월에 친경례(親耕禮)와 함께 시행되었다.

내명부 1품 이상의 후궁은 왕비를 수행하여 친잠례에 참여하였다. 영조의 왕비 정성왕후 서씨가 경복궁 후원 터에서 행한 친잠례 때 왕비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혜빈, 왕세손빈을 비롯해 내외명부의 여성들이었다. 내명부는 1품 이상, 외명부는 당상관 이상의 부인들이 선발되었다.

왕비는 황색 국의를 입었으며 수행 여성들은 아청색 옷을 입어 국의를 착용한 왕비와 구

별되었다. 왕비가 뽕을 따 장소에는 채상단(採桑壇)이라는 단을 쌓고, 왕비와 수행 여성들이 머무를 천막을 쳤다. 내명부와 외명부의 악차는 단의 서남쪽에 동향으로 배설한다.

그리고 뽕잎을 따는 내명부와 외명부의 뽕잎을 따는 위치를 단 아래 남쪽 가까이에 북향으로 배설하는데, 모두 자리를 달리 하고 겹줄로 하되, 서쪽을 상위로 하였다. 혜빈과 왕세손빈 및 뽕잎을 따는 내명부와 외명부가 각자의 복장을 입고, 모두 단 아래의 자리로 간다. 왕비가 상복으로 갈아입고 나가면서 친잠례가 시작된다.

왕비와 수행 여성들이 뽕을 따고 누에를 치기 위해서는 광주리, 갈고리, 시렁, 잠박(蠶箔), 누에 등이 필요했다. 왕비가 사용하는 갈고리는 주석으로 만들었고 붉게 칠한 가래나무로 자루를 만들었다. 이에 비해 수행 여성들이 쓰는 갈고리는 숙동(熟銅)으로 만들었는데, 자루는 가시나무였으며 색을 칠하지 않음으로써 왕비의 갈고리와 구별하였다.

왕비는 채상단으로 올라가 다섯 가지의 뽕나무에서 잎을 딴 후 황색 광주리에 넣었다. 이후에는 수행 여성들이 채상단 주위에서 뽕잎을 따기 시작했다. 왕비는 이 모습을 채상단의 남쪽에서 관람하였다. 왕비를 수행한 여성들이 따는 뽕나무 가지의 수는 품계에 따라 차등 적용되었는데 1품 이상은 일곱가지, 그 이하는 아홉 가지였다.

왕비와 수행 여성들이 딴 뽕잎을 누에가 있는 곳으로 가져가고, 이때 왕비 대신 왕세자빈(왕세손빈)이 수행 여성들을 거느리고 갔다. 누에를 지키고 있던 잠모(蠶母)는 이 뽕잎을 받아서 잘게 썰어 누에에게 뿌려 주었다. 누에가 뽕잎을 다 먹으면 왕세자빈이 다시 수행 여성들을 대동하고 왕비에게로 돌아왔다. 직접적인 친잠 행사는 여기까지다.

이후 왕비가 왕세자빈 이하 모든 여성들의 수고를 위로하기 위해 연회를 베풀었다. 연회를 위해 왕비와 수행 여성들은 다시 평상복에서 예복으로 갈아 입었다. 예복을 차려입은 왕비가 채상단에 오르면 수행 여성들은 왕비에게 절을 네 번 올렸고, 연회가 끝나면 왕비는 다시 의장물을 갖추어 내전으로 환궁하였다.

### 나. 왕비의 친잠을 지원하기 위한 왕의 노력

세종5년(1423) 잠실을 담당하는 관리가 임금께 올린 공문에는 '뽕나무는 경복궁에 3,590 그루, 창덕궁에 1,000여 그루, 밤섬에 8,280그루로 누에 종자 2근 10냥을 먹일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기록대로라면 궁궐이 온통 뽕나무밭 이었다고 짐작된다. 이를 증명

하듯이 오늘날 궁궐 안에 아름드리 뽕나무가 여러 곳에 남아 있기도 하다. 창덕궁의 가장 오래된 뽕나무는 지난 2006년 4월 6일 천연기념물 471호로 지정되었다.



### 1) 어친잠실(일명 서향각)

- 건립시기 : 1532년
- 소재지 : 창덕궁
- 행사내용 : 역대 왕이 잠업을 장려하고 왕비로 하여금 친잠례를 행하도록 하는 등 권잠정책의 일환으로 궁궐내에 왕비가 누에를 치는 잠소이다. 행사로는 채상례, 어소잠식(御掃蠶式), 어수견식(御受繭式) 등을 행하였다.

### 2) 주합루

- 설립시기 : 1777년
- 소재지 : 창덕궁
- 행사내용 : 2층 건물로 아래층은 규장각으로 사용하고, 위층은 주로 연회장으로 사용하였었다. 이곳은 주위 경치가 아름다워 포이나 비빈(妃嬪)들이 즐겨 산책하였던 곳이다. 1928년 6월 15일, 1939년 6월 26일에 친잠례를 거행한 곳이기도 하다.



창덕궁내 서향각·주합루

### 3) 순정효황후의 어수견식 행사내용 (1924. 6. 19 오후 2시. 식순)

- ① 어친관계직원 및 여자 강습소 직원, 생도 착석
- ② 내빈 착석
- ③ 왕비전하 어임석장 및 수행원 참석
- ④ 어친잠 경과보고
- ⑤ 예식과정 잠박대(급상대)를 설치
- ⑥ 어친잠주임 잠박을 받들어 놓임
- ⑦ 왕비전하 어수견
- ⑧ 폐식



순정효황후의 어수견식 행사 보도(1924. 6.19)

### 4) 왕비 친잠 어친 잠구류와 제사기기

○ 소재지 : 창덕궁

조선시대에 어친잠실에서 왕비가 친히 친잠례를 행할 때 사용하던 어친잠구(짜리잠박, 죽잠룡(竹簍籠), 실망, 대관주리, 좌수좌조기, 좌조기, 양반기 등)

### 5)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친잠례 거행실적

1411년	태종 11년 후비 친잠례
1418년	태종 18년 왕비 친잠례
1426년	세종 8년 왕비 친잠례
1475년 6월	성종 6년 왕비 친잠례
1476년 3월	성종 7년 왕비 친잠례
1477년 3월	성종 8년 왕비 친잠례
1478년 윤2월	성종 9년 왕비 친잠례
1481년 3월	성종 12년 왕비 친잠례
1493년 3월	성종 24년 왕비 친잠례(왕친경)
1504년 3월	연산군 10년 왕비 친잠례
1513년 3월 26일	중종 8년 왕비 친잠례
1518년 1월	중종 13년 왕비 친잠례
1529년 3월 24일	중종 24년 왕비 친잠례
1553년 3월	명종 8년 왕비 친잠례
1557년 8월	명종 12년 왕비 친잠례
1572년 3월	선조 5년 왕비 친잠례
1615년 9월	광해군 7년 왕비 친잠례
1620년 4월	광해군 12년 왕비 친잠례
1677년 3월 10일	숙종 3년 왕비 친잠례
1767년 3월	영조 43년 왕비 친잠례(선잠례)
1767년 4월	영조 43년 왕비 수견례
1909년 6월 21일	융희 3년 순종효황후 어수견례
1910년 6월 25일	융희 4년 순정효황후 어수견례
1924년 6월 19일	순정효황후 어수견례

- 1925년 6월 17일 순정효황후 어수견례
- 1929년 6월 15일 순정효황후 어수견례
- 1930년 6월 16일 순정효황후 어수견례
- 1933년 6월 26일 순정효황후 어수견례
- 1939년 6월 26일 순정효황후 어수견례

#### 다. 대통령 영부인에 의한 친잠사례

광복 이후에는 1972년 6월 9일 박정희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가 경기도 가평군에서 뽕 따기와 누에치기를 하며 친잠 행사가 시작되었으며 1973년 6월 5일 충북 청원군에 있는 잠업기술연수원과 1974년 5월 28일 강원도 춘천 뽕나무 마을에서 거행한 후 육영수 여사 서거로 중단된 이후 1981년 9월 9일 전두환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가 충북 청원군 잠업기술연수원에서 행하였다. 그리고 충북 청원에 있는 한국잠사박물관 ‘2006 세계누에산물전’ 행사에서 10월 14일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친잠행사를 진행하였다.



제2회 새마을양잠 시범대회 육영수 여사 친잠(1973.6.5)

다른 한편으로는 친잠례보존회에 의해 1999년 11월 20일과 2000년 10월 14일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그리고 2001년 10월 13일 경북궁 옛 친잠단 터에서 친잠례 재현이후 매년 친잠례와 수견례를 경북궁에서 재현하고 있는데, 이 또한 사라져가는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를 발굴 재현함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제3절 풍잠제 [豊蠶祭] - 누에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제례

**풍잠제 :** 매년 봄누에를 기르기 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인류를 위해 희생된 누에의 혼을 위로하고 한해의 누에를 기르는 농사가 풍요롭게 되기를 기원하는 의식

누에가 비록 미물인 곤충에 지나지 않으나, 성충이 되어 고치를 짓고 번데기가 되어 생활하다 나방이 되고 고치를 뚫고 나와 짝짓기를 마치고 알을 낳아 일생을 마쳐야 함이 마땅하나 인간에 의해서 그 생을 다하지 못한 채 인류를 위해 고귀한 선물인 비단(蠶繭)을 남기고 희생하게 된다.

희생한 누에의 혼이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그 영혼을 위로하여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잠사업에 종사하는 잠사인들이 뽕잎이 돌아오고 누에가 알에서 깨어나기 전에 잠령탑 앞에 모여서 정성을 들여 상을 차리고 누에의 영혼을 달래고 위로하면서 한편으로는 올 한해의 누에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잠령제를 지내고 있다. 누에를 사육하는 사람들은 매년 봄누에 농사를 짓기 전에 누에의 영혼을 위로하면서 제를 올릴 때 제문으로



매년 누에농사 전 누에의 혼을 위로하며 지내는 풍잠제

“잠령이시여! 미물일지언정 인류의 사랑과 아낌을 받으며 오직 인류를 위하여 희생하였음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누에는 인류에게 비단을 주었고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을 건강하게 하였으며, 양잠 농가에게는 근면과 부를 주어 국가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누에는 미물이오나 우리 인류에게 끼친 공적은 인류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하리니 이 어찌 천상의 연이 아니 리오. 올해도 우수풍조하여 건장한 누에씨와 뽕나무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아울러 기름진 뽕잎을 풍성하게 하여 양잠 농가에도 풍잠의 은전을 베풀어 우리나라 잠사업이 무궁하게 발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여기 잠령을 위로하고자 간소한 제물로서 잠사인 일동이 작은 정성을 바칩니다.”라며 누에의 혼령을 위로하는 제문을 읊어가며 한해의 누에농사가 풍요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

2015년 진행된 풍잠기원의 제문으로는

“감히 잠신 존령에게 덕화를 베푸신 생민에게는 의식의 최선으로 생각합니다. 집집마다 길쌈을 하면 사람마다 한기를 막을 수 있고, 따뜻한 비단옷의 덕이 세계만방에 혜택을 입혔네, 귀인이나 천인이나 다 좋아하니 그 은혜 양양하여 끝이 없네, 삼가 희생과 폐백과 예제와 자성과 서풍으로서 제물을 법과 절차대로 진설하여 공손히 제사를 올리오니 바라옵건데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라는 내용이다. 잠령제의 제문은 조금씩 문안은 다를 수 있으나 누에의 령을 위로하는 근본적인 의미는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래 누에는 고치 속에서 번데기로 변하고 또 7일이 지나면 누에나방이 되는데, 나오자

마자 짝을 지어 교미를 한다. 수컷은 교미 후 힘이 쇠진하여 바로 죽고, 암컷은 500여개의 알을 낳고 생을 마친다. 그러나 인간은 실을 얻기 위해 누에가 고치를 짓는 순간까지만 살게 했다.

누에알을 얻기위한 용도가 아니면 모두 제 명을 다하지 못하고 희생되고 만다. 그래서 누에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 잠령제를 지내는데 지금까지 매년 5월초에 지속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이 원하는 비단을 얻기 위한 과정이며 누에의 삶이된 것이다.

## 1. 잠신에게 지내는 제사에 관한 기록

### 산림경제(山林經濟)

조선 숙종때 실학자 유암(流巖) 홍만선(洪萬選:1664~1715)이 농업과 일상생활에 관한 광범위한 사항을 기술한 소 백과사전적인 농서(農書)로서 농립 축·잠업을 망라하였을 뿐 아니라, 농촌생활에 관련되는 주택·건강·의료·취미·흉년대비 등에 이르기까지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농서들에서 볼 수 없는, 종합적인 농가 경제서(書)라고 할 수 있다. 산림경제에 기록된 잠신(蠶神)에게 제사지내는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거가필용> 蠶官所在方 -잠신(蠶神 누에를 맡았다는 신(神))이 있는 방위는,

亥子丑年 未方 즉 잠실방은 해(亥)·자(子)·축(丑)년에는, 미방(未方)이며,  
寅卯辰年 戌方 인(寅)·묘(卯)·진(辰)년에는, 술방(戌方)이며,  
巳午未年 丑方 사(巳)·오(午)·미(未)년에는 축방(丑方)이며,  
申酉戌年 辰方 신(申)·유(酉)·술(戌)년에는 진방(辰方)이다.  
此方 春月動土 이 방위에, 봄날 흙일을 하면,  
蠶桑俱失 누에와 뽕나무가 모두 실패를 보게 된다.

<선택서(選擇書)> 祀蠶神 --- 잠신(蠶神)에게 제사를 지내는 법은,

正月初五日祀蠶神 정월 초닷셋날 잠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室當午處 잠실은 오방(午方 정남(正南))에 있어야 한다.  
具香食餅 제사를 지낼 때는 향(香)과 음식을 갖추고,  
令蠶婦禱祀 누에를 칠 여인을 시켜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用茶代酒 이때 술 대신 차[茶]를 사용한다.

<사시찬요> 齊諧記 ---<제해기(齊諧記)>에 이렇게 되어 있다.

吳縣張成 "오현(吳縣)에 사는 장성(張成)이,  
夜見婦人 於宅南 어느날 밤에 한 부인을 보았는데, 집의 남쪽에 있었다.  
婦人舉手招成曰 그 부인이 손짓을 하여 장성을 부르면서 말하였다.  
此地是君家蠶室 我即其神 이곳은 바로 당신 집의 잠실 자리이며, 나는 그 신(神)이오.  
明年正月半 宜作白粥 내년 정월 쯤이 되거든, 마땅히 흰 죽을 쑤어서,  
泛膏於上以祀我 흙 위에 붓고 나에게 제사를 드리면,  
已後年年大得蠶 그 뒤로는 해마다 누에 농사가 잘 될 것이오'했다"고 하였다.

## 2. 누에의 혼 - 잠령에 관련된 문화

1950년대 이후 잠령에 관한 시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잠공(蠶公)과 같이」

잠공! 내 그대와 같이 사로리랬다.  
전자(前者)에도 살고 앞으로도 사로리랬다.  
그대와 같이 삶에  
삶의 영광(靈光)을 얻었노라  
그대 삶에 괴롭고  
굶주리고 험 벗음에 허덕여도  
아무불편없이 묵묵(默默)히 생을 영위하는  
그대의 천성(天性)  
아! 나도 그대의 천성을 따르리랬다.  
남을 위하여 희생(犧牲)하는 그대의  
고귀(高貴)한 맘씨  
그대는 내장(內臟)을 빼어  
내게 비단옷을 입히다니  
아! 나도 그대와 같이  
고귀한 희생의 제물이 되련다.

(1954년 12월 5일 :작자미상)

## 「잠령제」

뽕나무 가지에 제비 입 걸릴 때  
 탑 앞에  
 고개 숙였네.

고하나이다.  
 고하나이다.  
 곤충의 왕이시여!

그대는 비단옷을 주었지만  
 마지막 날 베풀대신  
 끓는 물에 묻었네.

잠령이시여!  
 이젠 황사 타고 황하로 가  
 말의 배필 되소서

(1988. 4. 22 충청북도 잠종장 김동일)

## 3. 잠령탑 (蠶靈塔)

누에가 비록 미물인 곤충에 지나지 않으나 그 생을 다하지 못한채 인류를 위해 고귀한 선물(蠶繭)을 남기고 희생하게 되므로 그 혼이 있건 없건 혼을 위로하고 빌어줌으로서 그 은혜에 다소나마 보답하면서 잠사업에 종사하는 잠사인들은 누에를 치는 중요지역에 잠령탑을 세워 매년 그 앞에 많은 제물을 차려놓고 풍잠기원제를 겸하여 잠령제를 지내고 있다.

지역마다 건립된 잠령탑에 모여 화합을 도모하고 고치증산을 다짐하는 뜻에서 전국에는 잠사관계기관을 비롯하여 학교, 업체, 양잠농가 등에 많은 잠령탑이 보전되어 오고 있다.

## 1) 한국잠사박물관 잠령탑



한국잠사박물관의 잠령탑은 1933년 10월 31일 청주시 사직동 555번지 충청북도 원잠종제조소에 건립되어 1949년 3월 10일 제28회 잠업강습생 일동에 의해 수축(修築)된 바 있다. 이후 1970년 11월 11일 충청북도 잠종장(청주시 방서동 100)으로 이전하였다. 그리고 1996년 4월 25일 충청북도 잠사기관(잠종장)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여 자리하게 되었다.

탑신 높이 2.15m, 전체 높이 3.4m, 탑신 폭 1.65m, 두께 0.4m인 잠령탑은 국내 잠령탑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며 인류의 생활을 위해 희생된 누에의 령을 위로하고 잠사업의 발전을 기원하는 상징적인 탑이다.

## &lt;수축기념비문 修築紀念碑文&gt;

본 잠령탑은 충청북도 도내 잠사관계자의 총의로 5만 3천호의 양잠농가로부터 각각 생산한 견(누에고치) 3과식과 상묘, 잠종, 제사업자 및 관계기관 관공의 각출약간금식(釀出若干金式)과 충청북도 내 각 군으로 부터 채집한 연유 있는 자연석을 초석으로 거금 17년 전에 건립 하였든바 풍마우세(風磨雨洗)로 자연과손 됄을 불응관과(不應看過)하여 친우일동(親友一同)과 잠우 회원의 기념사업으로 수축(修築)하여 인류의 복지를 위하여 희생된 선잠(先蠶)을 위령하여 사업(斯業)의 발전 비호(庇護)를 기원하는 영세불망(永世不忘)의 탑으로 함.

1949년 3월 10일 (단기 4282년) 제28회 잠업강습 졸업생 일동

## 1970년 잠령탑 충청북도 잠종장 이전 후 다음해 거행된 잠령제 &lt;봉축&gt;

충청북도 부지사 성기방은 삼가 고하나이다. 잠령이시여 그대 미생물로서 인류의 사랑과 아낌을 받으며 오직 인류를 위하여 천직을 다해온 그대는 진실로 미충의 왕이시외다. 그대는 인류에게 비단을 주셨고 농가에 근면과 부를 주시어 국가산업 발전에 중추가 되셨습니다. 그대 미물이오나 우리 인류에게 끼친 적공은 우부보다 낮고 그대는 인류와 더불어 지상에 남아 영원히 공생하리니 이 어찌 천상의 연(緣)이 아니리오. 잠령이시여 여기 비의(非儀)를 갖추어 그대를 위로하고 또 그대의 고마움을 기리고자 잠사인 일동이 미성을 바치오니 흠향하시옵고 흠격하시옵소서.

## 2) 국립잠종장 잠령탑 - 농촌진흥청 농생물부 앞뜰로 이전 설치됨(2015)

- 설립시기 : 1983년 5월 11일
- 잠령탑의 크기 : 탑신높이 135cm, 탑신 폭 78cm, 두께 23cm
- 건립경위 : 이잠령탑은 1955년 6월 5일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90 원주제사 뒤뜰에 건립하여 매년 춘추로 잠령제를 지냈는데 1980년 동방제사로 통합된 후 잠령탑은 국립잠종장으로 이전 건립된 것이다. 이후 1998년 5월 15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망포동 234 농촌진흥청 잠사곤충부로 이전 설치되었다. 2015년 4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전북혁신도시이전에 따라 현재는 농업생물부 앞 뜰에 설치되어있다. 잠령의 글씨는 전 한국생사(주)부사장 이문수씨의 글씨이다.

### <축문>

서기 1988년 5월 13일 국립잠종장장 안신환은 삼가 잠령앞에 고하나이다. 우리직원 잠사인 일동은 봄누에사육이 시작되는 오늘을 맞이하여 억조잠공제위(億兆蠶公諸位)의 고귀한 희생으로 이룩한 그동안의 업적을 되새기고 그대의 공적을 추모합니다. 잠령이 시어 올해도 변함없이 누에사육에 있어 시작부터 채종(採種)이 끝날때까지 모든 일이 순조롭고 아무 탈없이 잘 이루어지도록 보살펴주시고 잠사업이 영원무궁하도록 번창하게 도와주소서 잠령이시어 여기 그대를 위로하고 그대의 고마움을 기리고자 우리들의 정성을 모아 박주소찬(薄酒素饌)을 올리오니 흠향(歆饗)하시고 흠격(歆格)하시옵소서

1988년 5월 13일 국립잠종장장 안신환

## 3) 경기도 잠종장 잠령탑

1926년 11월에 경기도 원잠종제조소 소장이던 농학박사 우메타니 요사부로(梅谷與三郎)의 발기로 잠령공양탑(蠶靈供養塔) 건립. 몸체가 화강암으로 된 잠령공양탑은 원래 기단 부 주위에 경계석이 10~11개 가량 둘러져 있었고 정면에는 제단이 있었다. 현재는 모두 사라지고 몸체인 원형만 남아있는데 밑면 가로 45cm, 세로 34cm, 높이 300cm인데 직사각형의 긴 기둥 형태로 꼭대기는 뿔처럼 뾰족하게 되어 있는 형상이다.



경기도 잠령탑(인천 시립박물관)

※ 경기도 잠령공양탑의 기구한 운명  
동적전 인근의 용두동에 있던 경기도 원잠종제조소가 경기도 부천군

소사읍 향리(현재 서울시 구로구 향동)로 일괄 이전하게 됨으로서 경기도 잠령공양탑도 자연스레 1939년 4월 함께 옮겨지게 되었다. 1978년 11월1일 잠종장이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으로 이전 과정에서 잠령공양탑을 분실하게된 것이다. 그러나 이 잠령공양탑은 우여곡절 끝에 2002년 3월 5일 인천시립박물관에 기증되어 잠령공양탑 본래 기단부는 사라진 가운데 현재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우현마당에 전시되고 있다.

## 4) 강원도 잠종장 잠령탑

- 설립시기 : 1971년 8월 10일
- 건립장소 :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293-4(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잠업담당)
- 탑의 크기 : 탑신높이 118cm, 탑신폭 42cm

### <고사>

삼가 잠공제위의 영(靈)앞에 고하노라. 인류유사(人類有史)이래 복된 삶을 위하여 잠공제위의 고귀한 희생과 찬란한 업적을 자랑하노라. 태고 때부터 누가 남의 희생의 제물 되기를 좋아하며 희생을 위한 삶의 영위를 바라는 자 있었겠는가. 일찍이 정의감과 영예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자는 있다손 치더라도 그 일족을 송두리째 바쳐 인류사회에 공헌한 자 그 누구이었던고! 참으로 거룩하도다.

잠령제공이시어 위대한 그대들의 인류앞에 바친 공적을 인류 이후의 자손만대까지도 면면 무궁무진 하리라. 늘 강원도 잠사인 일동은 지금 그대 수억만 잠령앞에 무릎을 꿇어 합장하고 고하노라. 그대들은 무자비한 인간들의 소행으로 연연히 희생되어 그 수를 헤아리지 못할진대 그대들이 인류를 저주함이 또한 마땅히 이에 못지않음이 있을 것이로되 오히려 그대들은 숙명적인 천직인양 아무 부류도 없이 묵묵히 희생으로 생을 영위하고 있으니 그대를 천성과 삶의 진리앞에 교만한 인간 우리들은 감히 말하여 그대들의 영을 위로하고 명복을 빌 염치조차 없노라. 고사(古史)시대부터 순진하였든 그대들의 대륙의 어느 곳에서 생을 영위하였을 때에는 인간 우리선조들도 순진했으리라.

그러나 유사이후 생존경쟁은 인류로 하여금 약육강식(弱肉強食)을 자행하게 만들었고 신의 섭리를 인류에게도 자기종족 보존의 꾀를 마련하였나니 그대 잠공들은 우리 인류에게 운택한 의상을 마련해 주었노라.

처음에는 우리 선조들은 그대들이 준 은혜를 최소한도로 받아들일 정도였지만 인류의 문화발전은 오늘날 그대들의 완전한 인류생존의 도구로 정복하고 말았도다.

그러나 그대들은 인류와 대적하지 않는 넓은 아량을 가졌으며 오히려 그대들 희생으로서 가져오는 인류문화발전의 공헌을 자랑하지도 아니하고 묵묵히 말이 없고나.

그대 역조 잠령들이시여 우리 잠사인 일동들은 그대의 잠훈과 잠령 앞에 한사람 같이 할 바를 모르오니 다만 오늘 여기 우리잠사인 일동은 고귀한 그대들의 희생으로서 이룩된 인류사회의 문명발전과 무언의 공헌을 아끼지 않은 그대 잠령을 이곳에 모시여 잠령탑이라 명명하고 세세 연연이 무수한 희생을 그 일기로 유명한 길을 달리하는 그대들 앞에 명복을 빌며 무자비한 인간 우리들의 죄를 사할 따름인 즉 잠령제위여 이곳에 고이 잠드소서.

1988년 5월 17일

#### 5) 동방제사 잠령탑

- 건립시기 : 1967년
- 소재지 : 춘천시 우두동 699
- 탑의 글씨 : 이문수



충남 당진군 잠령탑

#### 6) 충남 당진군 잠령탑(일명 勸桑台)

- 설립시기 : 1939년 6월 25일
- 이전시기 : 1967년 11월(충청남도 지사 김윤환)
- 건립장소 : 당진군 신평면 금천리 산 18-1
- 탑의 크기 : 탑신높이 1.5m, 넓이 0.55m

#### 7) 충청남도 공주 잠령탑

- 설립시기 : 1988년 4월 20일
- 건립장소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135-6 (농업기술원 환경농업과 잠사곤충팀)
- 탑의 크기 : 높이 15cm, 폭 106cm, 두께 60cm
- 잠령탑 건립 취지문 : 우리는 잠령을 위로하고 전통적 산업인 잠업을 계승 발전하기 위하여 1914년부터 1988년까지 공주시 봉황동에 위치한 잠종장을 우성산 산하 귀산리에 이전하고 각 시·군을 기초로 그 뜻을 모아 이 탑을 세움.
- 1996년 5월 13일 당시 잠령제 축문

충청남도 잠업사업소장 이인상(李仁相)은 삼가 고 하나이다.

잠령이시여 그대 미생물로서 인류의 사랑과 아낌을 받으며 오직 그대는 미물이오나 우리 인류에게 끼친 쌓은공은 어리석은 농부보다 낮고 그대는 인류와 더불어 지상에 남아 영원히 고생하리니 어찌 천상의 인연이 아니리오. 잠령이시여 여기 비의(悲意)를 갖추어 그대를 위로하고 또 그대의 고마움을 가리고자 잠사인 일동이 미성(微誠)을 바치오니 흠향 하시옵고 금년에도 풍잠이 이루어 지도록 흠격 하시옵소서.



충남 공주 잠령탑

#### 8) 동아건설 잠령탑

- 건립시기 : 1938년
- 소재지 : 충남 예산읍 주교리 179

#### 9) 전라북도 잠종장 잠령탑 - 현재 부안으로 이전 설치됨

- 건립시기 : 1937년 2월 27일(전주시 금암동 2가 665)
- 소재지 : 전북 완주군 용진면 운곡리975 (1990년 9월 18일 농업기술원 원종과잠업 시험지 이전) (2011년 10월 현재는 전라북도 부안군 잠사곤충시험장 이전설치)
- 탑의 크기 : 탑신높이 1.76m, 전체높이 3.11m, 탑신넓이 0.95m, 탑신두께 0.25m



전북 잠사곤충시험장 잠령탑

#### 잠령탑 건립 취지문(건립당시의 글)

잠업발전의 이면에 희생되는 누에는 실로 막대하여 전라북도만 하여도 1년간에 800만 마리정도의 누에나방이만 교미후 본연의 일생을 마치는 외 15억여의 누에는 대부분이 건건기내에서 90℃ 이상의 고열로 강제 살용(殺蛹)되고 배자(胚子) 또는 유충으로 학술 연구 등에 해부되고 또는 열탕, 약품 등에 투입되며 혹은 빙고(氷庫)에서 그대로 세상을 못본채 비참한 희생을 당함은 비록 나라를 위하고 농촌의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하더라도 생명을 가진 누에의 신세가 되었다면 한줌의 눈물을 불금(不禁)할 것인바 잠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서로모여 누에의 영혼이 있고 없고간에 명복을 빌어주고 위로함으로 써 잠사업체는 스스로 화합 명랑하여지고 정신적으로 얻은 바가 적지 않으므로 잠령탑을 세운다.

### 10) 순창군청 잠령탑

- 설립시기 : 1941년 11월(순창군청)(군청청사 이전으로 원래자리에서 약간 옮겨짐)
- 건립경위 : 1941년 당시 순창군에서 누에고치 5만석 생산계획을 세우고 목표 달성을 다짐하는 기념으로 잠령탑을 세워 잠령제를 지내다가 1990년 8월 순창양잠농업협동조합으로 이전 건립.
- 이전장소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복실리 157
- 탑의 크기 : 탑신높이 2m, 축대 3단계 3m
- 이전경위 : 1941년 잠업증산의 일환으로 잠견생산 목표달성을 위한 기념탑을 군청사 앞에 건립하고 누에의 일생이 번데기로 마치면서 전인류에 공헌하는 누에혼령의 위령과 풍잠을 기원하는 잠령제를 거행해 오다가 1985년 군청사 신축 및 청내 환경정비로 청사뒤뜰에 이전되었다. 1990년 8월 순창군 양잠농업협동조합 신축이전을 기해, 박해규 순창군수의 잠업진흥 특수시책 지원에 의하여 치잠공동 사육장 건립과 동시 소외되고 잊혀져가는 본탑을 양잠인 모임의 광장에 옮겨 잠업의 역사성과 맥을 이어가는 양잠인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전북 순창군청 잠령탑

### 11) 전북 남원군 태평리 잠령탑

- 건립시기 : 1962년 8월 15일
- 소재지 : 전라북도 남원시 산동면 태평리(오천년)
- 탑의 크기 : 탑신 1.8m, 넓이 0.4m, 두께 0.3m
- 탑 건립경위 :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해 오천년 양잠농가가 뽕나무를 대량으로 심어 이지방 군수를 비롯하여 관계기관장들이 기념으로 세웠음.
- 설립자 : 남원군수 채기묵, 군잠업계장 김육곤, 산동면장 서호석, 산동지서장 장윤

### 12) 전라남도 잠종장 잠령탑

- 설립시기 : 1976년 8월 15일
- 건립장소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성산리 800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분장/ 현 전라남도농업기술원곤충잠업연구소 소재)
- 건립자 : 정재구
- 탑신뒀면 글 : 순결한 그 이름은 인류역사 품안에 길이 안기리
- 탑신 받침돌 글 : 건잠우종(健蠶優種)



전남 곤충잠업연구소 잠령탑

### 13) 경상북도 잠종장 잠령탑

- 건립시기 : 1930년 3월(대구시 신청동)
- 이전시기 : 1962년 2월 11일
- 탑신과 축대 돌 : 바다돌로 건립한 것이 특징
- 소재지 : 상주시 북룡동 170(농업기술원 잠사곤충사업장)  
(현재 상주시 함창읍 경북잠사곤충사업소에 이전 설치됨)



경북 잠종장 잠령탑

#### <제문>

유세차(維歲次) 정묘(丁卯)5월 갑인일(甲寅日) 온 산과 들에 단술냄새 가득찬 5월 오늘날을 택하여 경상북도 잠종장장 김낙상(金洛相)은 직원일동과 함께 잠령님께 기원합니다. 올해도 우순풍조하여(雨順風調)하여 기름진 뽕잎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고 적온과 적습이 순조롭게 유지되어 건전우량 잠종이 목표최이상 생산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아울러 도내의 전 양잠농가에도 대풍의 은전을 베풀어 주시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여건을 한국 잠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우리의 잠사업이 무궁무진 발전하도록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소한 주과포(酒果哺)로서 무릎 꿇어 기원하나이다.

### 14) 상주농업전문대학(경북대 상주캠퍼스) 잠령탑

- 설립시기 : 1930년(상주역전 공판장)
- 이전시기 : 1948년 봄(경상북도 상주시 남성동 140)
- 재이전 : 1987년(상주농업전문대학이 상주시 가장동 386으로 이전함에 따라 다시 이전)



## 15) 청도군청 잠령탑

- 건립시기 : 1932년 4월
- 건립경위 : 잠작의 안정과 잠업 발전 기원을 위하여 군내 양잠농가의 성원으로 건립

## 16) 경상남도 잠종장 잠령탑

- 설립시기 : 1974년 1월
- 건립자 : 류상곤 장장
- 건립장소 :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647(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잠업기술담당)
- 탑의 크기 : 탑신높이 1.1m, 넓이 0.55m, 탑축대높이 0.78m



밀양농잠(부산대 밀양캠퍼스) 잠령탑

## 17) 밀양농잠(부산대 밀양캠퍼스) 잠령탑

- 설립시기 : 1971년(졸업생 건립)
- 건립장소 :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1028
- 잠령제 : 매년 미리벌 축제에 잠령제를 지냄

## 18) 함양제사 잠령탑

- 건립시기 : 1975년 6월 7일 (탑의 글씨 : 이문수)
- 소재지 : 함양읍 교산리 150(경남제사 함양공장) - 현재 함양 강대수씨 댁내 위치(2019년 확인)
- 탑의 크기 : 탑신높이 0.75m, 넓이 0.55m

## 제4절 잠사업 관련 문화유적

## 1. 거창군의 양잠영농과학화 기념비

- 건립시기 : 1987년 12월 4일
- 장소 :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101
- 내용 : 기념비
- 건립경위 : 100만주 뽕밭조성지의 잠업발전을 기하고자 치잠공동사육장을 설치한 기념으로 세워졌음

## 2. 잠사과학연구백년기념비

- 설립시기 : 2000년 11월 19일 (탑의글씨 : 이문수)
- 건립장소 :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61 잠사곤충부
- 비의크기 : 높이 3.3m, 폭 1.2m, 두께 0.8m



국립잠종장 잠령탑

## 3. 원주군 연혁탑

- 설립시기 : 1968년 8월 10일
- 장소 : 강원도 원주군청(원주시 중앙동 273)
- 내용 : 잠업진흥이 활발한 1968년 원주군기와 함께 뽕잎, 누에, 고치를 조각 잠업군 임을 상징함.

## 4. 잠원전철역 벽화

## (1) 누에와 누에고치

- 장소 : 서울 서초구 잠원동 지하철 제3호선
- 내용 : 뽕잎바탕에 누에와 고치모양의 모자이크
- 규격 : 높이 2.7m, 길이 10m
- 재료 : 글라스모자이크 18m/m - 67,500개



## (2) 실감기와 비단짜기

- 장소 : 서울 서초구 잠원동 지하철 제3호선역
- 내용 : 명주실감기와 풀먹이기, 명주짜기
- 규격 : 높이 2.7m, 길이 10m
- 재료 : 타일모자이크 25m/m - 37,037개
- 디자인 및 시공 : (주)현미개발 대표 정진표 (1985. 10. 18 지하철 3호선 개통)



## 5. 잠업진흥원의 누에와 고치모형

- 건립시기 : 1972년 5월 <2019년 12월 철거 후 2020년 3월 신규제작 이전설치 됨>
- 장소 :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학천리 175 (대한잠사회 잠업기술연수원)
- 내용 : 누에와 고치모형

- 규격 : 누에 몸길이 12m, 몸둘레 5m, 누에고치 길이 6m, 둘레 7m
- 건립경위 : 1973년 잠업전문기술교육 상징 건립
- 이후 2020년 3월 9일 누에 몸길이 11m, 몸 둘레 4m, FRP재질로 신규제작 설치



잠업기술연수원의 누에와 고치모형

## 6. 공주잠실

- 건립시기 : 1924년
- 규모 : 123.08평(2층 목조 와가)
- 소재지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319
- 소유자 : 충청남도 잠종장
- 특징 : 전 충청남도 잠종장 소유로서 서양식건축 방법으로 내부구조 설계가 누에생리에 적합하도록 되어있어 누에고치 질이 매우 좋다. 아쉽게도 도시계획에 의거 1988년 철거되어 그 모습만 사진으로 전해지고 있다.



충남 공주 잠실 (1924)

## 7. 공주 잠종보호고

- 건립시기 : 1915년 11월 10(공주잠업강습소)
- 소재지 : 충남 공주시 산성동 산성공원
- 규모 : 폭 90~180cm, 높이 180cm, 길이 11m,



공주잠종보호고(1924)

## 제5절 전국의 뽕나무 기념수

### 1. 잠실리(整室里) 뽕나무

- 서울지방 기념물 제1호(1973년 1월 26일 지정)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잠원동 1-54(한신공영 APT 120동 뜰) (신동초등학교 뒤)

〈1972년도 안내문-시(市)안내문〉

이 문화재는 신동국민학교가 돌보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도 함께 우리의 열이 담긴 문

화재를 아끼고 보호하여 찬란한 우리 민족문화 발전의 거울이 되게 합시다.

1972년 6월 8일 | 서울특별시시장 양택식



1910년 당시 잠실리 뽕나무 모습

1983년 뽕나무 모습 2010년 뽕나무 모습 &lt;서울지방기념물 제1호&gt;

### 2. 창덕궁 천연기념물 제471호 뽕나무(2006년)

창덕궁 후원의 뽕나무는 조선시대 양잠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궁 후원 뽕나무 식재와 친잠례 거행 등 궁궐 역사의 일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수목으로 2006년 4월 6일 천연기념물 제471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 3. 상주시 은척면 천연기념물 제559호 뽕나무(2020. 2. 3)

경상북도 상주시 은척면 '상주 두곡리 뽕나무'는 높이가 10m에 이른다. 나이는 약 300년으로 추정되며 2020년 2월 3일 천연기념물 제559호로 지정되었다. 뽕나무 보호구역 내에 1930년대에 최병철 상주군수가 세운 「명상기념비」(名桑記念碑)가 있다.



### 4. 강원도 정선군 봉양리(鳳陽里) 뽕나무



강원도 정선의 중심 정선읍 봉양리 정선군청 앞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한 쌍의 뽕나무가 있다. 강원도 지방기념물 제7호인 봉양리 뽕나무의 전체 높이는 25m이고 수령은 600년 정도로 추정된다. 강원도 정선 봉양리 뽕나무는 현재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뽕나무 가운데 가장 오래된 나무이며 크기나 수세(樹勢)에서도 첫손에 꼽을 만한 최고의 뽕나무다.

### 5. 왕의 능을 지키는 김포의 장릉 뽕나무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인천시청 뒤편 장릉에는 암·수의 뽕나무 두 그루가 정자각의 좌측과 우측에 위치하며릉(陵)을 지키고 있다. 이 뽕나무는 인조대에 심은것으로 추정되며 수령이 400년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기한 것은 정자각 우측의 뽕나무는 뿌리 쪽에서 두 그루가 붙어서 오랫동안 자라난 연리목(連理木)이다.



### 6. 북한천연기념물 제88호 묘향산 뽕나무

평안북도 해발 1,909m 묘향산 보현사 서쪽마당에 수령 400여년의 산뽕나무는 1980년 1월에 북한 천연기념물 제 88호로 지정되었다. 나무는 1680년경에 심은 것으로 추정되며 나무 높이는 15m이다. 나무는 곧게 자라 오르다가 중간부위의 가지들이 돌려 붙었으므로 둥근 갓 형태의 모양을 지니고 있다.



### 7. 통일을 염원하는 휴전선 장단역 뽕나무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31일 개성역을 떠나 한포역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중공군에 밀려 다시 내려오면서 오후 10시 쯤 장단역에서 멈춰 섰다. 휴전선 기관차 연실에서 자라던 2.5m 크기의 산뽕나무는 장단역의 기관차를 최종 보존장소인 임진각으로 옮겨질 당시인 2009년 6월 25일 기념하는 행사에서 이 뽕나무를 옮겨 심어 현재 자리를 지키고 있다.



### 8. 300년 수령 경남 양산의 장수 뽕나무 (2020년 발견)

장수뽕나무가 발견된 곳은 경남 양산시 조계암(천성산 내원사 말사. 대적선원)으로 이 장수뽕나무의 수고는 15m, 가슴둘레 310cm, 동서 길이 15m, 남북 길이 20m가량이다. 특히 이 뽕나무는 우리 고유의 재래종 산뽕나무로 성장하여 싱싱한 거목으로 남아있는 것은 드물다. 특히 두 나무가 함께 자라는 연리목이라는 점도 희귀성을 더하고 있다.

